

KINU 정책연구시리즈 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 임강택 · 임순희 · 전성훈 · 조정아 · 허문영 · 이승열



■ KINU 정책연구시리즈 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 임강택 · 임순희 · 전성훈 · 조정아 · 허문영 · 이승열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인 책 2012년 12월
발 행 2012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북한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5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한디자인 (02-2269-9917)
인 쇄 처 한디자인 (02-2269-9917)

I S B N 978-89-8479-659-1 93340

가 격 비매품

© 통일연구원, 2012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목차 Contents

| | |
|--------------------------------|-----|
| 요 약 | v |
| I. 분석 배경 | 1 |
| II. 북한 매체의 논조 및 정책 동향 분석 | 9 |
| 1. 김정은 동향 및 리더십 | 11 |
| 2. 대내정책 | 30 |
| 3. 경제정책 | 53 |
| 4. 핵 정책 | 72 |
| 5. 대외정책 | 93 |
| 6. 대남정책 | 120 |
| III. 향후 정책 전망과 고려사항 | 159 |
| 1. 향후 정책 전망 | 161 |
| 2. 정책적 고려사항 | 168 |
| 참고문헌 | 171 |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173 |



요약

2011년 12월 19일 12시, 북한은 특별방송을 통해 12월 17일 8시 30분 김정일이 현지지도 중에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2011년 12월 28일 평양 금수산 기념궁전 앞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은 1974년 후계자 내정 이후 약 37년 동안 북한을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김정일의 시대는 끝이 났음을 보여주었다.

김정일의 사망과 함께 그의 삼남인 김정은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김정은은 2011년 12월 30일 최고사령관 승계를 시작으로 2012년 4월 11일 4차 당대표자회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의 12기 5차 회의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당 ‘제1비서’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직을 승계하면서 제도적 권력이양은 모두 마친 상태이다.

이 글은 김정일 사망 이후 2012년 6월까지 『조선중앙통신』, 『중앙방송』, 『평양방송』, 『노동신문』, 『조선신보』 등 북한 매체에서 보도된 원문 자료의 주요 논조와 정책 방향을 중심으로 지난 6개월 동안 김정은 시대의 주요 변화를 분석한 것이다. 김정일의 갑작스럽게 사망과 준비되지 않은 어린 지도자의 등장으로 북한 체제가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가운데, 과연 지난 상반기 동안 김정은 체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보았다.

김정은 체제의 의미 있는 변화를 여섯 개의 주제로 분류하였다. 첫째, 김정은의 상반기 동향 및 리더십을 분석하였다. 둘째, 북한의 국내정치 변화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북한의 경제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넷째, 북한의 핵 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북한의 대외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북한의 대남정책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좀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의 동향과 리더십의 변화는 과거 김정일에 비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다. 무엇보다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이 은둔자적인

행보를 보였던 김정일과 달리 공개적이며, 대중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기념사진을 찍을 때마다 주민들과 적극적인 스킨십에 나서고, 공식석상에 부인 이설주를 동행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 주었다. 모란봉 악단 공연에서 미국의 디즈니랜드의 캐릭터가 등장하고, 미국 영화 ‘Rocky’가 공연 배경화면으로 등장한 것은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이다. 이것은 9년 동안 스위스에서 유학한 김정은의 국제적 시각을 들어낸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북한의 국내정치 변화는 과거와 비교할 때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 북한의 대내정치 부분의 주요 내용은 여전히 ‘수령영생사업,’ ‘유혼통치,’ ‘김정은의 영도 보장 및 결사옹위,’ ‘김일성-김정일주의,’ ‘선군정치 계승,’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등 여섯 가지 주제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었다. 다만 국내 정치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4월 행사를 통해 김정은 체제를 이끌고 나갈 북한 엘리트 구조 또한 새롭게 진영을 갖추게 되었다는 점이다. 우선 당료 출신인 최룡해가 북한군을 통제하는 총정치국장에 임명되었고, 이와 함께 당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 등장되어 군부 최고 실세인 이영호 총참모장에 앞서 북한의 권력 2인자로 등장하였다.

셋째, 북한의 경제정책은 상당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타난 북한의 경제정책 동향의 주요 내용은 ‘4월 6일, 김정은의 당중앙위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내용,’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최영림 내각총리의 보고 내용,’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열병식에서의 김정은 연설내용,’ ‘4월 27일 김정은의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의 국토관리 사업에 대한 담화 내용’ 등 네 가지 주제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김정은은 체제의 정통성과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생활 향상에 주력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할 것으로 예고된다. 이를 위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

로서 ‘6.28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대외협력 확대를 통한 외자유치 전략이 보다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현재까지 김정은 시대의 핵 정책이 변화될 것이라는 징후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나타난 북한의 핵 정책 동향의 주요 내용은 ‘김정일의 업적인 핵보유국 지위 강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비난,’ ‘한국의 국방태세와 한·미 연합훈련 비판,’ ‘남북관계와 대남비방,’ ‘북·미 관계’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개정 헌법의 서문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한 것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이다. 특히 지난 미국과의 2. 29합의가 4.13 장거리 로켓을 발사로 무산된 것은 북한의 핵 정책에 대한 태도가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지난 상반기 북한의 외교정책 동향의 주요 내용은 ‘2.29 북미 합의 도출과 파기,’ ‘대 남방외교(제3세계 외교) 강화,’ ‘대 서방외교(대미, 대일정책) 강경기조 유지,’ ‘대 북방외교(대중, 대러정책)개선을 통한 북방삼각관계 복원 은밀히 시도,’ ‘한반도 핵위기 고조 및 전쟁 발발 가능성 경고’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2012년 상반기에 나타난 북한의 대외정책의 변화 중 특이할 만한 것은 무엇보다 남방외교(제3세계외교)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이후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외교 강화에 나섰다는 점이다. 물론 2.29 합의 파기 이후 서방외교에 있어서는 여전히 대결적 구도가 지속되었다.

여섯째, 북한의 대남정책 동향의 주요 내용은 두 시기로 나뉘어서, 첫 번째는 2011년 12월 19일~2012년 2월 29일까지이고, 두 번째 시기는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이다. 첫 번째 시기는 ‘초기 애도 분위기,’ ‘대남 비난 강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는 ‘김정일 사망 관련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난과 보복의지 과시,’ ‘최고준엄(김정일·김정은)을 중상 모독한 특대형 도발행위, 특대형 범죄행위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고취 및 보복의지 과시,' 남한의 총선(4.11)과 연말 대선 정국에 즈음하여 남한사회 혼란 및 갈등 조장, 격화,' 통일부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일상적·상투적 비난,' 한반도 핵위기 고조 및 전쟁 발발 가능성 경고'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김정은의 파격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대남 관련 유화적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대남 비난 추이 지속될 것이다. 또한 12월 남한의 대통령 선거까지 현 정부와 협상 가능성은 높지 않으며, 남한의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 또한 보여주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이후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북한 체제가 그동안 지향했던 정책목표가 변화할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는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 동향의 주요 초점은 김정은 체제가 체제안정을 위해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있다. 즉, 선군정치의 유산을 강조하고, 핵 개발과 남한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지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6.28 경제개선 조치 등 내부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후자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국내외적 환경을 우호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I. 분석 배경

- 2011년 12월 19일 북한은 12시 특별방송을 통해 12월 17일 8시 30분 김정일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12월 28일 평양 금수산 기념궁전 앞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영결식을 끝으로 1974년 후계자 내정 이후 37년 동안 북한을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 김정일의 시대는 끝이 났음.
 - 김정일의 사망은 북한체제 내부의 변화뿐만 아니라 남한 그리고 6자회담에 참여하고 있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안보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
- 2011년 12월 28일 김정일의 영결식과 12월 30일 최고사령관 승계 이후 공식 출범하게 된 김정은 체제는 지난 6개월 동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시대와는 다른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음.
- 첫째, 김정은에게로의 제도적 권력 이양이 과거 김정일 때보다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음.
 - 김정은의 공식적인 권력 승계는 2011년 12월 30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임명됨으로써 시작됨. 그리고 2012년 4월 11일 4차 당대표자대회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12기 5차 회의에서 김정은은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와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자신은 ‘제1비서’와 ‘제1위원장’직에 추대되었음.
- 둘째, 4월 11일 제4차 당대표자대회와 4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이후 인사에서는 김정은 체제를 이끌고 나갈 북한 엘리트 구조 또한 새롭게 진영을 갖추게 되었음.
 - 우선 당료 출신인 최룡해(근로단체비서)가 북한군을 통제하는 총정치국장에 임명됨. 이와 함께 당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서 군부 실세인 이영호 총참모장보다 서열이 더

높아져 명목상 북한의 권력 2인자로 등장하였음.

- 정치국 후보위원이었던 장성택이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으며, 장성택의 부인인 김경희가 북한 권력의 핵심인 비서에 임명되었음. 김원홍 총정치국 부국장이 국가안전보위부장에 임명되었음. 인민보안부의 이명수 부장이 김원홍, 최룡해 등과 함께 국방위원회 신입위원으로 임명되었음.
- 총정치국 제1부국장인 김정각은 차수 승진과 함께 인민무력부장에 임명되었고, 또한 총정치국 출신인 현철해는 차수 승진과 국방위원,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에 임명되었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에 임명되었음.
- 셋째,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이 은둔자적인 행보를 보였던 김정일과 달리 매우 공개적이며, 특히 인민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음.
 - 김정은은 선친인 김정일 위원장과 달리, 2012년 김일성 100주년 기념 태양절 행사에서 해외 언론을 초청하고, 이들 앞에서 대중 연설을 직접 함으로써 자신이 김정일과 같은 은둔의 지도자가 아닌, 개방 혹은 공개된 지도자임을 과시하였음.
 - 김정은 제1위원장은 기념사진을 찍을 때마다 군인들 혹은 가족 그리고 주민과 팔짱을 끼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에 나서는 것이 눈에 띈. 그리고 북한 매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민들의 편지에 일일이 친필 답장을 했다는 소식을 신속히 전하고 있음.
- 넷째, 북한은 김정일 사망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2012년 2월 29일 미국과 제3차 고위급 회담에 합의하였지만, 곧이어 4월 13일 장거리 로켓을 발사함으로써 어렵게 성사된 북미 합의를 무산됨.
 - 고위급 회담을 통해 6자회담의 사전조치의 핵심사항인 우리늄

농축 유예와 영양(식량)지원에 전격 합의했음. 즉, 북한은 영변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중단,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사찰단 방북, 미사일발사 및 핵실험 유예를 약속했고, 미국은 영양 비스켓 등을 포함하여 약 24만 톤 규모의 ‘영양지원’을 하기로 한 것임.

- 그러나 북한은 3월 16일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을 맞아 지구 관측위성 광명성 3호 위성을 쏘아 올린다”고 밝혔고,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월 13일 오전 7시 39분경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기지에서 장거리로켓을 발사하였음. 발사 2분여 만에 공중에서 폭발했지만, 유엔안전보장 이사회는 북한의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이후 이와 같은 일련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동안 북한 체제가 지향했던 정책목표가 변화할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는 아직 보이지 않음.
 - 그동안 북한이 추구했던 정책 목표는 첫째, 핵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며 핵보유국가로 인정받고, 둘째, 핵무기를 인정받은 상황에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관계를 개선하고, 셋째, 대내적으로 반개혁정책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넷째, 개혁 없이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개방사업을 확대하고, 다섯째, 공안 통치 강화를 통해 대내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임.
- 본 글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김정일 사후 북한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조선중앙통신』, 『중앙방송』, 『평양방송』, 『노동신문』, 『조선신보』 등에 보도된 원문 자료의 주요 논조와 정책 방향을 연구한 보고서임.

- 본 글의 주요 주제별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 영역임.
 - 첫째, 김정은 동향 및 리더십 분석,
 - 둘째, 북한의 국내정치 동향,
 - 셋째, 북한의 경제정책 동향,
 - 넷째, 북한의 핵 정책 동향,
 - 다섯째, 북한의 대외정책 동향,
 - 여섯째, 북한의 대남정책 동향
- 각 분야별 논지는 아래와 같음.
 - 김정은 동향 및 리더십 분석의 주요 내용은 ‘선군(先軍)혁명 역량의 강조,’ ‘김일성·김정일 혁명위업 찬양,’ ‘최고지도자로서 인격적 품모 과시,’ ‘김정은 리더십 특장점 강조’ 등 네 가지 주제로 구분하고 있음.
 - 북한의 대내정치 부분의 주요 내용은 ‘수령영생사업,’ ‘유훈통치,’ ‘김정은의 영도 보장 및 결사옹위,’ ‘김정일 애국주의,’ ‘김일성-김정일주의,’ ‘선군정치 계승,’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 등 여섯 가지 주제로 구분하고 있음.
 - 북한의 경제정책 동향의 주요 내용은 ‘4월 6일 김정은의 당중앙위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내용,’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최영림 내각총리의 보고 내용,’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열병식에서의 김정은 연설내용,’ ‘4월 27일 김정은의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의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담화 내용’ 등 네 가지 주제로 구분하고 있음.
 - 북한의 핵 정책 동향의 주요 내용은 ‘김정일의 업적인 핵보유국

- 지위 강화,’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비난,’ ‘한국의 국방태세와 한미 연합훈련 비판,’ ‘남북관계와 대남비방,’ ‘북미 관계’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북한의 외교정책 동향의 주요 내용은 ‘2.29 북미 합의(이하 2.29 합의) 도출과 파기,’ ‘대 남방외교(제3세계 외교) 강화,’ ‘대 서방 외교(대미, 대일 정책) 강경기조 유지,’ ‘대 북방외교(대중, 대러 정책)개선을 통한 북방삼각관계 복원 은밀히 시도,’ ‘한반도 핵위기 고조 및 전쟁 발발 가능성 경고’ 등 다섯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음.
 - 북한의 대남정책 동향의 주요 내용은 두 시기로 나뉘서, 첫 번째는 2011년 12월 19일~2012년 2월 29일까지이고, 두 번째 시기는 2012년 3월부터 6월까지 시기로 나눔. 첫 번째 시기는 ‘초기 애도 분위기,’ ‘대남 비난 강화’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두 번째 시기는 ‘김정일 사망 관련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난과 보복의지 과시,’ ‘최고존엄(김정일·김정은)을 중상 모독한 특대형 도발행위, 특대형 범죄행위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고취 및 보복의지 과시,’ ‘남한의 총선(4.11)과 연말 대선 정국에 즈음하여 남한사회 혼란 및 갈등 조장, 격화,’ ‘통일부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일상적·상투적 비난,’ ‘한반도 핵위기 고조 및 전쟁 발발 가능성 경고’ 등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Ⅱ. 북한 매체의 논조 및 정책 동향 분석

1. 김정은 동향 및 리더십

가. 주요 논조와 정책방향

- 주요 내용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선군(先軍)혁명 역량의 강조,
 - 김일성·김정일 혁명위업 찬양,
 - 최고지도자로서 인격적 품모 과시,
 - 김정은 리더십 특장점 강조

(1) 선군(先軍)혁명 역량의 지속적 강조

(가) 남한에 대한 강력한 전투준비태세 확립과 선군혁명역량의 강조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뜻깊은 새해에 즈음하여 1일 오중흠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 제105탱크사단을 방문하시고 인민군장병들을 축하하시였다.”¹(1.1)
- 무엇보다 류경수 사단의 업적으로써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가장 먼저 서울에 입성한 부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사단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전쟁개시 3일만에 서울을 타고 앉아 괴뢰중앙청에 공화국기를 휘날리였으며 서울방송국을 점령하고 서울해방소식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을 뿐 아니라 대전해방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들에서 미제침략자들에게 영웅적

¹ “김정은, 1.1 근위 서울류경수 105탱크사단 방문,”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1일.

조선인민군의 무쇠철마의 본때를 보여주고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다.”²(1.1)

- 금수산 기념광장에서 열린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에서 남한에 대한 강력한 무력공격의지를 천명함.
 - 맹세문은 “혁명의 총대를 더욱 서슬푸르게 버려 원수들이 신성한 우리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전군이 폭풍처럼 달려나가 적들을 마지막 한 놈까지 씨도 없이 멸족시키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겠다”고 강조함.³(1.9)
- 연평도 포격을 감행했던 4군단사령부를 방문하여, “연평도불바다의 교훈을 망각하고 또다시 우리의 존엄을 함부로 건드리며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고 획책하고 있는 미제침략자들과 남조선 괴뢰호전광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천백 배복수심이 용암마냥 끓어번지고 있었다”고 강조함.⁴(2.25)
 - “적들의 대규모적인 반공화국전쟁연습소동에 대처하여 전투진지를 차지한 군부대 장병들의 가슴마다에는 일단 명령이 내리면 침략의 아성을 흔적도 없이 쓸어버림으로써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결정적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는 서슬푸른 결사의 의지와 자신만만한 배심이 차넘치고 있었다”고 강조함.
 - “4대대는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에 도전하여 우리측 령해수역에 무모한 포사격을 강행한 남조선괴뢰호

2. “김정은, 1.1 근위 서울류경수 105탱크사단 방문,”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1일.

3. “北 육해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9일.

4. “김정은, 서남전선지구 조선인민군 제4군단사령부 관하 군부대들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2년 2월 25일.

전광들의 침략도발책동을 무자비한 불소나기로 짓뭇개버림으로써 연평도불바다와 더불어 그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자랑높은 구분대”임을 강조함.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지휘부와 관하군부대를 시찰하시였다”고 보도함.⁵(2.7)
 - “작전에서 과학성, 정확성은 생명과 같다는 것을 명심하고 화선지휘관다운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훈련기풍으로 새로운 작전전투방안을 찾아 밤을 지새우는 훈련열풍속에서 부대의 두뇌로서의 작전전술적 안목과 창조적능력, 배짱과 담력을 완벽하게 다져 나가고 있다”고 강조함.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전략로켓트사령부를 시찰하시였다”고 보도함.⁶(3.2)
 - “총대로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켜내야 하는 군대에게 있어서 싸움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싸움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있다가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무자비한 화력타격으로 원수들의 아성을 불바다로 만들라고 말씀하시였다”고 강조함.
- “조선인민군 룡해공군합동타격훈련을 지도”하는 보도에서 “침략자들이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하늘과 땅, 바다를 0.001mm라도 침범한

5.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 지휘부와 관하군부대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2년 2월 7일.

6. “김정은, 조선인민군 전략로켓트사령부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2일.

다면 단호히 맞받아나가 도발자들의 머리우에 불벼락을 안길 데 대한 위대한 선군령장의 명령을 심장깊이 새기고 억척같이 다져온 우리 혁명무력의 대응타격의 본태를 과시하였다”고 강조함.⁷(3.14)

- “훈련은 침략자들이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하늘과 땅, 바다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단호히 맞받아나가 도발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몽개버리고 사회주의조국을 철옹성같이 사수할 인민군군인들의 단호한 결심과 항일의 빛나는 전통을 굳건히 이어가는 우리 혁명무력의 대응타격에는 한계가 없다는것을 힘있게 과시하였다”고 강조함.⁸(4.27)
-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부대군인들이 적들의 침략책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맡겨진 전투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대하여 만족을 표시하시고 부대의 싸움준비와 전투력을 일층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고 강조함.⁹(5.23)

(나) 최고존엄의 모독에 대한 이명박 정부에 대한 강력한 응징 맹세

- 오중흡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해군 제123군부대를 시찰한 보도에서, “군부대장병들의 가슴마다에는 민족의 대국상 앞에 두무릎을 꿇고 천백번 빌어도 시원치 않을 대역죄를 저지르고도 우리 군대와 인민뿐 아니라 온 세계가 한결같이 태양으로 우러르는 백두산위인들의 높으신 권위를 혈뜰는 천추에 용납 못할 특대형도 발행위를 감행한 역적무리들을 한 놈도 남김없이 모조리 수장해버

7. “김정은,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타격훈련 지도”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14일.

8. “김정은, 제655연합부대 종합전술훈련 지도”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7일.

9.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1501군부대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23일.

림으로써 쌓이고 쌓인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말 원수격멸의 의지가 차 넘치고 있었다”고 강조함.¹⁰(3.9)

- 조선인민군 육해공군합동타격훈련을 지도한 보도에서, “백두산위인들의 절대적인 권위를 감히 중상모독한 리○○역적패당을 씨종자 하나 남김없이 깡그리 죽탕쳐버림으로써 분노로 치를 떨고 있는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에 서린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말 억척불변의 의지로 세차게 고동치고 있었다”고 비난함.¹¹(3.14)
- “수령결사옹위를 자기의 최고사명으로 하고있는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는 생명보다 더 귀중한 백두산위인들의 절대적인 권위를 감히 중상모독한 천하의 악당 리○○역적무리들을 뼈다귀도 추리지 못하게 목사발을 만들고 하늘에 닿은 이 나라 천만군민의 원한을 기어이 풀고야말 결사의 의지가 차 넘치고 있었다”고 강조함.¹²(4.27)

(2) 김일성·김정일 혁명위업 찬양

(가) 김일성·김정일의 혁명 업적을 찬양하는 문화예술관람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조선로동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새해에 즈음하여 2012년 은하수 신년음악회 《태양의 위업 영원하리》를 관람하시였다”고 보

¹⁰ “김정은, 오중흡 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해군 제123군부대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9일.

¹¹ “김정은,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합동타격훈련 지도,”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14일.

¹² “김정은, 제655연합부대 종합전술훈련 지도,”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7일.

도함.¹³(1.2)

- 출연자들은 “아버이장군님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심장, 김일성민족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시였으며 선군조선의 존엄과 강대성, 무적의 힘의 상징이시였다는 것과 우리의 천만군민은 현 시대의 위대하고 걸출하며 열정적이고 강의한 령도자, 고결하고 참된 위인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혁명의 한길을 걸어 왔다는 것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고 칭송함.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시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4.25문화회관에서 성황리에 진행 되고 있는 음악무용종합공연 《영원토록 받들리 우리의 최고사령관》을 관람하시였다”¹⁴고 보도함.(1.15)
 - “출연자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건군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인민군대를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고 인민군군인들을 조국의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 키워주시였으며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올려 세워 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고 강조함.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기념대공연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가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김정은이 관람하였다고 보도함.¹⁵(2.16)

13. “김정은, 2012년 은하수 신년음악회 ‘태양의 위업 영원하리’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2일.

14. “김정은, 음악무용종합공연 ‘영원토록 받들리 우리의 최고사령관’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15일.

15. “김정은, 2.16 김정일 생일기념 대공연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2년 2월 16일.

- “출연자들은 만민의 축복속에 백두광명성으로 솟아오르시여 주체혁명의 장구한 로정을 자랑찬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으시며 김일성민족의 무궁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절세의 애국자의 빛나는 생애를 높이 칭송하였다”고 강조함.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은하수 광명성절 음악회 ‘태양을 따르는 마음’을 관람하시었습니다”고 보도함.¹⁶(2.24)
 - “출연자들은 음악회를 통하여 주체혁명 위업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끌어 오신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절절하게 노래했다”고 강조함.
- “출연자들은 선군혁명의 험난한 초행길을 헤치시며 자주시대 혁명 무력건설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고 나라의 강성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담보하는 강대한 군사력을 마련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고 강조함.¹⁷(4.26)
- “김정은동지께서는 평양시민들과 함께 인민극장에서 조선인민군 창건 80돐경축 은하수음악회 《잊지 말자 혁명에 다진 그 맹세》를 관람하시였다”고 보도함.¹⁸(4.27)
 - “음악회를 통하여 출연자들은 위대한 김일성민족-김정일조선의 어제와 오늘, 찬란한 미래는 혁명적무장력의 장구한 력사와 하나로 잇닿아있으며 동지애로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지시고 이 땅우에 강성번영의 전성기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

16. “김정은, 은하수 광명성절음악회 관람,” 『중앙방송』, 2012년 2월 24일.

17. “김정은, 4.25 공훈국가합창단공연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6일.

18. “김정은, 군창건 80돌 경축 은하수음악회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7일.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있어 주체조선의 영광스러운 100년사가 끝없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고 강조함.

- ‘5.1절 경축 은하수음악회 《장군님 식솔》’에서, “출연자들은 혁명의 년대마다에 투쟁의 진군가로 울려퍼졌던 추억깊은 명곡들을 통하여 이 땅우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시고 주체조선의 100년사를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었던 자유와 독립, 창조와 변혁의 자랑찬 년대기로 빛내여 주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고 강조함.¹⁹(5.2)

(나) 김정일의 위대한 선군혁명 강조

-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주문진해전에서 단 4척의 어뢰정으로 미제의 중순양함 《볼티모》호를 격침시키고 세계해전사에 류례없는 전과를 이룩하였으며 평화시기 우리의 령해에 침범한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나포하여 세상을 놀래운 군부대의 자랑찬 군공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시였다”고 보도함.²⁰(4.5)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해병들이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1편대, 4편대, 5편대, 83편대에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었다”고 강조함.²¹(4.5)

19. “김정은 『5.1절』 경축 은하수음악회 ‘장군님 식솔’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2일.

20. “김정은, 해군 제155군부대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5일.

21. 위의 글.

- “출연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쳐 싸우려는 인민군장병들의 절대불변의 신념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다는 것을 노래와 시에 담았으며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이라면 물과 불속에라도 서슴없이 뛰어드는 것을 삶의 영예로, 본분으로 여기고 주체혁명위업을 총대로 받들어가는 길에서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갈 철석의 맹세를 뚜렷이 과시하였다”고 강조함.²²(5.19)

(3) 최고 지도자로서 인격적 품모 과시

(가) 김정은의 혁명위업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님을 강조

- “영화는 세계가 제대로 알지 못하였을 뿐 조선에서 령도의 계승 작업은 오래전부터 착실히 추진되어 왔다”고 강조함.²³(1.8)
 - “2009년 4월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가 발사되었을 때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김정은부위원장께서는 오늘 각오를 하고 그곳에 갔다왔다, 적들이 요격에로 나오면 진짜 전쟁을 하자고 결심하였다”고 함.
 - “장군님께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찾으시여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낄것을 호소하시고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을 지피신 것이 2008년 12월”이라고 강조함.
 - “조선의 전면공격전이 시작되는 것과 더불어 《김대장》의 령도

22. “김정은, 인민군 제639·534대연합부대 예술선전대 공연 관람,”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19일.

23. “세상에 공개된 ‘발걸음’의 기록-기록영화 ‘백두의 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 방영,” 『조선신보』, 2012년 1월 8일.

를 뜻하는 《발걸음》의 노래가 군대에서 그리고 인민들속에서 널리 불리우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강조함.

- “2010년 9월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주체혁명위업의 유일한 후계자》로 공식추대되시기 이전부터 장군님의 가장 가까운 전사로서 그이의 활동은 끊임없이 이어졌음”을 강조함.

(나) 김정은의 인격적 풍모(인민사랑)에 대한 흠송을 강조

- 인민군대가 맡고 있는 여러 건설대상을 시찰하는 모습을 통해 인민들을 생각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음.
 - 평양민속공원에 대해 “역사주의적 원칙과 현대적 미감이 맞으면 서도 인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폭넓은 지식을 습득 할 수 있게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함.
 - “영웅거리고기상점은 인민들이 즐겨 찾을 곳이건 만큼 구매자들의 편리를 최대로 보장할 수 있게 건설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시공에서 철저히 인민성, 친절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오중흡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3870군부대를 시찰하는 동안 김정은의 인격적 모습을 강조하였음.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회관, 식당을 비롯한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세심히 보살펴주시었다”는 점을 강조함.
 - “식당에 들리시여서는 고기는 정상적으로 먹이는가, 점심에 어떤 국을 먹이는가, 음식가공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물어주시었으며 취사원들에게 수고하라고 다정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젖

은 손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며 김정은의 인간적 따뜻함을 찬양함.

- “설명절에 즈음하여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시고 교직원, 학생들을 축하하시었다”며 혁명유자녀들에 대한 김정은의 따뜻한 배려를 강조함.²⁴(1.24)
 - “눈물을 흘리는 원아들에게로 다가가시어 빨갳게 상기된 얼굴들을 어루만져주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추운 날씨인데 장갑을 왜 끼지 않았는가, 손이 시리지 않은가 다정히 물어주시며 따뜻이 손잡아주시었다”며 아이들에 대한 지도자의 마음을 강조함.
 - “일일량식 공급규정량표를 보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물고기를 정상적으로 먹이자면 얼마나 필요한가도 물어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규정량대로 공급해주어 원아들을 잘 먹이라고 당부하시었다”고 강조함.
- “초도방어대의 전체 군인들은 떠나면 외진 섬초소에까지 찾아오시여 부대가 나아갈 길을 휘황히 밝혀주시고 전시들을 친부모의 사랑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뚫어오르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한다”고 강조함.²⁵(3.9)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어 눈석이로 하여 차를 밀고 올라야 하는 가파로운 언덕길을 뚫으시며 높은 산정에 위치한 지휘감시소에 오르시었다”고 강조함.²⁶(4.4)

24. “김정은, 만경대혁명학원 방문,”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24일.

25. “김정은, 서해안 전방초소를 지키고 있는 초도방어대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9일.

26. “김정은, 동해안전방초소 러도방어대 시찰,”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4일.

-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현대미를 자랑하며 특색있게 건설된 만수교고기상점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그토록 마음쓰신 아버지장군님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다심한 은정에 의하여 마련된 인민사랑의 창조물이다”라고 강조함.²⁷(4.26)
- “인민이 누리는 기쁨과 행복에서 자신의 만족과 보람을 찾으시며 한평생 인민을 위한 길에 계시었던 아버지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을 그대로 안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개선청년공원 유희장을 다섯번째로 찾으시었다”며 인민사랑을 강조함.²⁸(5.25)
 - “만경대 유희장을 돌아보면서 지적하였지만 유희장은 유희시설들과 주위환경이 잘 어울릴 수 있게 지대정리사업을 잘해야 찾아오는 인민들이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강조함.
- “창전거리 건설에 동원된 전체 건설자들은 인민사랑의 전설을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을 금치 못하면서 당의 전투적 과업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빛내이는데 한 몸 다바쳐갈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었습니다”라고 강조함.²⁹(5.25)
-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 미적 지향과 요구에 맞게 건설되고 있는 류경원이 완공되면 수도시민들을 비롯한 인민들이 사회주의 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서의 행복한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됩니다”라고 강조함.³⁰(5.25)

27. “김정은, 4.25 만수교고기상점 준공식 참석,”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6일.

28. “김정은, 개선청년공원 유희장 시찰,” 『중앙방송』, 2012년 5월 25일.

29. “김정은, 창전거리 현지도,” 『중앙방송』, 2012년 5월 25일.

30. “김정은, 류경원과 인민야외빙상장 건설사업 현지도,” 『중앙방송』, 2012년 5월 25일.

- “아버이 장군님의 인민사랑의 결정체이며 인민의 향유물인 인민 야외빙상장을 하루빨리 완공하여 인민들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더욱 높이 발양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라고 강조함.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에서 축하연설을 하시었다”며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 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길 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입니다”라고 강조함.³¹(6.6)

(다) 김정은의 지극한 효성에 대한 강조

- “아버이 장군님의 위대한 인민사랑의 정치를 그대로 펼쳐가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고 산악같이 일떠선 군 인건설자들은 대중적 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함”을 강조함.³²(4.10)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극장은 아버지 장군님께서 10여년 전부터 구상해오시었으며 생애 마지막 시기에도 특별히 관심하시던 대상이라고 하시면서 극장이 훌륭히 일떠섬으로써 우리 인민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극장을 안겨주시려고 마음써오신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할 수 있게 되었다고 기쁨을 금치못하셨습니다”라고 강조함.
- “아버이 수령님에 대한 천만군민의 다함없는 그리움과 태양칭송의 송가가 4월의 푸른 하늘가에 높이 올려 퍼지는 뜻깊은 시기에 국가

31.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성대히 진행,”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6일.

32. “김정은, 완공을 앞둔 인민극장 현지지도,” 『중앙방송』, 2012년 4월 10일.

산업미술중심이 훌륭히 일떠섰습니다”라고 강조함.³³(4.10)

- “조선인민군 무장장비관은 위대한 수령님과 아버지 장군님에 대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숭고한 도덕의리의 결정체이며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총대역사와 무궁무진한 힘을 보여주는 국보중에 국보”임을 강조함.³⁴(4.15)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당과 국가, 무력기관의 책임일꾼들과 함께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과 김정일 대원수님의 태양상을 우러러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면서 삼가 인사를 드렸다”고 강조함.³⁵(4.25)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성원을 돌아보니 아버지장군님 생각이 난다고, 오늘처럼 멋있게 꾸려진 강성원을 보시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시였겠는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고 강조함.³⁶(5.1)
-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지난해 2월 이곳 군부대를 시찰하시고 지휘부 일군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며 그러나 “그날 임무수행으로 영광의 자리에 참가하지 못한 일군들이 있다는 보고를 받으신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후날 그들과도 기념사진을 찍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그리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아버지장군님께서 남기신 그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군부대일군들과 직속구분대 군인들을 모두 부르시여 기념사진을 찍으시는 뜨거운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고 칭송함.³⁷(5.23)

33. “김정은, 국가산업미술전시회장 참관,” 『중앙방송』, 2012년 4월 10일.

34. “北, 무장장비관 개관식 진행,” 『조선중앙통신』, 『중앙방송』, 2012년 4월 15일.

35. “김정은, 4.25 금수산태양궁전 방문,” 『중앙방송』, 『평양방송』, 2012년 4월 25일.

36. “김정은, 「5.1절」 즈음 대관유리공장과 허철용 기계공장 현지지도 및 노동계급들 축하,”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1일.

37. “김정은, 조선인민군 제656군부대 장병들과 기념사진,”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 “조선소년단이 오늘처럼 혁명의 계승자들의 힘있는 조직으로 세상에 자랑떨치게 된 것은 한없이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은혜로운 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함.³⁸(6.6)
 - “우리의 대원수님들처럼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불러주시고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며 한평생 학생소년들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그런 위대한 아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하며, 또한 “참으로 조선소년단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난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소년단이며 이런 소년조직의 한성원이 된 것은 우리 소년단원들의 크나큰 자랑이며 영광입니다”라고 강조함.

(4) 김정은 리더십의 특징점 강조³⁹(『조선신보』, 5월 8~9일)

- 조선신보는 <새 바람이 분다/제1위원장의 영도술>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정은 제1위원장의 리더십을 분석하고 있음.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정세대응에서 발휘된 구심력
 - “최고령도자의 연설이 국제적판도에서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을 때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조선의 인공위성발사를 <규탄>

23일.

38. “김정은, 조선소년단 전국연합단체대회 축하연설-전문-,”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6일.

39. “새 바람이 분다/ 제1위원장의 영도술(1),” 『조선신보』, 2012년 5월 8일; “새 바람이 분다/ 제1위원장의 영도술(2),” 『조선신보』, 2012년 5월 9일.

하는 의장성명을 발표하였다”고 함. 이에 대해 “조선의 대응방식에는 새로운 특징이 있었다”며 “지난 100년간의 역사를 자랑차게 총화하고 선대 수령들의 선군업적을 높이 찬양한 4.15연설의 연장선에서 유엔안보리의 처사를 단호히 배격한 것이다”라고 강조함.

- “평화는 우리에게 더 없이 귀중하지만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은 더 귀중하다”며 위성발사권리를 침해하는 적대행위를 단죄하고 조미합의에서 벗어나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취할 가능성에 대하여 언급한 외무성 성명의 마지막 구절은 4.15연설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었다”고 보도함.

- 자주권 수호의 정치

- “김정은 제1위원장께서 열병식연설에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 나갈 것이라는 《대범하고도 적극적인 립장》을 밝히신데 대하여 일부러 언급하면서 남측의 대결소동을 비난하였다”고 보도함.
- “4.15연설의 인용사례는 현재의 대외 및 대남자세가 철두철미 최고령도자의 뜻과 의향에 따라 이루어지고있음을 력력히 과시하는 것이다”며, “최고수위에서 표명된 정책과 로선이 어김없이 집행되고 결실을 가져올 때 당과 행정, 이민여론이 단단히 맞물려령도자의 구심력은 한층 더 강화된다”고 보도함.

- 이민위천 사상의 실천

- “태양절 100대축전을 앞둔 4월 6일, 김정은 제1위원장께서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담화를 하시었다”며, “민심을 떠나 일심단결이란 있을수 없습니다 …… 민심을 소홀히 하거나 외면하는 현상들과 강한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주장함.

- “선대수령들의 좌우명이었던 《이민위천》의 사상을 높이에는 실천해나갈 의지는 4.15열병식연설에서도 표명되었다”며,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는 연설의 구절은 청중들의 심금을 울렸다”고 보도함.
- “태양절 100돛대축전이 성과리에 진행된 직후, 제1위원장께서는 명절을 경축하는데 공헌한 관계자들을 일일이 만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며, “100돛 경축대표들, 인민극장과 무장장비관 건설자들, 만수대창작사 창작가들, 열병식 참가자들, 수천, 수만의 군인이 령도자와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보도함.
- 다가가는 정치
 - “최고령도자의 인민관을 반영한 소식들은 새해벽두부터 전해지고있었다”며, “1월 1일 제1위원장께서 근위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신 소식이 신문보도를 통해 전해졌다. 신문에 게재된 기념사진은 전에는 볼수 없었던 광경을 담고있다”고 보도함.
 - “장병들은 제1위원장을 모시고 집체사진을 찍었는데 맨 앞줄에선 장병들에 자세가 여느때와 달랐다”며, “제1위원장의 팔에 딱 달라붙고 울먹이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보도함.
 - “관병일치의 사모범이 비낀 그 영상이 텔레비존방송을 통해 전해지자 《우리 모두 김정은동지와 팔을 끼고 어깨걸고 나가자》는 술어가 류행어처럼 되면서 사회적으로 번졌다”며, “령도자와 인민, 최고사령관과 장병들과 거리감을 못느끼게 하는 인상깊은 장면들이 련달라 전해졌다”고 보도함.
 - “민심을 강조하는 최고령도자의 정력적인 활동은 미래지향적인 의식과 감각을 돋구어준다”며, “지금 인민들이 나는 언제나 동지

들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는 전우가 될 것인가라는 4.15연설의 한 구절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보도함.

나. 의미 분석 및 특이사항

- 상반기 동안 김정은의 활동동향과 리더십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조선신보에서 보도한 “제1위원장의 령도술”에서 언급된 특징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음. 결과적으로 김정은의 활동동향과 리더십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 김정은의 동향과 리더십이 매우 공개적이라는 점임. 지난 7월 조선신보 보도에서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패이후 즉시 실패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해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 개방형, 공개형이라는 점을 지적했음.
 - 신문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정치스타일은 공개성의 과정을 중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덧붙임. 그러면서 “젊은 영도자는 국제사회의 추세를 바탕으로 조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당당하게 과시하려 하고 있다”며 “고립된 나라, 폐쇄된 사회의 딱지로 조선을 비방중상한 외국인론도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김정의 통치 리더십이 공개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음.
 - 또한 김정은은 최근 ‘세계적 추세’라는 표현을 입에 자주 올리고 있음. 그는 지난 4월 27일 노동당, 경제기관, 근로단체 간부들을 상대로 한 담회에서 “국토관리와 환경보호 부문에도 세계적인 발전추세와 다른 나라들의 선진적이고 발전된 기술들을 받아들일 것이 많다”며 외국의 좋은 것을 과감하게 받아들이라고 강조

하고 있음.⁴⁰(4.28)

-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인민형 지도자’라는 이미지로 부각하기 위해 애쓰고 있음.
 - 김정은 제1위원장은 기념사진을 찍을 때마다 군인들과 혹은 가족 그리고 주민과 팔짱을 끼는 등 적극적인 스킨십에 나서는 것이 눈에 띈다. 그리고 북한 매체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주민들의 편지에 일일이 친필 답장을 했다는 소식을 신속히 전하고 있음.
 - 또한 김정은은 지난 4월 15일 대중연설에서 인민생활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함. 그는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하였는데, 북한 역사상 최고지도자가 이처럼 명확하게 인민의 생활고에 대한 언급을 한 건 처음임.
 - 지난 5월 9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만경대유회장 놀이공원 내 잡초를 직접 뽑으며 공원을 관리하는 간부들을 엄하게 질책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등 김정은 1위원장의 ‘인민 사랑’을 집중 부각하고 있음.
- 지난 6개월 동안 김정은의 정책 성향은 4.15 이전과 4.15 이후의 정책성향에 분명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음. 4.15 이전의 정책성향은 선군정치의 노선을 계승하며, 대외관계에서 도발적 정책노선을 선호하였지만, 4.15 이후 김정은의 정책성향이 선군(先軍)에서 인민생활의 향상으로 전환되는 정책 선택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김정은은 2012년 1월 1일 그의 첫 현지도 장소로 6.25 당시 서울에 첫 입성한 ‘근위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을 방문하였음.

40.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올데 대하여,” 『로동신문』, 2012년 4월 28일.

- 그리고 2월 24일, 2011년 11월 연평도 포격을 감행한 4군단을 방문해 “적들이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조국의 바다에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원수의 머리위에 강력한 보복타격을 안기리”라고 지시하였음.
- 또한 2012년 1월 이후 4월 전까지 보도된 김정은의 공개 활동 25회 중 12회가 군부대에 집중되었고, 경제현장 방문은 3회 정도에 그쳤음.
- 김정은은 김정일 생일 하루 전인 2월 14일에 김정일을 공화국 대원수로 추대하고, 자신의 첫 인사를 당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 공동으로 군 장성 23명에 대한 승진이사로 단행함.
- 북한은 2월 29일 미국과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ranium Enrichment Program: UEP) 유예와 24만 톤 영양지원을 합의 했지만, 3월 16일 조선중앙통신은 광명성 3호 발사를 공표하고, 4월 13일 7시 39분경 동차리 기지에서 발사했음.
- 김정은은 4.15 첫 공개연설에서 “인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음. 이는 김정일 위원장이 1994년 김일성 사망 이후, “나의 사상은 불다, 나에게서 변화를 기대하지 말라”고 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임.

2. 대내정책

가. 주요 논조와 정책방향

- 주요 내용은 일곱 가지 주제로 구분할 수 있음.
 - 수령영생사업,

- 유훈통치,
- 김정은의 영도 보장 및 결사옹위,
- 김정일 애국주의,
- 김일성-김정일주의,
- 선군정치 계승,
-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

(1) 수령영생사업

- 1월 12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특별보도를 통해 김정일 시신 금수산기념궁전 안치, 김정일 동상 건립, 2월 16일 광명성절 제정, 전국각지 김정일 태양상, 영생탑 건립 등 수령영생사업의 내용을 공표하고 이를 활발히 수행할 것을 독려함.
 -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고 장군님의 당 건설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려는 것은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고 의지이다.”⁴¹(4.11)
 - “수령영생위업의 빛나는 실현, 바로 여기에 주체혁명의 승리를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
 -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00돐을 민족최대의 명절로, 인류사적대경사로 맞이한 긍지를 안고 수령영생위업실현을 위한 길에 충정의 한마음을 다 바쳐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

41.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불멸의 이정표로 될 조선노동당 제4차대표자회(사설), 『중앙방송』, 2012년 4월 11일.

장하자!》는 구호를 신념의 구호, 량심의 구호로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전국 각지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정중히 모시며 영생탑을 건립하는 사업에 모든 지성과 정열을 기울여야 한다.”⁴²(4.23)

- 수령영생사업의 실현은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도덕의리의 결정체임을 강조함.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더욱 숭엄하게 꾸리는 것을 비롯하여 수령영생사업 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치신 것은 수령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숭고한 도덕의리의 최고정화입니다.”⁴³(4.14)
 -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며 수령영생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심을 가지고 진행하여야 합니다.”⁴⁴(4.19)

(2) 유훈통치

-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주체 위업을 완성하고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는 길임을 강조함.
 -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절대불변의 신념과 숭고한 도덕의리심을

42.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따라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하여 억세계 전 진하자 (사설), 『로동신문』, 2012년 4월 23일.

43. “김일성 생일 10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4일.

44. “김정은과 당중앙위 일꾼들의 담화(4.6) 내용 게재,”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9일.

- 지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시며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지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길에서 한치의 양보도, 한치의 드팀도 없을것이며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천추만대에 빛내어나갈 것이다.”⁴⁵(12.19)
- “오늘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위업과 유훈을 끝까지 관철 해나갈 불타는 맹세로 심장의 피를 끓이고 있다.”⁴⁶(12.28)
 -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김정일동지의 탁월한 령도따라 우리의 사상과 제도, 우리의 위업을 끝까지 옹호고수하고 빛내여 나가려는 천만군민의 고결한 충정과 불굴의 정신력에 의하여 이 땅, 이 하늘아래에는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가 반드시 일떠설 것이다.”⁴⁷(12.28)
 -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혁명업적과 유훈은 우리가 영원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생명선이며 혁명의 만년재보이다.”
 -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이 길에서는 절대로 변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다.”⁴⁸(1.1)
 - “아버이수령님의 사상과 위업,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나가는 우리 당, 우리 국가에는 그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없다는

45.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에게 고향,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19일.

46.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우리 인민은 영원한 혼연일체이다, 『중앙방송』, 2011년 12월 28일.

47. “김정은, 2011.12.27 김정일 영구에 애도 표시,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28일.

48. “로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1일,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2012년을 강성부흥의 전성기가 펼쳐지는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것이 김정은동지의 철의 의지이다.”⁴⁹(1.9)

- “우리는 장군님의 유훈을 강령적지침으로 틀어쥐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여 장군님의 구상과 념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합니다.”⁵⁰(4.19)
- 김정일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4월 13일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 서문에 김정일의 업적을 명문화함과 함께, 김일성을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김정일을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명시함.
 -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사상 선군사상에 기초하여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관한 사상이론들을 전면적으로 밝히심으로서 우리 당의 혁명사상이 시대와 인민 대중의 자주위업을 향도하는 백승의 혁명학설로 빛을 뿌리게 하시였습니다.”
 - “탁월한 군사사상과 무비의 담력과 배짱으로 우리 조국을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시어 우리 인민이 영원히 자주적 인민으로 강성 번영해 나갈 수 있는 억년 기틀을 마련하신 선군영장 김정일 대원수님의 민족사적 업적은 후손만대 길이 칭송될 것입니다.”⁵¹(4.14)
 - “김일성 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계승 완성하는 것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는 비범한

49.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나가자(사설), 『중앙방송』, 2012년 1월 9일.

50. “김정은과 당중앙위 일꾼들의 담화(4.6) 내용 게재,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9일.

51. “김일성 생일 10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4일.

예지와 탁월한 영군술, 무비의 담력으로 우리혁명무력 발전의 최전성기를 열어 놓으시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혁명의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 필승불패의 선군정치로 인민군대를 최정예 전투대오를 강화발전시키시고 전대미문의 사회주의 수호전을 연전연승으로 이끄시었으며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 세우는 거대한 역사적 업적을 이룩하시었습니다.”⁵²(4.15)

-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태양으로 영생하시고 주체조선의 100년사가 수령님의 존함으로 빛나는 것은 김정일동지께서 수령님의 사상과 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신 결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강령으로 제시하시여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혁명적전환을 가져오게 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여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빛내어나갈수 있게 하시였다.”⁵³(6.12)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받들어 우리 공화국을 김일성동지의 국가로 강화발전시키시고 민족의 존엄과 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신 절세의 애국가, 사회주의조선의 수호자이시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전면적으로 심화발

52.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열병식,” 『중앙방송』, 2012년 4월 15일.

53.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김정은, 4.20 김일성 생일 즈음 논문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12일.

전시키시고 자주시대의 지도사상으로 빛내이시였으며 주체의 혁명전통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시고 순결하게 계승발전시키시어 조선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이어놓으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연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압살공세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⁵⁴

-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김일성-김정일
 - 김정은 삼대로 이어지는 혁명의 계승성을 강조함.
 - “김정은동지이시여, 인민이 드리는 우리 최고사령관동지의 그 부름을 안으시고 김일성조선을 영원한 승리로 이끄시라!”⁵⁵(12.24)
 -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강성변영을 위하여 총공격 앞으로!”⁵⁶(12.31)
 -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의 거룩한 혁명생애를 크나큰 걱정 속에 돌이켜보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러러 보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일떠세울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고 있습니다.”⁵⁷(2.16)

54. 『사회주의 헌법』, 2012년 4월 13일 개정.

55. “김정은 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부르며 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할 것이라고 강조”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24일.

56. “조선노동당 중앙위-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공동구호,”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31일.

57. “북, 광명성절 즈음 김정일에 숭고한 경의표시 행사 진행,” 『중앙방송』, 2012년 2월 16일.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한평생 자신의 모든 것을 깡그리 바쳐 쌓아올리신 사상리론적 재부들과 불멸의 업적은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만년재보이며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튼튼한 밑천이다.”⁵⁸(4.9)
- 김정은이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하고 그의 사상적 노선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김정일이 생전에 수표한 문건에 김정은이 다시 수표함으로써 김정일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장군님께서 생존에 결론하신 문제들이 어김없이 집행되도록 해당문건에 최고령도자의 수표가 다시 새겨졌다. 세계가 텔레비존 영상을 통해 조의식장의 눈물바다를 지켜보고 있을 때에도 긴요한 경제문제를 풀기 위해 내각총리가 각지의 생산현장을 찾아 실태를 료해하고 있었다. 최고령도자의 지시와 명령을 받은 일군들은 강성국가건설의 각 분야 최전방지휘소로 달려나갔다.”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 내놓으신 유훈관철의 지침은 장군님의 로선과 다른 길을 가지 않겠다는 선택의 의향을 표시한데 그치지 않았다. 장군님께서 생전에 구상하시던 그 모든 것들을 무조건에누리없이 집행하여 반드시 결실을 보겠다는 실천의지에 그 방점이 있다.”⁵⁹(3.15)
 - “위대한 장군님께서 구상하신 모든 것을 한건의 미결건도 없이 원만히 풀고 장군님께서 가꾸어 오신 수많은 씨앗들을 풍만히 열매로 꽃피우는데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총집중하여야 한다. 자기 부문, 자기 단위에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 관철에서 미

58. “북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제2291호,”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9일.

59. “<일심단결의 중심에서 최고사령관의 영도력-1>,” 『조선신보』, 2012년 3월 15일.

진된 것이 없는가를 따져보고 마무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나가야 한다.”⁶⁰(4.5)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필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전체 군대와 인민을 김일성조선의 새로운 100년대 진군으로 힘차게 이끌어나가고 계십니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장군님께서 이끌어오신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의지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⁶¹(4.14)
- “나는 성스러운 선군혁명의 길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생사운명을 함께하는 전우가 될 것이며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조국과 혁명 앞에 지닌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⁶²(4.15)
- 2012년 4월 11일에 열린 조선로동당 제 4 차 대표자회와 4월 13일에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김정일을 “영원한 총비서,”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고, 그 의의를 선전함.
 -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는것은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우리 혁명위업을 승

60.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 열의속에 뜻깊게 맞이하자(사설), 『로동신문』, 2012년 4월 5일.

61. “김일성 생일 10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중앙방송』, 『평양방송』,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4일.

62.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열병식(김정은 연설내용), 『중앙방송』 2012년 4월 15일.

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기 위한 원칙적요구입니다. 장군님을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신다는것은 결코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군님을 당의 총비서직책에 변함없이 높이 모시고 당건설과 당활동을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해나간다는것입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은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지도적지침이며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백전백승의 기치입니다.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떠나서는 우리 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당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조선혁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나가기 위하여서는 장군님을 영원한 총비서로 높이 모시고 오직 장군님의 사상과 로선을 일관하게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합니다.”⁶³(4.19)

- “조선로동당 제4차 대표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회의에서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우리 당의 영원한 총비서로, 우리 공화국의 영원한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모신 것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고결한 충정과 송고한 도덕의리의 최고정화이다. 수령영생위업의 빛나는 실현, 바로 여기에 주체혁명의 승리를 위한 근본담보가 있다.”⁶⁴(4.23)

(3) 김정은의 영도 보장 및 결사옹위

- 당의 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을 설정하고, 당, 인민, 군이 김정은을 중심으로 일심단결할 것을 주장함.

63. “김정은과 당중앙위 일꾼들의 담화(4.6) 내용 게재,”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9일.

6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따라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전진하자(사설),” 『로동신문』, 2012년 4월 23일.

- “오늘 우리 혁명의 진두에는 김정일동지의 유일한 후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서계신다고 하면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하여 더욱 억세게 투쟁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하였다.”⁶⁵(12.31)
- “지금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최고사령관을 더 높이 추켜들고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탁월한 영도자이신 김정은 동지의 선군영도따라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 불타는 결의에 충만되어 있다.”
-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김정은 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선군혁명의 한길로 더욱 힘차게 나가야 한다.”⁶⁶(12.24)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영도는 조선노동당의 강화 발전과 주체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위한 생명선이다. 우리 당은 김정은 동지의 영도 밑에 사상적 순결체, 조직적 전일체로 비상히 강화되고 선군혁명의 향도적 역량으로 인민대중과 혼연일체를 이룬 어머니당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 있다.”⁶⁷(4.11)
-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는 것입니다.”⁶⁸(4.19)

65.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 관한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1년 12월 31일.

66.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선군조선의 영원한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중앙방송』, 2011년 12월 24일.

67. “주체의 혁명위업수행에서 불멸의 이정표로 될 조선노동당 제4차대표자회(사설), 『중앙방송』, 2012년 4월 11일.

68. “김정은과 당중앙위 일꾼들의 담화(4.6) 내용 게재,”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9일.

-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는 당 제4차 대표자회의 기본정신을 철저히 구현해나가야한다.”⁶⁹(4.23)
- “우리 군대와 인민의 단결의 정신은 오랜 혁명투쟁과정에서 신념과 의지, 량심과 도덕으로 굳어지고 삶의 요구로 체질화, 생활화 된 것이다.”⁷⁰(6.22)
- 김정은의 업적을 부각시킴으로써 김정은을 중심으로 한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선군혁명영도의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인민군대 강화, 국방공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혁명과 건설의 전반사업을 영도하시면서 조국의 부강변영과 선군혁명위업의 계승 완성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특출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고결한 충성과 숭고한 도덕의리로 수령영생사업 실현의 새로운 장을 펼치시었으며 무적의 대군인 인민군대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수호하시고 전체 인민을 한품에 안아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대고조격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계십니다.”⁷¹(4.9)
- 목숨을 바쳐 김정은을 보위해야 한다는 수령결사옹위 정신을 강조함.
 - “우리의 김정은 동지를 결사옹위하는 길에 주체혁명 위업의 승리가 있고 강성국가건설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

69.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따라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승리를 향하여 역세계 전진하자(사설), 『로동신문』, 2012년 4월 23일.

70.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 노선, 『로동신문』, 2012년 6월 22일.

71.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9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중앙방송』, 2012년 4월 9일.

-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위대한 김정은 동지를 정치 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야 한다.”⁷²(12.24)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결사 옹위하는 총폭탄이 되고 그이의 구상과 의도를 현실로 꽃피워나가는 결사관철의 투사가 되려는 천만군민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⁷³(12.28)
- “일심단결은 우리 혁명의 천하지대본이며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생명이다.”
- “누구나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려는 신념으로 심장의 피를 펄펄 끓여야 한다.”⁷⁴(4.23)
- “자기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믿고 가장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려는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사상정신적풍모의 근본핵으로, 모든 사고와 실천의 출발점으로 되고 있다.”⁷⁵(6.22)

(4) 김정일 애국주의

- 북한은 5월 12일 “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깊이 간직하자”는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김정은 시대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사상으로서 ‘김정일 애국주의’라는 표현을 처음

72. “위대한 김정일 동지는 선군조선의 영원한 백전백승의 기치이다,” 『중앙방송』, 2011년 12월 24일.

73. “위대한 김정일 동지와 우리 인민은 영원한 혼연일체이다,” 『중앙방송』, 2011년 12월 28일.

74.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따라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승리를 향하여 억세계 전진하자(사설), 『로동신문』, 2012년 4월 23일.

75.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 노선,” 『로동신문』, 2012년 6월 22일.

사용하였음.

- “오늘 우리 당은 전체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 애국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갈 것을 바라고 있다”며 “김정일 애국주의는 가장 숭고한 후대관, 인민관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강조함.⁷⁶(5.12)
- 또한 사설은 김정일 애국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서 인민에 대한 지도자의 사랑이라며 다음과 같이 표현함. “인민의 리익과 행복을 위해 한생을 깡끄리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이라는 점을 강조함.(5.12)
- “김정일 애국주의는 수령에 대한 절대불변의 충실성을 핵으로 하여 한평생을 애국으로 수놓아오신 장군님의 업적과 위대성을 특징짓는 사상”이라고 강조함.⁷⁷(5.14)
- 북한은 5월 21일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을 강화하자”는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김정일 애국주의’를 모든 인민들이 따르고 배워야 할 애국주의의 최고귀감이라고 강조하였음.
 - “김정일 애국주의 교양은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 주의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며 “김정일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야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령도자의 사상과 위업을 충실하게 받들고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사상과 숨결로 살며 싸워나가는 참다운 김일성-김정일주의자로 준비시킬 수 있다”고 강조함.⁷⁸(5.21)

76. “일군들은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깊이 간직하자(사설), 『로동신문』, 2012년 5월 12일.

77. “모두 다 김정일 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자(사설), 『중앙방송』, 2012년 5월 14일.

78. “김정일 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자(사설), 『로동신문』, 2012년 5월 21일.

- 북한이 체계화한 ‘김정일 애국주의’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임. 첫째, ‘수령에 대한 충정의 일편단심,’ 둘째, ‘미래에 대한 숭고한 헌신,’ 셋째, ‘강성대국건설에 대한 뜨거운 애착’으로 요약됨. 이것은 ‘김정일 애국주의’가 김정은 시대의 새로운 지도사상으로서 이미 정식화되었음을 의미함.
 - “김정일 애국주의는 조국은 곧 수령이고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애국의 최고표현이며 인민을 위한 헌신적복무는 애국심의 발현이라는 수령중심, 인민대중중심의 애국주의”라고 강조함.(5.21)
 - “미래를 위하여, 이것이 김정일 애국주의에 맥박치는 혁명정신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평생 자신의 위한것이라면 사소한 것도 허용하지 않으시며 오로지 후손만대의 존엄과 행복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오시었다”고 강조함.(5.21)
 - “김정일 애국주의는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고조 진군의 고귀한 지침이며 실천의 무기이다. 우리 인민의 모든 사업과 생활의 계기와 공정이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적품모를 구현해나가는 과정으로되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함.(5.21)

(5) 김일성-김정일주의

-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도사상으로 천명하고,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계승한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당의 최고강령으로 공포함.
 - “오늘 우리 당과 혁명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영원한 지도사상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며 주체시대를 대표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입니다.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주

의를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당건설과 당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을 고수하고 혁명과 건설을 수령님과 장군님의 사상과 의도대로 전진시켜나가야 합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입니다.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의 혁명적계승이며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의 심화발전입니다.”⁷⁹(4.19)

- “이것은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주의 가치를 높이 들고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한치의 드팀도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오직 수령님식 장군님식으로 끝까지 계승완성해 나가려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확고부동한 의지의 표시입니다.”⁸⁰(4.15)
- “우리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 영원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오직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나가야 한다.”⁸¹(6.12)
- 김일성주의 정식화, 김일성의 총대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이론으로 심화발전,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이론 제시 등을 김정일의 사상적 업적으로 칭송하고, 이를 김정일주의로 명명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함.
 -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비상한 탐구력으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을 벌리시여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김일성주의가 자주시대의 위대한

79. “김정은과 당중앙위 일꾼들의 담화(4.6) 내용 게재,”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9일.

80.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열병식(김정은 연설내용),” 『중앙방송』, 2012년 4월 15일.

81.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12일.

지도사상으로 더욱 빛을 뿌리게 하시었습니다. 특히 장군님께서서는 수령님의 총대중시사상을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리론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리론을 제시하시으로써 김일성주의의 견인력과 생활력을 비상이 높이시었으며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하시었습니다.

- 김일성주의를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발전풍부화시킨 장군님의 특출한 업적으로 하여 이미전부터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은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결부시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불러왔으며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우리 당의 지도사상으로 인정하여왔습니다.”⁸²(4.19)

(6) 선군정치 계승

- 선군정치를 계승하는 것이 김정일의 유훈을 관철시키는 길임을 강조하고, 선군혁명노선을 계속 견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힘.
 - “김정은 부위원장의 2012년 새해벽두의 탱크사단방문은 대국상을 당한 조선의 진로, 강성국가의 대문을 열어제낄 올해의 정책 방향을 말해주는 것이다.”
 - “조선의 최고사령관은 인민군대를 강성국가건설사업의 기둥, 주력군으로 보고 있다. 조선에서는 군대가 국방뿐만 아니라 건설도 맡아한다. 그런데 지금은 무엇보다 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해야 할 정세의 요구가 있다.”⁸³(1.3)
 - “최고사령관의 국정운영을 한마디로 집약하면 <<선군의 기본취

⁸² 김정은과 당중앙위 일꾼들의 담화(46) 내용 게재,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9일.

⁸³ “새해벽두 탱크사단 시찰에 깃든 뜻, 『조선신보』, 2012년 1월 3일.

지》에 충실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⁸⁴(3.17)

- “우리는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틀어쥐고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선군은 우리의 자주이고 존엄이며 생명입니다. 우리는 지난날 군력이 약하여 나라를 통채로 잃고 식민지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피눈물나는 력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군력이 약하면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지킬 수 없고 나중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룡락물로, 희생물로 되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며 따라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합니다.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선군의 위력은 인민군대의 위력이며 군력을 강화하는데서 기본은 인민군대를 강화하는것입니다. 전군에 당의 령도체계, 최고사령관의 령군체계와 혁명적군풍을 철저히 세워 인민군대를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최고사령관의 군대로 만들어야 합니다.”⁸⁵(4.19)
- “선군은 우리 혁명의 영원한 생명선이며 무적의 국력은 강성국가의 제일기둥입니다.”⁸⁶(4.9)
- “우리가 선군조선의 존엄을 만대에 빛내이고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자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인민군대를 백방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당의 영도따라 생ن길을 앞장에서 헤치며 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 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적의 지지점이

84. “<일심단결의 중심에서 최고사령관의 영도력-3>,” 『조선신보』, 2012년 3월 17일.

85. “김정은과 당중앙위 일꾼들의 담화(4.6) 내용 게재,”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9일.

86.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 19돌 기념 중앙보고대회,” 『중앙방송』, 2012년 4월 9일.

되어야 합니다.”⁸⁷(4.15)

- “우리는 당의 선군혁명로선을 틀어쥐고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합니다.”⁸⁸(4.19)
- “선군의 길에 우리 혁명의 승리가 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연설을 자자구구 새기며 당의 령도따라 생눈길을 앞장에서 헤치고 당의 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 나가는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역적의 지지점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⁸⁹(4.23)
- “선군정치는 제국주의반동들과의 가장 첨예한 대결속에서도 수령님의 자주, 민주, 단결, 인덕의 사회주의정치리념을 빛나게 실현하여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적전진을 확고히 담보하는 백전백승의 정치이며 수령님의 유훈대로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이다.”⁹⁰(6.12)

(7)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

- 전략적 과제로 김정일의 강성국가 건설을 계승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제시함.
 - 사회주의강성국가는 일심단결, 불패의 군력,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한 것이라고 정식화하고, 이는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

87.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열병식(김정은 연설내용), 『중앙방송』, 2012년 4월 15일.

88. “김정은과 당중앙위 일꾼들의 담화(4.6) 내용 게재,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9일.

89.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따라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승리를 향하여 역세계 전진하자(사설), 『로동신문』, 2012년 4월 23일.

90.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시다,” 김정은, 4.20 김일성 생일 즈음 논문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12일.

중시라는 김정일의 노선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주장

-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입니다.”⁹¹(4.15)
-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꾸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나가야 합니다.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입니다. 우리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경제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길에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⁹²(4.15)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연설에서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고 가르치시었다. 여기에는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를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숭고한 뜻과 위업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의지가 새겨져있다. 우리의 정치군사적 위력은 무궁무진하며 새 세기 산업혁명의 전도는 양양하다. 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 로선을 틀어쥐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려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다.”⁹³(4.23)
-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강성국가라고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강령적 가르

91.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열병식(김정은 연설내용),” 『중앙방송』, 2012년 4월 15일.

92. 위의 글.

93.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따라 주체혁명의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전진하자(사설),” 『로동신문』, 2012년 4월 23일.

치심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다. 여기에는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를 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위업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우시려는 김정은동지의 확고한 의지가 새겨져 있다.”⁹⁴(6.22)

나. 의미 분석 및 특이사항

- 북한은 김정일 사후에 김정일 시신 금수산기념궁전 안치, 김정일 동상 건립, 2월 16일 광명성절 제정 등 수령영생사업을 진행하고, 김정일을 영원한 당총비서와 영원한 국방위원장으로 추대하였음.
 - 김정일의 업적과 권위를 부각시키고, 수령에 대한 충성과 도덕적 의리를 강조하는 담론을 조성함.
- 이와 함께 유훈통치를 강조하고 김정일의 사상과 정책노선을 김정은이 그대로 계승하고 있음을 부각시킴으로써, 김정일의 업적과 권위에 대한 인정이 후계자 김정은의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는 것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헌법 조문, 김정은 연설, 각종 대중 매체 논평 등을 통해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지배권력의 연속성, 발전성을 강조함으로써 주민들이 3대에 걸친 권력 세습을 자연스럽게 내면화 하도록 하고 있음.
 -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김일성-김정

⁹⁴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전략적 노선,” 『로동신문』, 2012년 6월 22일.

일-김정은 삼대로 이어지는 혁명의 계승성을 강조함.

- 수령영생사업과 유혼통치에 대한 강조는 김정은 중심의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으로 귀착됨.
 - 김정은체제의 권력 안정을 위해 선대수령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의 ‘일심단결,’ ‘수령결사옹위’를 당과 군, 인민들에게 요구하고 있음.
- 김정은 시대 새로운 지도사상으로 ‘김정일 애국주의’가 체계화 되고 있음을 눈여겨보아야 함.
 - 김정일 시대의 지도사상은 ‘김일성주의’였음. 1974년 2월 19일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를 선포한 김정일은 ‘김일성주의’를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체적 체계로 규정함.
 - 지난 5월 12일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이 ‘김정일 애국주의’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음. 이것은 김정일이 자신의 정통성을 ‘김일성주의’에서 찾았던 것과 같이 후계자로서 김정은 또한 자신의 정통성을 ‘김정일 애국주의’에서 찾고 있다는 것임.
 - 따라서 ‘김정일 애국주의’는 김정은이 지난 4월 6일 그의 첫 노작에서 발표했었던 노동당의 최고강령으로서 ‘온사회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위해 반드시 틀어쥐고 나가야 할 핵심 사상인 것임.
- ‘김정일 애국주의’의 구체적인 실현목표는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달성임.
 - 북한정권은 당대표자회를 전후로 조선로동당의 지도사상은 위

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이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는 우리 당의 최고강령이라고 주장함.

-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주체의 사상, 이론, 방법의 전일적 체계이며 당의 지도적 지침이라고 하면서, 이에 입각한 당의 유일적영도체계 수립을 강조함.
-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총대철학, 선군의 원리, 선군사상과 선군정치에 관한 이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 이론 등으로 구성됨.
- 김정은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핵심이론으로서 ‘김정일 애국주의’를 내세우고, 이를 체계화하여 새로운 사상으로서 교양하고 있음.
- 정책 노선 측면에서도 김정은은 김정일 유훈 관철을 내세우면서 김정일의 국정운영을 계승할 것임을 밝히고 있음.
 - 김정일이 구상한 모든 것을 한 건의 미결 건도 없이 원만히 풀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 전당적, 전국가적 힘을 총집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김정일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함을 과시하기 위해 김정일이 생전에 수표한 문건에 다시 수표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전략적 과제로 김정일이 제시하였던 강성국가 건설을 계승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을 제시하고, “사상중시, 총대중시, 과학기술중시”라는 강성국가 건설의 노선을 보다 구체적인 수사학적 용어로 다듬은 “일심단결, 불패의 군력,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는 말로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 노선을 정식화하였음.
- 김정은은 국정운영방향과 관련해서 ‘선군의 기본취지’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선군정치가 생명선이며 무적의 국력은 강성국가의

제일 기둥이라고 강조함.

- 김정일이 선군정치를 정립함으로써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지속적으로 선군혁명노선을 견지해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함.

3. 경제정책

가. 주요 논조와 정책방향

- 경제정책은 네 가지 문건에 잘 나타나 있음.
 - 4월 6일, 김정은의 당중앙위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최영림 내각총리의 보고,
 -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열병식에서의 김정은 연설,
 - 4월 27일 김정은의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의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담화

(1) 4월 6일, 김정은의 당중앙위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내용⁹⁵(4.19)

-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의 지속성 강조
 - “우리는 당의 선군혁명노선을 틀어쥐고 나라의 군사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야 합니다.”
 -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여

⁹⁵ “김정은과 당중앙위 일꾼들의 담화(4.6) 내용 게재,”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9일.

나라의 국방력을 물질기술적으로 튼튼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 “우리는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국방공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며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의 요구대로 국방공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나라의 군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합니다.”
- “국방공업의 자립성을 더욱 강화하고 국방공업을 최첨단과학기술의 토대우에 확고히 올려세워야 합니다.”
- 인민생활 향상을 핵심적인 경제정책 과제로 강조
 - “현시기 인민생활문제를 풀고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는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강성국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 “우리는 인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합니다.”
 - “경공업발전에 힘을 넣어 인민소비품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 “살림집문제, 먹는물문제, 땀감문제를 비롯하여 인민생활에서 제기되는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 인민들의 생활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의 우선적인 정상화를 강조
 - “인민경제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빨리 추켜세워 경제발전의 토대를 튼튼히 하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적양양을 일으켜야합니다.”
 -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부문을 앞세워야 인민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킬수 있습니다.”
 - “우리는 선행부문을 확고히 앞세우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적양양을 일으킴으로써 당의 웅대한 강성부흥전략을 철저히 실현하여야 합니다.”

-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경제발전 전략으로 제시
 -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높이 우리 나라를 지식경제강국으로 일떠세워야 합니다.”
 - “우리는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은 세계를 볼데 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 모든 면에서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야 합니다 …… 최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전반적기술장비수준을 세계적수준으로 끌어올리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는 경제구조를 완비하여야 합니다.”
 - “과학기술을 확고히 앞세우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키며 경제건설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적으로 풀어내는 기풍을 세워 나라의 경제발전을 과학기술적으로 확고히 담보하여야 합니다.”
- 국토관리사업의 중요성을 강조
 - “국토관리사업은 내 나라, 내 조국의 부강발전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대계의 애국사업입니다.”
 - “전당, 전국, 전군, 전민이 나무심기에 떨쳐나 가까운 몇해안으로 온 나라에 푸른 숲이 우거지게 하여야 합니다.”
 - “강하천정리와 도로관리를 비롯한 국토관리사업과 도시경영사업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옴으로써 내 나라, 내 조국을 사회주의선경으로 더 잘 꾸려나가야 합니다.”

- 내각의 경제사업에서의 주동성을 강조
 - “내각은 나라의 경제를 책임진 경제사령부로서 경제발전목표와 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전망성있게 세우며 경제사업전반을 통일적으로 장악하고 지도관리하기 위한 사업을 주동적으로 밀고나가야 합니다.”
 -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철저히 내각과 합의하여 풀어나가며 당의 경제정책관철을 위한 내각의 결정, 지시를 어김없이 집행하여야 합니다.”
-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 원칙 고수를 천명
 -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며 생산과 건설의 담당자인 근로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 생산을 최대한 늘이도록 하는데 힘을 넣어야 합니다.”
 -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은 온갖 적대적이며 비사회주의적인 현상들을 없애기 위한 심각한 계급투쟁을 동반하게 됩니다.”
- 사회문화부문의 역할 확대를 강조
 - “교육사업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고 교육의 현대화를 실현하며 중등일반교육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이고 대학교육을 강화하여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떠메고나갈 세계적수준의 재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합니다.”
 -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고 시대적명작들을 더 많이 창작보급하며 체육을 대중화하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야 합니다.”

(2)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최영림 내각총리의
보고 내용⁹⁶(4.13)

- 인민생활 향상을 올해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
 - “인민생활향상에서 변이 나게 하는것은 올해에 조선로동당이 내세운 가장 중대한 투쟁목표이다.”
- 경공업, 농업, 화학부문 등의 순으로 경제과제를 제시
 - “경공업부문에서 현대적인 경공업기지들이 은을 내게 하는데 최대의 힘을 기울이면서 경공업공장들과 지방공업공장들, 생활필수품생산기지들에 만부하를 걸어 인민들의 기호에 맞고 인민의 인정을 받는 갖가지 질좋은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
 - “농업부문에서 당의 농업혁명방침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어디서나 알곡 정보당수확고를 획기적으로 높이며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세워 현대적인 축산기지들과 과일생산기지들의 생산을 활성화”
 - “화학공업부문에서 최근년간 기술개선된 공장, 기업소들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원만히 생산보장하고 화학섬유와 합성수지생산을 늘여 경공업원료의 국산화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이며 단천지구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확대”
 - “전력과 석탄, 철강재생산을 최대한 늘이고 철도수송의 긴장성을 풀어야 한다.”

⁹⁶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5차 회의, 4.13 진행 전문,”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3일.

- 평양시 꾸리기 사업과 지방도시 건설 사업을 강조
 - “중요대상건설과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꾸리고 도소재지들을 비롯한 도시들을 특색있게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추진”
- 수출품 생산기지 건설과 경제무역지대 개발을 강조하면서 외국과의 경제기술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역설
 - “수출품생산기지들을 전망성있게 꾸리고 경제무역지대개발과 합영, 합작을 활발히 전개하며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기술협조사업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이다.”
- 국방공업에 필요한 물질적 보장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함.
 - “인민군대의 싸움준비와 국방공업발전에 필요한 물질적보장사업에 최대의 힘을 넣을 것이다.”

(3)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열병식에서의 김정은 연설내용⁹⁷(4.15)

-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
 -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입니다.”
 - “우리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께서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하여 꾸려놓으신 귀중한 씨앗들을 잘 가꾸어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 나가야 합니다.”
- 강성국가, 경제강국 건설의 방향을 제시

⁹⁷-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열병식(김정은 연설내용), 『중앙방송』, 2012년 4월 15일.

-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입니다.”
- “우리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함남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경제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길에 들어서야 할 것입니다.”
- 경제건설분야에서 군인들의 역할 강조
 - “인민군 장병들은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주요 전구마다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강군의 위력을 계속 떨치며 대고조 진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4) 4월 27일 김정은의 당, 국가경제기관, 근로단체 책임일군들과의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담화 내용⁹⁸(5.8)

- 평양시 꾸리기를 최우선적인 사업으로 강조
 - “무엇보다도 평양시를 혁명적수령관이 선 성스러운 혁명의 수도로, 웅장화려하고 풍치수려한 세계적인 도시로 훌륭히 꾸려야 합니다.”
 - “평양시를 혁명적 수령관이 선 도시로서만이 아니라 선군문화의 중심으로, 본보기로 되게 잘 꾸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평양시의 선군문화가 지방들에 퍼져나가게 하여야 합니다.”
 - 이와 함께 지방도시와 농촌마을들을 지방의 특성에 맞도록 개발하도록 제시함. “지방도시들과 농촌마을들을 꾸리는데서는 매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고 자기 얼굴이 나타나게 하여야 합니다.”

⁹⁸ “김정은 저작 전문-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국토관리사업에서 혁명적 전환을 가져올 데 대하여,”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8일.

- 토지관리를 통한 ‘부침땅’ 확대와 지력 향상, 그리고 토지 관리체계의 확립을 역설
 -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건설하자면 무엇보다도 인민들의 식량문제부터 풀어야 하며 그러자면 알곡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 것과 함께 부침땅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적극 늘이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간석지개간사업과 토지정리사업의 마무리를 주요 과제로 제시함.
 - 또한 토지의 지력 향상을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함. “필지별로 토양의 조성을 분석한데 기초하여 흙갈이도 하고 소석회도 치며 유기질비료를 많이 내고 록비작물도 심어야 합니다.”
 - 토지 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모든 부침땅의 등록과 건설사업 과정에서 부침땅의 감소를 막아야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 밖에도 산림 조성과 보호, 물관리, 도로 건설 및 관리, 환경 보호 등을 강조
 - “국토의 거의 80%를 차지하는 산림은 나라의 가장 귀중한 자원이고 후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이며 국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산림조성사업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 쓸모있는 나무들로 목재림, 기름나무림, 산과실림, 밤나무림, 팔프 및 종이원료림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 “산림을 보호하자면 인민들의 땀감문제를 결정적으로 해결하여야 합니다. 땀감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나무를 아무리 많이 심고 자래워도 그것을 망탕 찍어 땀감으로 쓰기 때문에 산림을 보호할 수 없습니다.”
 - 물관리 사업의 일환으로 강하천정리를 우선적으로 강조함.

- 도로 건설과 관리의 강화를 강조하면서 ‘도로의 현대화, 중량화, 고속화’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으며, ‘평양시의 룬환선도로 건설,’ ‘도로건설공법의 완성과 전문화’를 제시함.
- 환경보호, 자연보호관리사업을 위해 공해방지대책을 강조하면서 ‘대기오염’과 ‘강하천과 호수, 바다오염’ 방지를 주요 과제로 제시함.
- 지하자원의 보호를 강조하면서 지하자원 수출과 개발을 장기적·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
 - “지금 몇 푼의 외화를 벌겠다고 저마끔 나라의 귀중한 지하자원을 망탕 개발하여 수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멀리 앞을 내다보지 않고 눈앞의 것만 보는 근시안적태도이며 애국심도 없는 표현입니다.”
 - “나라의 지하자원개발을 국가자원개발성과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서 검토 승인하는 체계를 엄격히 세워 지하자원을 망탕 개발하거나 지하자원개발에 무질서를 조성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국토관리부문의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면서 국제사회와의 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역설
 - “국토관리와 환경보호부문에든 세계적인 발전추세와 다른 나라들의 선진적이고 발전된 기술들을 받아들일 것이 많습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적인 추세자료들, 다른 나라의 선진적이고 발전된 과학기술자료들을 많이 보게 하고 대표단을 다른 나라에 보내어 필요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자료도 수집해오게 하여야 합니다.”

- “국토환경보호성과 해당 기관들에서 다른 나라의 과학연구기관들과 공동연구, 학술교류, 정보교류를 활발히 진행하며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회의, 토론회들에 참가하여 앞선 과학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여야 합니다.”
- “국토관리와 환경보호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대렬을 튼튼히 꾸리고 그들에게 과학연구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며 과학기술성과들을 생산과 건설에 제때에 받아들이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국토관리사업의 계획적인 추진과 당적지도 및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
 - “국토건설총계획을 과학적으로 현실성있게 세우고 그에 따라 국토건설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의 국토관리와 환경보호부문 당정책 집행정형과 법규범준수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며 위법현상에 대한 법적통제의 도수를 더욱 높여야 합니다.”
 - 이와 함께 국토관리사업에 대한 당적지도 강화를 강조함.

나. 의미 분석 및 특이사항

(1)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추진 방향

- 현재까지는 김정은 체제하에서 북한의 경제정책이 김정일 사망 이전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김정은은 공식적인 발언을 통해서 선군경제건설 노선의 지속과 경제 강국 건설 및 인민생활 향상을 중요한 경제정책 목표로 제

시하고 있음. 이와 함께 김정일의 유훈 실천을 강조하면서, 국가 목표와 정책의 계승을 시사함.

- 이러한 현상은 일차적으로 통치기반이 확고하게 구축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정책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과 반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훈이라는 방패막이를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 후계자로 지명된 이후 경제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변화를 도모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음.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북한의 경제정책이 기존의 정책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여기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세부과제로 인민생활 향상과 생산기반의 구축 및 과학기술 발전을 통한 지식경제강국 건설 등을 제시함.⁹⁹
 - 특히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경공업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라는 정책 기조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있음.
 - 또한 경제사업의 내각 주도권을 주문함과 동시에 경제문제의 내각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민생과 직결된 내각경제부문을 우선적으로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면서, 경제문제 해결의 책임에서 한걸음 비껴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⁹⁹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식량문제와 전력문제의 우선적인 개선, 경공업 발전을 통한 인민소비품 생산 확대 등이 강조되었으며,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위해서 최첨단돌파전을 통한 기술장비수준의 향상과 과학기술과 생산의 결합을 역설함.

- 최근 북한에서 새로운 경제관리개선조치(‘6.28 방침’) 관련 내용이 발표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면 대체로 다섯 가지 특징이 발견됨.
 - 첫째, 내각의 경제정책 집행 및 경제사업 추진에서 주도성과 책임성 강조하고 있음.
 - 둘째, 기업과 농업에 초기 생산비용을 지급함. 기업의 수익금과 분조의 생산량을 일정 비율로 국가와 생산자가 분배하도록 함.
 - 셋째, 농업분야에서 분조의 규모를 기존의 10~25명에서 4~6명 수준으로 축소함. 또한 수확 후 목표량의 70%에 해당되는 현물이나 현금을 국가가 납부하며, 목표 초과한 부분은 자유 처분할 수 있음.
 - 넷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경영계획을 수립하여 원자재 구매와 제품의 생산·판매에 최대한 자율성 보장하고, 이익금의 70%를 국가에 납부함.
 - 다섯째, 생산 기업소와 서비스기관에 대한 개인자본의 투자를 허용함. 기업소에는 지분 참여가 가능하고, 운송·상점·식당 등 국가의 서비스 기관을 중심으로 개인이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함.

(2) 경제분야의 주요 과제

(가) 선군경제건설 노선 고수

- 김정은 체제의 출범과 동시에 가장 강조된 내용은 선대의 ‘선군노선’을 유지하겠다는 것임.

- 이는 선군노선의 경제적 측면인 국방공업의 우선적 발전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함.
- 북한은 또한 이러한 ‘유훈통치’를 통해서 체제안보를 강화함과 동시에 군부의 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선군경제건설 노선’을 고수한다는 의미는 국가차원의 자원을 국방력 강화에 우선적으로 투입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최대한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임.
 - 최근 북한당국이 인민생활 향상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면서 기존에 군부가 관리했던 외화벌이 사업을 내각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군수산업에 대한 우선적인 투자 기조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경제강국 건설이라는 정책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군부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음.
 - 공식적으로는 ‘군민일치’를 강조하면서 군대의 경제건설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대표적인 사례가 경제강국 건설의 대표적인 성과로 선전하고 있는 ‘희천발전소’ 건설에 군대를 투입한 것임.
 - 이처럼 북한은 그동안 주요 건설현장에 군부대를 투입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러한 성과를 독려함과 동시에 일반주민들에게 선전하기 위해 총정치국장인 최룡해의 건설현장 시찰 소식을 보도하고 있는 것임.

(나) 경제강국 건설을 통한 인민생활의 향상

- 선군노선과 함께 김정일의 유혼으로 강조되고 있는 경제강국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당국은 주민생활 개선을 핵심적인 과제로 강조하고 있음.
 - 이를 통해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심리를 자극함으로써 통치기반을 강화해 나가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앞으로도 공식적으로는 인민생활 개선이 김정은 체제의 가장 우선적인 정책과제로 강조될 것으로 보임.
-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부문에 대한 국가차원의 자원 배분이 증대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 북한당국은 최근 대표적인 경공업 공장의 생산 정상화와 상품 질 제고를 위한 설비 개선 및 확충 작업에 전략적인 투자를 추진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와 함께 먹는 문제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강조하고 있으나, 여전히 생산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생산증대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각 기관 및 무역회사 등을 통한 곡물 수입 증대 및 지원 확보 노력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주맥, 식수, 땀감 등의 생활문제 해결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음.
- 선행부문과 기초공업부문의 우선적인 정상화
 -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첫 단계로 생산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북한의 선행부문(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

- 이 중에서도 전력생산의 증대가 경제문제 해결의 전제조건으로 판단하고 전력생산 설비의 개보수와 새로운 발전소 건설 사업에 주력하고 있음.
- 지식경제강국의 건설
 - 북한의 강성국가 건설을 위한 추진전략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새 세기 산업혁명’이라는 것인데, 북한은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성국가”라고 주장하고 있음.
 - ‘새 세기 산업혁명’은 ‘최첨단돌파전’을 통해 전반적인 기술장비 분야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경제구조 개선과 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통해서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임.
 - 결국, 북한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식경제강국의 의미는 과학기술 발전을 동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다) 내각을 중심으로 경제관리체계의 개선

- 지금 북한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의 핵심은 국가공식부문의 생산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특히 내각이 관리하는 경제부문의 생산이 가장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북한의 경제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내각경제의 생산 정상화가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계획 및 관리감독 기능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이는 내각부문의 국가 재원에 대한 사용 권한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함.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그동안 군부 등 특권기관이 독차지한 자

원독점권을 내각으로 전환시키는 조치가 추진된 배경도 거시적으로 보면 국가경제의 생산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경제사령탑으로서 경제사업의 주도성 강조
 - 내각 경제의 정상화와 생산 증대를 위해 강조된 부분이 내각의 경제사업에서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임.
 - 이를 위해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는 경제사업과 관련한 문제들을 철저히 내각과 합의하여 풀어나가며 …… 내각의 결정, 지시를 어김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함.
 - 내각의 경제사업에서의 주도권 보장은 한편으로는 재원배분에서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생활과 직결된 내각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조치이면서, 동시에 주민생활의 향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6월 경제관리개선조치가 발표되었으며, 시범 적용을 통해서 10월이나 11월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음.
 - 이는 내각의 경제사업에서의 주도권 강화 조치와 함께 내각을 중심으로 하는 공식경제부문의 생산 증대를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어야 확인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계획경제의 틀 내에서 경제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시장기능을 보다 폭넓게 활용하는 조치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사적인 시장활동이 확산되는 것은 견제할 것으로 보임.

- 다시 말해, 경제사업에서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경제의 틀 유지라는 사회주의 기본원칙을 고수하는 범위 내에서 경제적 실리를 극대화 한다는 기존의 입장이 거듭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회주의 원칙을 고수한다는 당국의 정책을 강조하기 위해 경제관리개선조치와 함께 비사회주의적인 현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라) 국토관리사업의 체계화

-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특정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과 추진 방식을 저작물의 형태로 제시한 경우는 국토관리사업 부문임.
 - 평양시 가꾸기 사업의 성과를 강조하면서, 지방도시 개발사업을 독려하고, 무계획적으로 개발·수출되고 있는 지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강조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됨.
- 평양시 꾸미기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을 역설함.
 - 북한당국이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경제강국에 진입하였다는 사실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하기 위해 가장 강조된 사업이 평양시를 ‘선군문화의 중심지’이자 본보기로 꾸리자는 것임.
 - 이를 위해 10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각종 유의시설 개보수, 그리고 거리가꾸기와 도로 건설 및 시내 건물을 불량식으로 치장하는 사업이 강조됨.
- 평양시와 함께 도소재지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 도시들과 농촌마을

들을 특색있게 개발할 것을 강조함.

- 이를 위해 지방마다 특색을 살려 꾸리고, 조정사업에 신경을 쓸 것을 강조함.
- 북한당국이 지방도시 꾸미기를 강조한 것은 평양시 꾸미기 사업이 거의 완성단계에 돌입하였으며, 지방과 평양의 격차가 지나치게 심화되는 문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됨.
- 지하자원의 보호와 효율적인 활용
 - 이번 국토관리사업 추진 과제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나라의 지하자원을 아끼고 적극 보호”하자고 강조한 점으로, 최근 부족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 지하자원을 경쟁적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시정하도록 촉구한 것으로 해석됨.
 - 이를 위해 “지하자원개발을 국가자원개발성과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서 검토 승인하는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음. 이로 인하여 지하자원의 개발 및 수출이 예전보다는 어렵게 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방 등의 경제사정이 열악해지면 당국의 묵인하에 무분별한 지하자원 수출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됨.

(마) 대외경제기술 협력의 확대

- 내부에서 동원할 자원과 재원이 부족한 북한이 당장에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외 자금을 끌어들이고 국제사회의 선진기술을 도입해야 함.
 -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와의 경제 및 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임.

- 김정은 체제가 공식적으로 출범한 이후 북한당국은 대외협력 확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4.13)를 통해서 수출품 생산기지의 활성화, 경제무역지대의 개발, 합영·합작사업의 확대 등이 강조되었으며,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기술협력사업을 강화할 것을 요청함.
 -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주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며, 과학기술분야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해 제한된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과학기술분야의 대외 교류협력 확대에 주력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은 경제강국 건설을 위한 전략으로 제시한 ‘새 세기 산업혁명,’ ‘최첨단돌파전,’ ‘지식경제강국 건설’ 등을 위해 과학기술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해외의 선진기술을 들여오기 위한 과학기술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 또한 국토관리부문의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면서, 다른 나라 및 국제기구와의 과학기술교류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하였음. 특히 국토관리와 환경보호부문에서 세계적인 발전추세와 다른 나라의 선진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인터넷의 적극적 활용과 대표단 파견 및 공동연구·학술교류·정보교류 등의 활동을 독려했음.
- 북한의 대외경제협력 확대 노력은 당분간 중국에 대한 북한경제의 의존도 심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대중국 의존도 심화 현상에 대해 북한 지도부의 고민도

함께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4. 핵 정책

가. 주요 논조와 정책방향

-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김정일의 업적인 핵보유국 지위 강화,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비난,
 - 한국의 국방태세와 한미 연합훈련 비판,
 - 남북관계와 대남 비방,
 - 북미 관계

(1) 김정일의 업적인 핵보유국 지위 강화

- 김일성 사후 김정일의 최고 업적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만든 것으로 규정한 정책노선을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힘.
- 김정일 사후 최초의 조평통 서기국 보도는 핵보유국 지위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공언함.¹⁰⁰(1.5)
 -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당당한 핵보유국이 며 핵억제력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혁명유산이다. 이 귀중한 혁명유산을 그 무슨 지원 따위로 흥정할 수 있다고

¹⁰⁰-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89호-李대통령 ‘신년국정특별연설’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5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오산에 불과하다. 우리는 원수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이다.”

- 조선신보는 핵무기가 선대의 유산이며 보검이라고 주장함.¹⁰¹(3.15)
 - “김정은 최고사령관께서 내놓으신 유훈관철의 지침은 장군님의 노선과 다른 길을 가지 않겠다는 선택의 의향을 표시한데 그치지 않았다. 장군님께서 생전에 구상하시던 그 모든 것들을 무조건 에누리 없이 집행하여 반드시 결실을 보겠다는 실천의지에 그 방점이 있다.”
 - “선대 수령이 물려준 유산의 하나인 핵억제력에 대한 관점은 조선이 실천하게 될 군사, 외교노선의 방향성, 추진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하는 대목의 하나다.”
 - “어느 일군은 ‘우리는 원수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우리의 체제와 조선반도전체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더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중요한 것은 자주를 관철하고 평화를 실현하는데 있다. 바꾸어 말하면 핵억제력은 원수들의 침략책동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보검인 것이다.”
- 노동신문 사설은 강성대국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핵을 강성대국의 핵심요소로 규정함.¹⁰²(4.9)

¹⁰¹- “일심단결의 중심에서 최고사령관의 영도력-1,” 『조선신보』, 2012년 3월 15일.

¹⁰²-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강성국가 건설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 나가자(사설), 『로동신문』, 2012년 4월 9일.

- “강성대국의 청사진: 군사력을 키우고 선군사상을 중심으로 단결하는 것이 강성대국의 핵심 요소”
- “반만년 역사에 없었던 인공지구위성 제작·발사국, 핵보유국으로 불패의 위용을 펼쳤다.”
- 김정은이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전략로켓트군’과 ‘원자탄’을 호칭함으로써 핵을 무기화했음을 공식 선언함.¹⁰³(4.15)
 - “영용한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및 전략로켓트군 장병들과 조선인민 내무군 장병들”
 - “우리 인민군대는 창건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기간 유격전과 정규전도 치르고 총포성 없는 대결전을 벌이는 과정에 만능의 주체전법과 백승의 경험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그 어떤 현대전에도 능히 대처할 수 있는 우리 식의 공격수단과 방어수단들을 완비한 무진 막강한 강군으로 자라났습니다.”
 - “군사 기술적 우세는 더는 제국주의자들의 독점물이 아니며 적들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 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습니다. 오늘의 장엄한 무력시위가 이것을 명백히 확증해 줄 것입니다.”
- 조선인민군 창건 80돌 중앙보고대회에서 이영호 총참모장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가 김정일에 의한 역사의 기적이라고 연설함.¹⁰⁴(4.25)
 - “지난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어 열강들의 각축전 마당으로 짓밟

103. “김일성 생일 100돌 기념 열병식(김정은 연설내용),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5일.

104.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 인민군 창건(4.25) 8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참석,”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5일.

히던 우리나라가 존엄높은 정치사상 강국으로, 무적필승의 혁명 강군과 인민방위무력이 성세를 이룬 세계적인 군사강국, 당당한 핵보유국으로 된 것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선군영도와 불면불휴의 노고에 의하여 이룩된 역사의 기적입니다.”

- 북한은 4월에 개정한 헌법 서문에 북한이 핵보유국을 명기함.¹⁰⁵(5.30)
 - 북한은 개정 헌법 서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 3개 문장을 추가하면서 “김정일동지께서는 세계사회주의 체계의 붕괴와 제국주의 연합세력의 악랄한 반공화국 압살공세 속에서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고 명시함.

(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비난

- 2012년 3월 26~27일 서울에서 열린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회의 개최의 부당성과 남한이 역사적으로 미국의 핵 화약고였다는 점을 강조함.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비판하면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발표하고, 한반도에 미군 핵 배치, 미국에 의한 남한 핵개발 지원 등을 주장함.¹⁰⁶(3.14)
 - “오는 26일과 27일 서울에서 핵안전수뇌자회의라는 것이 열리게

¹⁰⁵ 북한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내나라'에는 북한의 개정 헌법 전문(全文)이 실려 있음. 『연합뉴스』, 2012년 5월 31일.

¹⁰⁶ “조선반핵평화위원회 백서,”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14일.

된다. 세계 최대의 핵화약고이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같은 극히 위험천만한 핵전쟁불장난이 광란적으로 벌어지는 남조선에서 핵안전수뇌자회의가 열리는데 대해 내외가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조선반핵평화위원회는 남조선을 세계 최악의 핵전과, 핵전쟁위험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미제와 남조선 괴뢰역적패당의 죄행을 폭로하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

- “《세계최대의 핵화약고》: 핵안전수뇌자회의 표방하는 목적은 핵무기와 핵물질의 전과방지이다. 그런데 그 1차 회의가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핵무기를 만들어내고 유일하게 사용하였으며 지금도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열렸고 2차 회의는 미국의 핵전초기지이고 세계최대의 핵화약고인 남조선에서 열린다는 것이 핵안전수뇌자회의가 안고 있는 비극이다.”
- “《가장 허술한 핵통제지역》: 미국은 마치도 남조선에서 핵통제가 엄격히 실시되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핵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 바로 남조선이다. 미국은 1956년 남조선괴뢰들과 원자력협정을 체결한 이후 남조선의 핵개발 연구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연례적으로 진행되는 합동원자력 에너르기 협력위원회를 통해 핵개발 실태도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듯이 떠들고 있다. 그러나 남조선에서 핵무기개발 시도는 박정희 정권때부터 있었으며 그 이후 전두환이 선임자가 추진하던 핵무기 개발을 대체에너르기사업이라는 미명하에 계속 이어왔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 “《가장 위험한 핵전쟁발원지》: 오늘 조선반도는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한 이래 다음번 핵타격지로 선정해놓고 그 계획을 언제한번 변경시킨 적이 없는 가장

- 위험한 지역으로 되고 있다. 미국의 다음번 핵전쟁계획에서 남조선은 그 전초기지로 되고 있다. 2010년 10월 미국의 AP통신이 비밀 해제된 미육군 문서를 입수하여 공개한 바에 의하면 미국은 조선전쟁을 도발한지 7주후인 1950년 8월 중순에 핵무기를 남조선에 처음으로 배치하였다.”
- “남조선에서 그 무슨 핵안전수뇌자회의를 벌려놓는다면 그것은 저들이 벌리려는 핵전쟁을 합리화하고 일단 유사시 조선전쟁에 추종 국가들을 끌어넣기 위한 핵전쟁 모의판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서울 핵안전수뇌자회의의 본질이다.”
 -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북핵문제에 관한 성명을 발표하는 경우 이를 북한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위협함.¹⁰⁷(3.21)
 - “조선반도 비핵화는 전 조선반도에서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문제이다. 따라서 북핵문제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회의에 상정될 아무런 명분도 없다.”
 - “굳이 북핵문제를 회의에 상정시키려 하는 것은 북침핵전쟁책동을 합리화하려는 그릇된 기도의 발로이며 분노한 민심의 이목을 딛 데로 돌리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참패를 모면하려는 국제적 정치기만극의 서장이다.”
 - “특히 서울회의에서 북핵문제와 관련한 그 무슨 성명발표 따위의 도발이 있을 경우 그것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유훈으로 남기신 백두산 절세위인들의 염원에 대한 극악무도한 모독으로, 천추 만대를 두고도 씻지 못할 또 하나의 특대형 범죄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107- “조선중앙통신사 보도”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21일.

- “어떠한 도발도 그것은 곧 우리에게 대한 선전포고로 되며 그 결과는 조선반도 비핵화 논의에 커다란 장애로 될 것이다.”

(3) 한국의 국방태세와 한미 연합훈련 비판

- 한국이 군사대비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며 비판함.
- 국방위원회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면서 핵무기는 미국만의 독점물이 아니고 미국이 바다 건너에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위협하는 내용의 대변인 성명을 발표함.¹⁰⁸(2.25)
 - “미제 침략군의 슬한 병력과 타격수단들이 남조선과 그 주변지역에 기동전개 하였으며 괴뢰 육해공군의 방대한 무력이 전시태세에 진입하였다. 이번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우리의 애도기간을 노리고 감행되는 불한당들의 용납할 수 없는 전쟁광기이고 우리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침해이다.”
 - “핵무기는 미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점물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미국의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전쟁수단과 그 누구에게도 없는 최첨단타격장비가 있다.”
 - “대양건너 먼 거리에 미국본토가 있어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것처럼 큰 오산은 없을 것이다.”
 - “침략자들을 짓밟개버리기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타격강도와 타격계선에는 한계가 없다.”

¹⁰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2년 2월 25일.

- 한국군이 선제타격 작전계획을 수립했다는 문화일보 보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함.¹⁰⁹(5.8)
 - “남조선의 문화일보가 전한데 의하면 《남한》이 우리 공화국의 핵, 미사일시설에 대한 선제타격작전계획을 세웠다.”
 - “괴뢰들은 이 작전계획에 따라 우리의 지하군사시설들과 장거리 포들을 파괴하기 위해 벵커버스터 GBU-28을 실전배치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북침선제공격을 위한 이○○패당의 책동이 본격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괴뢰들의 선제타격작전계획수립은 우리에게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며 전면전쟁을 노린 위협천만한 망동이다.”
 -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은 미국의 침략과 전쟁책동에 대처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겨레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그 누구에게 위협이 될 수 없다.”
 - “선제공격은 결코 미국과 괴뢰들의 독점물이 아니다. 내외 호전광들이 원자탄으로 우리 민족을 위협하던 시기는 영원히 지나갔다.”
- 외무성대변인 담화를 통해 6월 22일의 한미 실탄사격훈련을 비난하면서 핵억제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해주는 만능의 보검이라며 이를 강화해나가겠다고 공언함.¹¹⁰(6.25)
 - “22일 남조선 주둔 미제 침략군은 비무장지대 남쪽에서 사상최대규모의 합동실탄사격연습을 벌여놓고 감히 우리 공화국기를 과녁으로 삼는 무분별한 망동을 부리었다. 선전포고도 없이 주권

¹⁰⁹- “악자멸을 재촉하는 선제타격 흥계,” 『로동신문』, 2012년 5월 8일.

¹¹⁰-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25일.

국가의 국기를 목표로 실탄사격을 하는 것이야말로 극히 엄중한 군사적 도발이며 정치적 도발이다.”

- “그러나 군사 기술적 우세는 더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며 미국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공갈 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위대한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탁월한 선군정치로 그 어떤 침략세력도 범접할 수 없는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마련해주시었기에 우리 인민은 신심 드높이 경제강국 건설을 힘 있게 다그치고 있다.”
-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평화와 안정을 믿음직하게 수호해주는 만능의 보검이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한 우리는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게 될 것이다.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적대시정책은 궁극에 가서는 미국이 유지해보려고 몸부림치는 핵무기독점체계에 제손으로 통구멍을 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4) 남북관계와 대남 비방

- 연초부터 대남 비방의 강도를 높였으며, 우리 군 내부반의 김정일 부자 비판 구호, 김일성 탄생 100주년 호화 잔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판 등을 구실로 남한에 대해 위협과 협박을 강화함.
- 국방위원회가 9개 항의 공개질문장을 발표했는데, 제5항(제목: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그릇된 견해를 버리고 비핵화를 위한 실천에 발을 잠글 결심이 되어있는가)이 핵문제와 관련된 항목임.¹¹¹⁾(2.2)

¹¹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정책국 공개질문장.” 『조선중앙통신』, 2012년 2월 2일.

-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말 그대로 북남조선의 전 지역을 포괄하는 비핵화이다. 원래 조선반도의 핵문제는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은폐된 핵 정책에 따라 남조선 땅에 핵무기를 끌어들이고 괴뢰당국과 미국에 의하여 발단되었다. 따라서 조선반도의 비핵화에 대하여 논할 때 우리가 괴뢰당국과 미국에 할 말이 더 많다.”
- “우리의 핵억제력은 동족을 해치기 위한 억제력이 아니라 미국의 핵위협에서 동족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억제력, 자위적인 억제력이다.”
- “역사는 핵은 핵으로, 미싸일은 미싸일로 맞서지 않는다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핵위협이 없다면 우리에게서 단 한 개의 핵무기도 필요없게 될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은》 미국이 하라는 대로 북핵폐기의 첫 번째 나팔수가 되어 동시행동원칙의 의미도 모르고 그 누구의 진정성에 대하여 물어대면서 오히려 미국의 확장된 핵억제력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망동을 부리고 있다. 우리가 이처럼 사대와 굴종, 외세의존이 체질화되어 미국의 핵으로 동족을 위협하는 역적패당과 마주앉아야 하겠는가.”
- “남조선당국은 대화에 대하여 떠들기에 앞서 마땅히 바른 자세를 가지고 조선반도의 핵문제에 대한 상식부터 제대로 배워야 하며 상전의 핵우산에서 벗어나 제 할 바나 똑똑히 하여야 한다. 그러자면 북핵폐기에 대해 주제넘게 떠들 것이 아니라 제가 할 南 핵폐기에 먼저 달라붙겠다는 약속이나 민족 앞에 똑바로 하여야 한다.”

- 노동신문이 남한 군부대의 김정일·김정은 타도 구호에 대해 사설을 통해 비판하면서 핵무기보다 강한 전쟁수단과 최첨단 타격장비를 갖고 있다고 위협함.¹¹²(3.6)
 - “이미 보도된바와 같이 《남한》 군부호전광들은 우리의 최고 존엄을 중상모독하는 천추에 용납 못할 만고대역죄를 저질렀다. 이것은 반민족적인 히스테리적광기이며 나라의 정세를 더는 수습할 수 없는 막다른 지경으로 몰아가는 무지한 깡패집단의 새로운 특대형도발행위이다.”
 -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단숨에 달려가 괴뢰도당을 격멸소탕할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역적패당의 특대형도발 사건에 대한 소식에 접한 백두산 혁명강군의 육해공군 장병들은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진격 명령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에게는 핵무기보다 위력한 전쟁수단과 그 누구에게도 없는 최첨단 타격장비가 있다.”
- 김일성 생일 행사를 모독했다면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이 성명을 발표하고, 서울 한복판을 통째로 날려 보내기 위한 특별 행동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협박함.¹¹³(4.18)
 - “바로 이러한 때 유독 《남한 정부》는 동족의 축제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의 최고 존엄을 함부로 모독하는 극단의 도발광기를 부리며 천하 무도한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수수 방관할 수 없는 엄중한 사태가 연속 조성되는 것과 관련하여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불구대

112.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적 무리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로동신문』, 2012년 3월 6일.

113.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8일.

천의 원수를 죽탕쳐버리기 위한 전군, 전민의 거족적인 성전을 이미 선포한대로 쉬임없이 강도 높게 벌려나갈 의지를 내외에 다시금 엄숙히 천명한다.”

-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최고 존엄을 헐뜯고 건드리는 도발원점으로 되고 있는 이상 그 모든 것을 통채로 날려 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역적패당은 지금까지 저지른 만고대역죄에 대한 우리 천만군민의 무자비한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뼈저리게 감수하게 될 것이다.”
- 김일성 생일 행사를 모독했다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성명을 발표하고, 핵무기보다 더 강한 일심단결의 무기가 있다고 강조함.¹¹⁴(4.18)
 - “돈밖에 모르는 너절한 시정배무리인 《남한》이 우리의 이번 성대한 태양절경축행사에 대해서까지 돈으로 계산하여 경망스럽게 놀아대면서 온갖 험담과 비방증상에 미쳐 날뛰고 있지만 천만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일심단결이고 선군위력이다.”
 - “우리에게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미사일보다 더 위력하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절세의 천출령장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무기가 있다는 것을 괴뢰패당 따위가 알기나 하는가.”

(5) 북미 관계

- 초반에는 2.29 합의에 대한 기대를 표출했으나 4.13 장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대미 비난공세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협상의 여지를 남겨 두는 메시지를 보냄.

¹¹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8일.

- 외무성 군축평화연구소 명의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핵문제의 근본원인이 북미의 불신이라는 것과 남한은 북한이 받고 있는 핵위협을 제거할 능력이 없으면서 북미 핵협상의 당위성을 강조함.¹¹⁵(1.20)
 - “제2의 조선전쟁은 일단 터지면 1950년대의 전쟁과 같을 수가 없다 …… 전쟁이 조선반도에만 국한되기가 힘들며 재래식 전쟁으로 끝나기는 더욱 힘들 것이라는 예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처럼 파국적인 제2의 조선전쟁의 도화선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남한》 정권이다.”
 - “원래 조선반도를 핵화한 책임은 미국에 있으므로 그를 비핵화하는 책임도 미국에 있다. 그러나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아직 당사자들인 조미사이의 불신이 너무도 뿌리깊다는 것이 다년간의 조미회담실천을 통해 확인되었다. 그래서 조미사이의 신뢰조성을 돕기 위한 방도로 나온 것이 6자회담이다.”
 - “조선반도핵문제는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로 하여 산생된 문제이며 적대관계 속에서 논의되고 있는 문제이다. 서로 핵무기를 맞겨냥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한발자국이라도 먼저 움직인다는 것은 양보를 의미하며 그것은 곧 자멸어로 이어진다. 세계는 최근 년간에 만도 여러 나라들에서 그런 처참한 자멸의 실례를 목격해오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미회담에서는 일찌기 동시행동이라는 원칙이 나왔으며 이 원칙은 9.19 공동성명에도 명기되어 6자회담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 “남조선 당국은 우리에게 대한 핵위협을 제거할 책임도 능력도 없

¹¹⁵- “北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연구보고서-‘리명박 정권’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교란시킨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20일.

다보니 저들이 우리의 핵위협을 받기 때문에 핵회담의 당사자로 된다는 공색한 궤변을 들고 나오고 있다.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세계 그 어느 곳에 있든 모든 나라들은 다 핵위협에 직면해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적아 쌍방은 물론 제3자들까지 포함하여 지구전체가 참화를 입게 되어 있다. 남조선당국의 논리대로라면 세계의 모든 비핵국가들이 다 핵문제의 당사자이고 다 핵회담에 참가해야 한다는 황당한 논리가 되는 것이다.”

- 북미 3차 회담(2.23~24, 베이징)의 합의 내용을 외무성 대변인 중 통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발표하면서,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핵실험과 영변에서의 우리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농축 시설에 대한 IAEA 사찰을 받겠다고 밝힘.¹¹⁶(2.29)
 - “조미쌍방은 9.19 공동성명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 “쌍방은 또한 조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신뢰조성조치들을 동시에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 “미국은 조선을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으며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 “미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 “미국은 조선에 24만 톤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

¹¹⁶- “北 외무성 대변인, 북미회담문제 관련 중통기자 질의답변” 『조선중앙통신』, 2012년 2월 29일.

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이를 위한 행정실무적 조치들을 즉시에 취하기로 하였다.”

- “미국은 대조선제재가 인민생활 등 민수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에게 대한 제재해제와 경수로제공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실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 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우라늄농축 활동 임시 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북미 3차 회담 결과에 대해 조선신보가 북한의 입장을 강조하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정전협정의 준수는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하며 핵시험과 영변 우라늄농축활동 중지도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함.¹¹⁷(3.5)
 - “미국이 언급을 피한 것들 속에서 주목할 대목은 6자회담이 재개되면 제재해제와 경수로 제공문제가 우선적으로 논의 된다는 것과 정전협정의 위치 규정도 어디까지나 평화협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 “핵시험,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농축 활동의 임시 중지 그리고 우라늄농축 활동의 임시 중지에 대한 IAEA의 감시 허용도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이라는 조건부라는 것도 놓칠 수 없다.”

117. <메아리> 조미고위급회담, 『조선신보』, 2012년 3월 5일.

- 조선신보가 미국의 식량지원 거부는 2.29 합의 파기를 의미하고 이는 북한의 약속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2009년도 미사일 발사도 김정은이 주도했다는 사실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함.¹¹⁸(4.4)
 - “조선은 광명성-3호 발사계획을 발표한 이후도 우라니움농축 활동의 임시 중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논의 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대표단을 초청하는 등 비핵화의 시계바늘을 2009년 4월 이전으로 되돌려 6자회담재개를 위한 환경을 마련할 의향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한편 광명성-3호 발사를 시비질하는 미국의 언동은 시계바늘이 4월 이후로 옮겨지도록 상황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나 같다.”
 - “조선은 식량지원이 2.29 합의에 포함된 이상 그것을 취소한다는 것은 합의의 핵심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명백히 지적하고 있다. 조미합의가 깨지면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우라니움농축 활동을 임시 중지하기로 한 조선측의 공약도 취소될 수 있다.”
 - “미국이 3차 핵실험을 회피하기 위해 막판에서 태도를 바꾸게 되면 일본과 남조선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된다.”
 - “3년 전 일본이 광명성-2호 발사를 시비질하면서 요격소동을 벌렸을 때 전권을 위임받아 반타격 사령관으로서 인민군의 육·해·공군을 지휘하신 분은 김정은 최고사령관입니다. ‘오늘 각오를 하고 그곳에 갔다 왔다, 적들이 요격으로 나오면 진짜 전쟁을 하자고 결심하였댔다’ — 발사의 날,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찾으신 최고사령관의 발언은 2012년 초에 이미 공개되었다.”

118. “‘광명성 3호’ 초점은 발사 후 유관국들의 행동,” 『조선신보』, 2012년 4월 4일.

- 4차 장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안보리 의장성명을 비난하면서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계속할 것과 2.29 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겠다는 외무성 성명을 발표함.¹¹⁹(4.17)
 - “주권국가의 평화적인 위성발사 권리가 엄중히 침해당한 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 “첫째,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위성발사권리를 짓밟으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천만한 처사를 단호히 전면 배격한다.”
 - “둘째, 우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는 보편적인 국제법들에 의하여 공인된 자주적인 우주이용 권리를 계속 행사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국가우주개발계획에 따라 우주개발기관을 확대강화하고 정지위성을 포함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각종 실용위성들을 계속 쏘아올릴 것이다.”
 - “셋째, 미국이 노골적인 적대행위로 깨버린 2.29조미합의에 우리도 더 이상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평화적 위성발사는 2.29조미합의와 별개의 문제이므로 조미합의는 끝까지 성실하게 이행할 것 이라는 입장을 거듭 천명하고 실제적인 리행 조치들도 취하였다.”
 - “미국은 행동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존중하며 적대의사가 없다는 약속을 뒤집어엮음으로써 2.29조미합의를 완전히 깨버리었다. 이로써 우리는 조미합의에서 벗어나 필요한 대응조치들을 마음대로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로부터 산생되는 모든 후과는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다.”

119. “北 외무성, UN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 전면 배격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7일.

- G-8 정상회의의 대북 비난 성명에 대해 외무성 대변인이 발언하면서, 3차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제재가 계속되면 자위적인 대응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함.¹²⁰(5.22)
 - “평화적 발전에 총력을 집중하는데 필요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측에 그들이 제기한 우려사항도 고려하여 우리가 2.29조미합의의 구속에서 벗어났지만 실지 행동은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수주일 전에 통지한바 있다.”
 - “일래 우리는 처음부터 평화적인 과학기술위성발사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핵실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한 것이 없었다.”
 - “우리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계속 제재압박 놀음에만 매달린다면 우리도 부득불 자위적 견지에서 대응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 외무성 대변인이 남한의 대북정책을 비난하면서 현재 핵실험 계획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하는 담화를 발표함.¹²¹(6.9)
 - “역적패당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도발을 걸면서 정세를 격화시키는 데는 음흉한 기도가 깔려있다. 우리를 한사코 자극하여 현재 계획하지도 않고 있는 핵실험이나 연평도 포격전과 같은 강경대응조치를 발생시키고 마치 우리가 호전적인 것처럼 부각시킴으로써 우리와 주변국들 사이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반공화국 제재 압박 분위기를 조성해 보겠다는 것이다.”

¹²⁰- “北 외무성 대변인, G8 정상회의의 비난 중통 대담,”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22일.

¹²¹-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9일.

나. 의미 분석 및 특이사항

(1) 의미 분석

- 북한은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남한의 핵관련 정책과 한미 동맹을 강하게 비난하는 동시에 북미 대화의 여지를 남겨두는 세 갈래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핵보유를 김정일의 최고 업적으로 개정 헌법에 규정한 만큼, 앞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물리적으로 더욱 확실하게 굳히기 위한 추가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음.
- 북한이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개최를 강하게 비난한 것은 전체적인 대남전략 차원에서 남한의 큰 행사에 재를 뿌리고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분석됨.
 - 한편, 핵개발로 인한 국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남한에서 열리는 사상 최대의 핵관련 국제회의가 대북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임.
- 한국의 적극적인 국방태세와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비판은 한국의 국방력 강화에 대한 경계와 우려의 표시임과 동시에 한미 연합훈련을 핵위협을 상징으로 묘사하면서 한편으론 핵보유를 정당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연합훈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됨.
- 남북관계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 비방이 계속되는 것은 현 정부에서 남북대화가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북한은 미국에 대한 비난 공세를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핵실험을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미국에 대한 대화의 메시지를 보내는 양면 전략을 구사하고 있음.
 - 이는 북한의 전형적인 대미 전략인데, 차기 미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기선제압을 위해 일련의 강경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큼.

(2) 특이사항: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반응

- 국제사회의 대북 비난 및 결의안 등에 대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물론 일본의 핵무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도 제기함.
- NPT 검토회의에 참가한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핵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외무성대변인이 담화를 통해 공동성명을 배격하고 미국이 원자탄으로 북한을 위협하던 시대는 지나갔으며 평화적인 우주개발과 원자력 발전을 지속할 것이라고 주장함.¹²²(5.6)
 - “2015년 핵무기전파방지조약 이행검토대회를 위한 1차 준비회의에 참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들이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문제시하고 핵활동 중단과 핵억제력 포기를 요구하는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였다. 이것은 미국의 대조선적 대시정책에 편승하여 우리의 자주권과 평화적인 우주 및 핵이용 권리를 침해하는 엄중한 불법행위이다.”
 - “미국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우리는 자위적인 핵억제력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억척같이

¹²² “외무성 대변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공동성명 배격,”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6일.

이 수호하고 평화적인 우주개발과 핵동력 공업발전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강성국가를 보란 듯이 건설할 것이다.”

- G-8 정상회의의 대북 비난 성명을 배경하는 외무성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미국의 적대정책의 산물이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존재한다면서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음.¹²³(5.22)
 - “우리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8개국 수뇌자회의 참가자들이 회의선언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부당하게 걸고든 것을 단호히 규탄하며 전면 배격한다. 정의와 진리를 외면하고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을 비호 두둔 하는 악습에 물젖어 우리 공화국의 신성한 자주권을 침해하려는 8개국집단의 무모한 정치적도발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과감히 짓부시고 경제강국 건설의 필수적 요구에 따라 자주적인 위성발사권리를 당당하게 끊임없이 행사할 것이다.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에 생겨난 것이며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은 순간도 멈춤 없이 확대 강화될 것이다.”
 - “대화과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정책의 철회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에는 언제가도 열릴 수 없게 되

¹²³- “北 외무성 대변인, G8 정상회의의 비난 중통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22일.

어있다.”

- 일본의 원자력법 개정으로 인한 핵무장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조선중앙통신사 논평을 발표함.¹²⁴(6.24)
 - “핵무장과 우주군사화를 합법화하는 일본의 움직임이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난 20일 일본국회는 일본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우는 원자력기본법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 한다는 대목을 새로 쪼아박아 핵무장화를 제한하던 법적장벽을 아예 허물어버렸다. 또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활동을 평화 목적으로 한정된 관련법을 개정하여 우주군사화를 위한 포석도 법적으로 닦아놓았다. 일본의 핵무장과 우주군사화기도의 뚜렷한 반영이다.”
 - “일본은 이로써 미국의 핵우산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핵무장과 우주군사화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범죄적 문턱을 넘어섰다.”
 - “일본의 군사대국화, 핵무장화의 최종목적이 아시아에 대한 재침, 해외팽창에 있으며 그 첫째가는 대상이 조선이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5. 대외정책

가. 주요 논조 및 정책방향

- 주요 내용은 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2.29 합의 도출과 파기,

¹²⁴ “핵무장화, 군사대국화를 합법화한 범죄행위,”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24일.

- 대 동남아 외교 강화,
- 대 서방외교 강경기조 유지,
- 대중, 대러 관계 개선 노력,
- 한반도 핵위기 고조 및 전쟁 발발 가능성 경고

(1) 대미 정책

- 2012년 상반기 북미 관계에서 제일 큰 이슈는 2.29 합의이며 그 외는 현안별로 미국의 문제 제기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주요 흐름임.

(가) 2.29 합의와 파기

- 2.23~24일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3차 북미 고위급회담(글렌 데이비스 국무성 대북정책 특별대표,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에서 양국은 다음 사항에 합의함.(1차: 2011.7, 2차: 2011.10)
 - 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조성조치
 -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적대시 하지 않음. 자주권 존중, 평등 정신에서 쌍무관계 개선
 - 여러 분야 인적교류 확대
 - 24만 톤 영양식품 제공, 추가식량지원 노력
 - 대북제재는 인민생활 등 민수분야를 겨냥하지 않음.
 - 한반도 평화와 안전보장
 - 대화와 협상으로 한반도 평화·안전 보장
 - 평화협정 체결 전까지 정전협정 초석 인정
 - 6자회담 재개와 관련한 문제들
 - 9.19 공동선언 이행의지 재확인

- 회담 진행기간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임시중지
 - 영변 우라늄농축활동 임시중지
 - 국제원자력기구 감시 허용
- 이 합의가 있기 까지 북한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었음.
 - “최근 일부 세력들이 미국의 대조선 식량지원문제를 둘러싼 현 상황을 제멋대로 외곡하여 불순한 여론을 내돌리고 있다 …… 현재 조미사이에 논의되고 있는 식량지원문제는 원래 2011년 초에 미국이 3년전에 공약했던 50만 톤중에서 미달된 33만 톤을 마저 제공하는 문제로 발단되었다. 처음에 미국은 식량지원이 인도주의적문제로서 정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다가 2011년 7월에 시작된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미국이 요구한 우라늄농축 임시중지를 비롯한 신뢰구축조치들을 우리가 취하는 경우 미국도 제재림시 중지 등 신뢰조성을 위한 조치들을 토의하는 동시에 식량제공조치도 취하겠다고 그들 스스로가 정치화하여 제안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초기에 논의되던 30만 톤이상의 식량지원과는 다르게 제공량과 품목을 대폭 변경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신뢰조성의지에 대해 의문시 하고 있으며 2011년 5월에 토의한 계선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미국에 과연 신뢰조성의지가 있는지 지켜볼 것이다.”¹²⁵(1.11)
 - 그러나 4월 13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로 이 합의는 깨지게 되었음.

¹²⁵ “北 외무성 대변인, 1.11 미국의 식량지원문제 관련 중통 기자 대담,”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11일.

- “평화적발전에 총력을 집중하는데 필요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미국측에 그들이 제기한 우려사항도 고려하여 우리가 2.29조미합의의 구속에서 벗어났지만 실지 행동은 자제하고 있다는 것을 수주일전에 통지한바 있다.”¹²⁶(5.22)

(나) 김정일 사망 관련 한국 정부의 조처에 대한 비난과 미국의 정책 주시

- 북한은 김정일 사망이후 상중기간 전개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을 대결분위기 고취와 ‘북한 급변사태’기대 정책으로 평가하고, 미국 캠퐀 국무차관보의 중국, 한국, 일본 방문을 호전세력의 기도 봉쇄로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음.¹²⁷(1.8)

(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에 대한 반발과 두려움

- 북한은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과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이를 대아시아 지배전략으로 평가하며, 군사력 강화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미국은 21세기를 이른바 《미국의 태평양세기》로 만들어 세계의 제왕행세를 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태평양세기》는 본질상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 경제적 리익을 독점하려는 미국대외정책의 새로운 판본이다. 한마디로 미국은 새로운 국방전략발표로 아시아태평양지역중시의 전쟁전략을 정식 제시하고 그 예봉을 조선과 중국으로 돌리었다. 그 목적은 조선반도에서 위기를

126. “北 외무성 대변인, G8 정상회의 비난 중통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22일.

127. “호전세력의 언동 주시하는 평양시민들 불안정 요인은 조선밖에 있다,” 『조선신보』, 2012년 1월 8일.

구성하고 긴장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통하여 지역에 대한 군사적 침투와 개입을 강화하지는 것이다. 나아가서 최대의 전략적 적수인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을 장악통제하고 세계패권을 유지하지는 것이다. 미국이 우리의 《위협》을 과장하면서 남조선과 일본 등 동맹자들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고 추동하고 있는 것도 모두 그 일환이다.”¹²⁸(2.1)

- “미 해병대의 분산배치는 현 미행정부의 새 국방전략에 따라 전개되는 침략무력의 이동배비이며 새 전쟁도발을 위한 전진배치이다 …… 올해 1월 새 국방전략을 통해 세계제패전략의 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지정확정한 미국은 지금 중동과 유럽에서 미군무력을 축감하는 대신 아태지역에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 해병대의 분산배치를 다그치고 있다 …… 미 해병대 이전놀음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랭전분위기를 더욱 고취하고 지역에서 패권적 지위를 차지하려는 극히 위험천만한 군사적 움직임이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 해병대의 분산배치에서 남조선이 배제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다.”¹²⁹(2.28)
- “미국이 올해 5기의 공격미싸일을 동시격파하는 요격미싸일시험을 실시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대규모적인 군사요소시험으로 된다고 한다. 여기에《패트리오트》, 《이지스》등 각종 요격미싸일종합체, 이동식전파탐지기가 동원된다고 밝혔다 …… 미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이 우리와 이란의 미싸일공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구실에 불과하다. 미국의 미

¹²⁸ “조선전쟁을 현실화하는 위험천만한 움직임(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2월 1일.

¹²⁹ “군사적 지배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범죄적 기도(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2월 28일.

싸일방위체계수립책동은 세계를 저들의 미싸일타격권 안에 넣고 임의의 나라들을 제 마음대로 타격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 형성되고 있는 미국의 미싸일방위망은 유라시아대륙을 동쪽과 서쪽에서 압축하는 구도를 더욱 명백히 하고 있다.”¹³⁰(5.8)

- “현실은 우리 공화국을 말살하고 전조선반도를 타고 앓음으로써 대아시아지배전략 실현의 교두보를 마련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미국의 야망은 어리석은 것이다. 오늘의 조선은 지난세기 조선전쟁을 치르던 시기와는 대비할 수도 없는 막강한 군력을 보유한 군사강국이다.”¹³¹(6.27)
- “미국이 있지도 않는 우리의 《위협》을 겹고 해군무력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에 대응한 응당한 자위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¹³²(6.11)
- “지난 (6월) 12일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은 그 무슨 《북조선위협》을 고취하면서 미군의 공격용 직승기대대를 추가배치하고 미싸일방위체계능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미 군부는 그 실현에 우선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공언하였다. 13일 미국방성은 미국, 일본, 남조선의 첫 3자합동군사연습을 21일부터 조선서해와 남해에서 진행하며 거기에 미핵항공모함까지 끌어들이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14일에는 워싱턴에서 남조선주둔 미군무력증강을 다그치며 남조선을 미국의 아시아지배전략실현의 전초기

130- “세계평화와 안정파괴의 주범(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8일.

131- “미국은 조선반도 긴장격화의 장본인(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27일.

132- “팔짱을 끼고있지 않을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11일.

지로 만들기 위한 상전과 하수인들 사이의 군사적모의가 벌어졌다 ……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무력증강 시도는 우리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겨냥한 지역전쟁의 서곡이다. 우리는 계단식으로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침략전쟁준비책동을 고도의 경각성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자위적국방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갈 것이다.”¹³³(6.18)

- 그러면서도 북한은 미국의 군사전략에 따른 전쟁과 한미일 3각 군사동맹 형성에 따른 냉전의 재현을 우려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음.
 - “핵을 포함하여 세계최대의 군사력이 집중되어 있고 전쟁방지의 그 어떤 공고한 체제도 담보도 없는 조선반도에서는 국지전, 국부전이 존재할 수 없다. 사소한 도발도 즉시 쌍방간의 전면핵전쟁으로 화하고 지역전쟁으로 확대될 것이며 종당에는 새로운 세계대전으로 타변질 것이다. 미국은 저들의 새 전쟁도발책동이 가져올 막대한 후과를 두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¹³⁴(2.1)
 - “미국이 리○○역적패당과 야합하여 끝끝내 우리 공화국을 노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 미국이 화약내를 풍기며 무모한 합동군사연습에 매달리는 것은 조선반도와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지역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권을 확립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조선반도와 그 주변 수역에서 립체적으로, 항시적으로 진행되는 불장난소동이 그대로 새 전쟁의 도화선으로 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133- “北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사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18일.

134- “조선전쟁을 현실화하는 위협천만한 움직임(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2월 1일.

없다.”¹³⁵(2.4)

- “미국의 패권주의적인 미사일방위체계수립책동은 궁극적으로 국제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나라들간의 군비경쟁을 추동하여 새로운 랭전을 부활시킬 수 있는 현실적 위험성을 띠고 있다.”¹³⁶(5.8)
- “미, 일, 남조선사이의 위험한 3각군사동맹조작책동은 조선반도를 포함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는 행위이며 이로 하여 조선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지역에 새로운 전쟁의 구름이 몰려오고 있다.”¹³⁷(6.21)

(라)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미국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정책에 대한 반발

-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북한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공동성명을 통한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투명성있게 진행된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장거리미사일발사》라고 악의에 차서 헐뜯고 강압적인 《규탄》소동을 주도한 미국이 다른 나라가 공개적으로 진행한 장거리미사일발사는 비호 두둔하여 국제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 문제의 본질은 저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엇서는 나라는 국방력강화는 물론 평화적 발전까지도 가로막아야 하지만 저들과 사이좋은 나라는 핵무기든 장거리미사일이든 다 가져도 무방

135. “‘방어’의 탈을 쓴 전쟁연습(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2월 4일.

136. “세계평화와 안정과피의 주범(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8일.

137. “동북아시아에 전쟁의 불씨를 튀기지말라,”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21일.

하다는 미국의 이중기준적용에 있다 …… 미국이 조작한 유엔안
전보장리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가 바로 그 대표작이다 ……
결국 미국의 이중기준적용은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정책의 산물이
다.”¹³⁸(4.23)

- 북한은 오히려 핵억제력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음.
 - “제반 사실들은 오직 자기 힘이 있어야 정의를 수호하고 세계의 자주화도 힘있게 추동할 수 있으며 우리가 선택한 자주의 길, 선군의 길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다.”¹³⁹(4.23)
 - “미국이 원자탄으로 우리를 위협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우리는 자위적인 핵억제력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권을 억척같이 수호하고 평화적인 우주개발과 핵동력공업발전을 힘있게 추진하면서 인민들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는 강성국가를 보란듯이 건설할 것이다.”¹⁴⁰(5.6)
- 북한은 미국을 포함한 G-8 정상회의 선언문에서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우려에 대해 평화적 과학기술위성발사이며, 핵실험은 계획조차 없었던 것임을 주장하며 맞대응함.
 - “우리는 최근 미국에서 진행된 8개국수뇌자회의 참가자들이 회의선언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부당하게 걸고든 것을 단호히 규탄하며 전면배격한다 ……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온갖 방해책동을 과감히 짓부시

138-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3일.

139- 위의 글.

140- “외무성 대변인, 안보리 상임이사국 공동성명 배격,”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6일.

고 경제강국 건설의 필수적 요구에 따라 자주적인 위성발사권리를 당당하게 끊임없이 행사할 것이다. 우리의 자위적인 핵억제력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적대시정책 때문에 생겨난 것이며 적대시정책이 계속되는 한 핵억제력은 순간도 멈춤 없이 확대강화될 것이다.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조선반도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대한 적대시정책의 철회를 행동으로 보여주기 전에는 언제가 열릴 수 없게 되어있다. 원래 우리는 처음부터 평화적인 과학기술위성발사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핵시험과 같은 군사적 조치는 예견한 것이 없었다.”¹⁴¹(5.22)

(마) 미국의 인권 유린문제 비난

- 북한은 미국의 ‘2011년 인권보고서’가 발간되기 전에, 미국을 세계에서 인권유린이 가장 많이 자행되고 있고, 심지어 다른 나라 인권도 전 세계적으로 유린하고 있는 범죄국이라고 장문의 고발장을 통해 먼저 비판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에도 선제적으로 맞받아치는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오늘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인권허물, 가장 엄중한 인권문제를 안고있는 인권불모지로 낙인되고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인권유린행위가 감행되는 사회가 다름아닌 미국이며 세계각지에서 국가테러와 살륙, 고문 등 불법무도한 행위를 일삼는 인권교살제국이 바로 미국이다 …… 조선중앙통신사는 미국의 인권침해죄행을 고발하면서 인권문제를 걸고 감행되는 제국주의

¹⁴¹ “北 외무성 대변인, G8 정상회의의 비난 중통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22일.

자들의 온갖 음모책동을 단호히 분쇄,배격할것을 세계의 정의와 량심에 호소한다.”¹⁴²(5.22)

- “지난 5월 24일 미국은 《2011년 인권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우리 나라를 비롯하여 저들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자주적 인 나라들을 악랄하게 비방증상하였다 …… 우리 나라는 미국이 가장 적대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당연히 매해 고정 대상으로 올라있다. 미국의 구태의연한 반공화국인권타령은 본질에 있어서 우리 인민자신이 선택한 사회주의제도를 어떻게 하 나 고립 압살해보려는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이며 동시에 한 나라 인민의 선택권을 부정하는 대형인권유린행위이다.”¹⁴³(5.29)
- 또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경제발전을 통한 민생문제 해결을 통해 대응할 것이지만,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때문에 경제발전이 잘 안 되고 있음도 강조함으로써 대미 비난을 통한 체제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음.
-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가장 끈질기게, 가장 철저하게 방해해온 장본인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4월 15일 우리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을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신 바로 그 다음날에도 미국은 우리의 평화적인 위성발사를 걸고 또다시 경제제재를 가하는 범죄적 책동을 감행하였다. 저들이 적대시하는 나라는 국방력을 강화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적

142. “조선중앙통신사 고발장-미국은 인권유린의 난무장, 세계최악의 인권교살제국,”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22일.

143.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29일.

인 경제발전에 지장을 받더라도 2중용도기술이나 물질을 소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강도적 론리이다. 미국이 행동으로는 우리의 경제발전을 가로막으면서 말로만 《민생》을 운운하는 것은 우리의 일심단결에 금이 가게 하여 우리 내부를 어찌보려는 어리석은 심리전기도의 일환이다.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고집하는 한 우리에게 인권문제나 민생문제를 들고나올 도덕적 자격조차 없다.”¹⁴⁴(5.29)

- 급기야 6월에 들어와서는 미국이 ‘인신매매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자, 정치적 모략이라고 반발하면서, 핵억제력 강화로 대응해야 함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함.
 - “미국이 인신매매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걸고든 것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대표적 표현으로서 우리 인민이 선택한 자주적인 사회주의제도를 고립 압살해보려는 미국의 적대적 본성은 추호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실증해 줄 뿐이다.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에 계속 매달릴수록 우리는 그에 대처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우리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더욱 증대시키는 결과만 초래하게 될 것이다.”¹⁴⁵(6.25)

(바) 미국의 대북 핵 정책에 대한 강한 반발과 핵보유 지속 및 개발 의지 천명

- 북한은 대북 비핵화 정책을 오히려 미국의 핵무기 현대화 책동으로 비난하고, 핵보유를 지속할 것이며, 계속해서 핵 억제력을 강화할

144- 위의 글.

145- “北 외무성 대변인, ‘인신매매’ 관련 중통기자 질의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25일.

방침임을 천명하였음.

- “최근 미국대통령 오바마가 미 공군사관학교 졸업식 이라는 데서 《북조선과 이란이 핵계획으로 전세계를 위협하도록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망발을 쫓아냈다. 이것은 있지도 않은 그 누구의 《핵위협》을 구실로 반공화국적대분위기를 고취하여 저들의 핵무기현대화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어리석은 기도의 발로이다 …… 이로부터 미국이 저들의 핵무기현대화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해 내세운 것이 바로 《북조선의 핵위협》설이다. 미국이 저들의 횡포한 핵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를 수호하기 위해 우리가 보유한 핵억제력을 자국의 《안전》과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떠드는 것은 우리 인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미국이 핵선제 공격능력강화를 위해 그 누구의 《핵위협》을 방패로 내세우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¹⁴⁶(6.6)

(사) 미국의 대북 개혁개방 촉구정책에 대한 비난

- 북한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대북 개혁개방 촉구 발언에 대해 반발하면서, 북한식 경제발전과 핵 억제력 강화로 강하게 대응할 것임을 천명하였음.
 - “우리 공화국을 장기적으로 적대시하고 위협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에 대처한 국방력을 갖추지 않을수 없게 만들어놓은 미국이 이제와서 우리보고 《민생》을 첫자리에 놓으라고 하는것은 병주고 약주는 식의 가증스러운 위선이다.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최고

¹⁴⁶ “핵무기현대화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은 기도(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6일.

리익을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침략세력도 범접할수 없는 자위적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우신것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력사적공적이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칠수 있게 하는 만년토대로 된다.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미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할 수 있는 우리 식의 발전 목표와 전략전술을 세워 놓으시고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우리 인민의 총진군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고 계신다 …… 미국이 말로는 우리에게 대하여 적의가 없다고 하면서도 이처럼 행동으로는 계속 적대시하는 한 나라와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 하기 위한 우리의 핵억제력은 계속 강화될 것이다.”¹⁴⁷(6.17)

(2) 대일 정책

- 2012년 상반기 북일 관계는 특별한 진전이 없으며, 현안별로 일본의 정책에 대한 북한의 맞대응이 주요 흐름임.

(가) 김정일 사망 관련 일본 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난

- 북한은 김정일 사망 이후 일본정부가 취한 조치로 인해 북일 관계 개선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이는 일본 민주당정부가 급속히 떨어지는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술책으로 비난하였음.
 - “일본당국의 악행은 위대한 장군님의 령전에 조의를 표시하려는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책임부의장의 조국방문길을 한사코 가로막은 데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 조선민족이 당한 대국상과 관련하여 유연한 자세를 보이면 지지률이 더 떨어질가봐 우려하

¹⁴⁷- “외무성 대변인, 美 국무장관 발언 비난 기자회견,”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17일.

고 있는 것이 바로 일본당국의 속내이다. 이로부터 현집권자들은 랩치문제를 생존수단으로 연명해가는 반공화국세력의 구미에 맞게 강경자세를 취한 것이다.”¹⁴⁸(1.3)

(나) 일본의 군사력강화 비판과 남방삼각관계 형성 가능성에 대한 우려

- 북한은 일본의 파시즘적 군사력 부활에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비판하고 있음.
 - “일본에서 23일 자민당총재와 부총재 등이 야스구니진자를 참배 하였다. 이보다 앞서 20일에는 《모두가 야스구니진자를 참배하는 국회의원모임》에 소속된 81명의 국회의원들이 집단적으로 참배놀음을 벌여놓았다 …… 그들은 진자참배를 통해 전범자들을 찬미하고 일본국민들속에 침략력사에 대한 죄의식이 아니라 그것을 옹호하는 사상을 불어넣어 군국화와 재침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현실적으로 일본에서 야스구니진자참배열은 계속 고조되고 있으며 공식적인 참배인원수는 나날이 불어나고 있다 …… 일본의 이른바 야스구니문화는 파시즘의 부활이다.”¹⁴⁹(4.28)
- 또한 북한은 일본의 대북 핵 정책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오히려 일본의 핵무장화를 통한 군사력 강화 가능성에 대해서 역으로 강한 문제제기에 나섰다.

¹⁴⁸ “대국상을 당한 조선민족의 가슴에 칼질을 한 일본의 도덕적 미숙아들(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3일.

¹⁴⁹ “파시즘의 부활을 노린 진자참배(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8일.

- “최근 일본의 수상, 외상을 비롯한 공식인물들이 이 나라, 저 나라를 쏘다니며그 누구의 핵시험에 대비한 《공조》니, 《련대》니 하면서 아부재기를 치고 있다 …… 일본의 비굴하고 경망스러운 《핵시험》설 소동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는 비렬한 자들의 추태로밖에 달리는 볼 수 없다.”¹⁵⁰(5.25)
- “지난 20일 일본국회는 일본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우는 원자력 기본법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대목을 새로 쪼아박아 핵무장화를 제한하던 법적장벽을 아예 허물어버렸다 …… 일본은 이로써 미국의 《핵우산》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핵무장과 우주군사화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범죄적 문턱을 넘어섰다 …… 결국 일본은 자기의 독자적인 미싸일방위체계까지 갖추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핵무장화의 최종목적이 아시아에 대한 재침, 해외팽창에 있으며 그 첫째가는 대상이 조선이라는 것은 불보듯 명백하다.”¹⁵¹(6.24)
- 또한 북한은 한국과 일본의 정보협력협정 체결이 한·미·일 남방삼각관계 강화로 발전하여 제2의 대동아공영권 시도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해 대단히 우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 “22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일본과 남조선군부가 반공화국정보협력협정에 맞도장을 찍으려 하는 것은 철두철미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도발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협정체결놀음은 미일남조선 3각군사동맹의 마지막단추를

150- “남을 걸고들 체면이 있는가(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25일.

151- “핵무장화, 군사대국화를 합법화한 범죄행위(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24일.

채우는 위험한 군사적 조치로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과 국제사회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도전행위이다 …… 바야흐로 대조선재침의 포성을 울리고 아시아정복의 막을 열어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 이 이루기 위해 발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¹⁵²(5.22)

(다) 일본의 역사적 범죄에 대한 비판

- 북한은 임진왜란 420년을 맞이해 일본의 역사적 범죄를 강조하면서, 과거청산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일본의 군국주의화 흐름을 비판하면서 향후 재개될 북일수교협상에서 우월한 지위를 점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음.
 - “일본군위안부범죄에 대한 일본의 공식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세계적 범위로 확대되고 있다 …… 그들은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시기에 그 어떤 죄를 졌다고 느끼지 않는다’는 나발까지 공공연히 불어대면서 일본군위안부범죄의 책임을 인정한 1993년의 고노 내각관방장관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때로부터 어언 60여년의 세월이 흘렀으나 일본을 보는 국제사회의 시각은 여전히 과거를 청산하지 않은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이다. 과거청산의 경제적 대가를 몇십, 몇백배 초월하는 일본의 가장 큰 정치적 손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¹⁵³(1.1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력사학학회는 일본사무라이들이 도발

¹⁵² “노골화되는 위험한 재침흉계,”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22일.

¹⁵³ “끝나지 않은 과거, 오명밖에 없다(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11일.

한 임진전쟁의 침략적 성격과 천인공노할 죄악을 까밝히고 날로
 로골화 되는 일본반동들의 재침야망에 경종을 울리기 위하여 이
 비망록을 발표한다 …… 지나간 역사가 보여주는바와 같이 일본
 은 침략과 전쟁으로 우리 인민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가져다준
 죄많은 나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당국은 과거범죄를 성
 실하게 반성하지 않고있을 뿐아니라 오히려 침략전쟁을 미화분
 식하면서 군국주의선동을 일삼고있다 …… 오늘 일본반동들은
 자기의 과거범죄를 반성하고 청산 할대신 오히려 우리의 평화적
 위성발사를 《장거리미사일》시험으로 걸고들면서 못되게 놀아
 대고 있다.”¹⁵⁴(5.19)

(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한 비판

- 북한은 최근에 일본이 보여주는 독도영유권 주장을 계속해서 주장
 하는 동시에,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일본해 단독표기 주장을 지속
 하고 유엔대륙붕경계위원회에서는 오키노토리 영유권을 인정받은
 것처럼 왜곡하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일본군국주의 부활의 조짐으
 로 평가하고, 영토문제에 있어서는 타협과 양보가 절대 있을 수 없
 음을 강하게 주장함.
- “일본반동들은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최근에는 《다
 계시마의 날》을 전일본적인 《기념》일로 제정하려고 획책하
 고 있다. 정부내에 독도전담부서까지 내오려 하고 있다 …… 령
 토분쟁을 야기시키고 그것을 구실로 침략전쟁을 도발하는 것은
 일본의 상투적 수법이다 …… 령토문제에서는 그 어떤 타협이나

154. “北 ‘역사학학회’ 비망록,”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19일.

- 양보도 있을 수 없다.”¹⁵⁵(3.5)
- “최근에 진행된 국제수로기구총회에서 조선동해의 《일본해》 단독표기를 고정화하려던 일본의 책동이 저지되었다. 조선동해의 《일본해》단독표기를 위한 표결처리제안과 단독표기 된 현 국제해도집에 준하여 개정안을 만들자는 제안이 모두 부결되었다 …… 조선동해에 대한 《일본해》표기주장은 역사주의 원칙과 객관적 사실들을 모두 무시한 파렴치한 역사외곡 행위로서 날로 로골화되고 있는 일본의 군국주의적 재침야망의 발로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이 조선동해의 《일본해》 표기를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난 세기 조선에서 감행한 일제의 특대형 범죄행위들을 정당화하고 대조선 재침야망을 실현하며 당면하게는 우리의 동해와 그 령역안에 위치한 독도를 빼앗으려는데 그 흥심이 있다.”¹⁵⁶(5.7)
 - “얼마전 유엔대륙붕경계위원회가 일본의 대륙붕연장제안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권고문을 아전인수격으로 외곡하여 오끼노도리가 섬으로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본의 령토팽창야망을 보여주는 단적인 실례이다 …… 조선민족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제 땅이라고 우겨대고 주변나라들의 합법적인 령토를 넘겨다보는 일본의 령토팽창야망은 인류공동의 재부인 국제해저까지 강탈해 보려고 날뛰는 지경에 이르렀다. 외세를 등에 업고 군국화를 다그치면서 령토팽창책동을 계단식으로 확대하고 있는 일본의 현실은 《대동아공영권》의 침략적 망상으로 인류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재난을 끼친 일본군국주의의 부활

155- “독도영유권 주장은 전쟁망언이다(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5일.

156- “극악한 재침야망의 발로(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7일.

을 예고해주고 있다.”¹⁵⁷(6.28)

(마) 일본의 납치문제 주장에 대한 반박

- 또한 북한은 일본이 납치자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의 과거 침략 및 납치사를 강조함으로써 맞받아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일본당국이 이미 다 해결된 《납치문제》를 계속 들고 나오는 것은 과거 일본이 저지른 전대미문의 반인륜범죄들을 청산할 데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덮어버리고 사죄와 배상을 회피하려는데 목적이 있다.”¹⁵⁸(3.20)
 - “일본자민당소속 국회의원 아마따니가 10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벌여놓고 생똥같이 2004년 중국류학중에 실종된 미국인이 우리에게《납치》되었을수 있다고 떠들었다. 이것은 완전한 거짓이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또하나의 새로운 모략책동이다.”¹⁵⁹(5.15)

(3) 대중 정책

- 2012년 상반기 북중 관계에서 제일 큰 이슈는 4월 김정은 제1비서 취임이후 외교관계가 진행되었는 점이며, 이후 양국간 방문 및 초청외교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임.

157. “北외무성대변인, 日국제해저강탈책동 단죄 중통기자회견,”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28일.

158.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일본은 오늘도 피고석에 있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20일.

159. “외무성 대변인, 일본의 미국인 납치설 주장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15일.

- 북한은 김정은 제1비서 추대와 더불어 중국 후진타오 주석의 축전을 받은 이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여 대중관계를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김정은 제1비서 추대와 관련, 후진타오 주석은 “전통적인 중북 친선협조관계를 여러 분야에서 확대하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함께 노력할 것”임을 천명하고, “김정은 제1비서와 노동당이 강성국가 건설 위업에 성과를 거둘 것을 축원”하는 축전(4.11)을 보냈음.¹⁶⁰(4.12)
 - 이에 북한은 광명성 3호 발사(4.13)이후, 노동당 대표단(단장: 김영일 당 비서)을 파견(4.20~24)하여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고위인사(다이빙귀 국무위원, 왕자루이 대외연락부장 등)와 담화를 갖고, 양국관계발전을 도모했음.¹⁶¹(4.20~24)
 - 북한은 동상파괴기도사건이후, 인민보안부 대표단(단장: 리명수 부장)을 파견(7.24~25)하여 中 공안부 대표단(멍젠주 부장)과 회담을 개최하고, 中 정치국 상무위원(저우융강)과 담화를 가졌음.¹⁶²(7.28)
 - 이에 중국 또한 당 대외연락부 대표단(단장: 왕자루이 부장)을 파견(7.30~8.3)하여 북 공산당 국제부대표단과 회담을 개최하고, 김정은 제1비서와 담화를 가졌음.¹⁶³
 - 북한은 북중공동지도위원회 대표단(단장: 장성택 당 부장)을 파

160- “中 후진타오 주석, 김정은 제1비서 추대 관련 축전 발송,” 『주간북한동향』, 제1095호, 통일부.

161- “北 노동당 대표단 방중 동향,” 『주간북한동향』, 제1097호, 통일부.

162- “北인민보안부 대표단 중국 방문 동향,” 『주간북한동향』, 제1110호, 통일부.

163- “中 공산당 대외연락부 대표단 방북 동향,” 『주간북한동향』, 제1111호, 통일부.

견(8.13~18)하여 라선, 황금평, 위화도 공동개발 및 공동관리를 위한 북중공동지도위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한 고위인사(원자바오 총리 등)들과 면담을 가졌음.¹⁶⁴(조선 중앙통신)

(4) 대러 정책

- 2012년 상반기 대러 관계에서 제일 큰 이슈는 전통적 친선관계 복원이며, 이를 위한 후속조치들이 진행되고 있음.
- 북한은 ‘북러 경제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체결(3.17) 63주년을 계기로 러시아와의 친선관계를 강조하였음.¹⁶⁵(3.17)
 - 특히 북한은 2011년 김정일의 러시아 방문 이후 북러 간 친선협조 및 선린우호관계를 더욱 발전할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다고 강조하고, 향후 양국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강조함.
- 또한 북한은 외무성대표단(단장: 궁석웅 부상)을 파견(6.23~30)하여 ‘북러 2013~14 외무성간 교류계획서’를 체결하여 양국 외교관계를 한 단계 더 긴밀히 함.¹⁶⁶(6.28)
 - 러시아 또한 조선반도핵문제담당 순회대사 그리고리 쎬묘노비치 고르비노브를 북한에 파견(6.29~7.2)하여 북한외무성과 회담을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조선반도 및 지역정세, 6자회담 재개문

164. “北中공동지도위원회 대표단 방중 동향,” 『주간북한동향』, 제1113호, 통일부.

165. “‘북·러 경제·문화 협조에 관한 협정’ 체결 63주년 계기 북·러 친선 강조,” 『주간북한동향』, 제1092호, 통일부.

166. “北 외무성대표단 러시아 방문 동향,” 『주간북한동향』, 제1106호, 통일부.

제 등을 협의하고,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이에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과, 북한의 자위적 핵억제력을 부단히 강화할 것을 주장¹⁶⁷(7.2)

- 북한은 ‘북러 공동선언’ 발표 12돌(7.19)을 계기로 향후 북러 친선협조관계 강화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음.
 - 북한은 통일문제를 자주적 해결할 것에 대한 공통입장이 있으며, 국제관계에서 힘의 사용을 반대하는 등 러시아와의 공동적 입장을 천명하였고, 향후 양국관계 발전이 세계평화에도 부합되는 것으로 강조¹⁶⁸(7.19)

(5) 대 동남아 국가 정책

- 김정은 체제 하에서 나타난 외교적 특징은 대 중러 관계 및 대 미일 관계보다 오히려 대 동남아관계 강화에 더 먼저 나섰다는 점임.
 - 이는 자주성을 회복하려는 북한 김정은 체제의 의지적 표현으로 보임.
 - 향후 좀 더 주목해서 분석해야 할 부분임.

(가) 동남아국가들과의 정상외교

- 북한은 헌법상 국가대표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동남아국가와의 정상외교를 통해 동남아국가들과의 관계강화를 통한

167- “로씨야외무성 순회대사의 조선방문에 대해 언급,” 『조선중앙통신』, 2012년 7월 2일.

168- “『북러공동선언 발표』12돌 계기 북러 친선협조관계 강조,” 『주간북한동향』, 제1109호, 통일부.

외교적 지지기반뿐만 아니라 경제 실리적 기반도 구축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음. 각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고위인사들과 담화를 가짐.¹⁶⁹(5.10~18)

- 싱가포르(5.11~13)
- 인도네시아(5.13~17)

● 이후 북한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베트남과 라오스에 파견하여 대 동남아외교관계 강화에 방점을 찍음.

- 베트남 방문(8.5~7)
- 라오스 방문(8.7~10)

(나) 대 동남아시아 관계개선 및 강화 적극 추진

● 북한은 방문외교를 통해 대 동남아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정치뿐만 아니라 군사, 경제적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북한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음.

- 북한은 고위군사대표단(단장: 리영호 정치국 상무위원 겸 인민군 차수 겸 인민군 총참모장)을 라오스에 파견(5.8~11)하여, 라오스 수상 및 주석과의 면담과 더불어 고위급 군사회담을 진행하였고, 양국 군대들 사이의 친선을 보다 두터이 하기 위해 노력할 것에 합의함.¹⁷⁰(5.8~11)
- 또한 북한은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 파견(5.10~18)하여 대통령과 각각 회담을 개최하고,

169. “北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방문 동향,” 『주간북한동향』, 제1100호, 통일부.

170. “北 고위군사대표단 라오스 방문 동향,” 『주간북한동향』, 제1099호, 통일부.

- 고위인사들과 담화를 가짐.¹⁷¹(5.10~18)
- 또한 북한은 노동당대표단(단장: 김영일 당비서)을 라오스(6.5~8) 및 베트남(6.9~13)과 미얀마(6.13~14) 파견하여 대 동남아 외교를 강화함.
 - 라오스에서는 인민혁명당과 회담을 갖고 주요 인사들과 면담한 후, 향후 국제무대에서 공동보조를 계속 취해나갈 것에 합의함.¹⁷²(6.8)
 - 베트남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북한 노동당의 원칙적 입장을 지지한다는 동의를 이끌어냄.
 - 또한 북한은 대표단(단장: 박의춘 외무상)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참가 차 캄보디아에 파견(7.10~15)하여 캄보디아 국왕을 비롯한 고위 인사등과 면담을 갖고, 자신들의 외교적 입장에 대한 지지를 구축하고자 함.
 - 또한 북한은 초청외교를 통해서도 이란과 베트남, 태국 등 중동과 동남아시아에 대한 외교를 활발히 전개하면서, 북한에 대한 지지와 실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¹⁷³
 - 이란 외무성대표단 초청(7.16~18)
 - 베트남 외무성대표단 초청(7.16~18)
 - 태국 외무성대표단 초청(7.16~20)

171. “北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방문 동향,” 『주간북한동향』, 제110호, 통일부.

172. “北 노동당 대표단 라오스 방문 동향,” 『주간북한동향』, 제110호, 통일부.

173. “이란, 베트남, 태국 외무성대표단 방북 동향,” 『주간북한동향』, 제110호, 통일부.

나. 의미 분석 및 특이사항

(1) 외교 우선순위 및 자주 함의 변화

- 전통적으로 북한의 대외정책은 자주, 친선, 평화의 대외정책이념에 따라
 - 대 북방외교(또는 공산권 진영외교) 강화를 토대로 자주 의 기반을 구축하고,
 - 대 남방외교(또는 제3세계외교)관계를 확대하여 친선의 기반을 다지고,
 - 대 서방외교(또는 자본제국주의 대결외교)를 통해 평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 할 수 있었음.
- 그러나 2012년 상반기에는 그 우선순위에 있어 다소 변화가 있었음.
 - 남방외교(제3세계외교)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 이후 북방외교 강화에 나서는 양상이며,
 - 서방외교에 있어서는 다소 대결적 구도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음.
- 이 같은 북한의 대외정책 우선순위 변화는 향후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나, 또는 남북회담 및 다자회담이 개최될 경우에 대비하여,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지기반을 확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핵 6자회담
 - 남북회담
 - 한반도 평화체제 회담

- 북미회담 등
- 보다 근본적으로는 천안함 폭침 이후의 5.24 조치와 두 차례 핵실험 및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 압박조치로 인해, 북한은 대중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하면서 정치적 자주성 확보도 어려운 상태에 있음.
- 다시 말해 북한은 중국 및 구소련과의 관계에서 진영외교를 통한 대 서방 자주성 강화와 시계추외교를 통한 중소 사이의 자주성 강화를 모두 약화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임.
- 이에 북한은 대 제3세계 외교관계 확대를 통해 대 중국 자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 서방 자주성도 확보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됨.
-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의 발언 “평화도 중요하지만, 자주가 더 중요하다”도 나온 것으로 판단됨.

(2) 북방삼각관계 복원 의지 표출

- 또한 북한은 김정일 생전에 진행된 북방외교 복원의 흐름을 이어받아, 중국과의 관계진전 및 러시아와의 관계강화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시계추 외교를 전개하며 최대한의 실리와 지지를 이끌어 내려할 것임.
- 또한 한일 군사정보협정체결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은 남북삼각관계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될 경우, 적극 북방삼각관계 강화의 정당성을 선전하며 강하게 차후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음.

- 대미 관계와 대일 관계에 있어 강하게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북한은 2012년 11월 미국의 대선결과와 12월 한국의 대선결과를 주목하며 연말까지 지금의 논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이후 2013년 상반기 동아시아 지도자 재편과정과 정책적 조율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의 대외정책 기본 방향을 공고히 구축하고, 제시할 것으로 보임.

6. 대남정책

가. 주요 논조와 정책 방향

- 주요 내용은 일곱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 초기 애도 분위기,
 - 대남 비난 강화,
 - 김정일 사망 관련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난,
 - 김정일·김정은을 중상 모독한 것에 대한 적개심 고취,
 - 남한의 총선(4.11)과 연말 대선에 대한 개입,
 - 통일부와 우리 대통령에 대한 일상적·상투적 비난,
 - 핵위기 고조 및 전쟁 발발 가능성 경고

(1) 김정일 사망 초기 애도분위기 주력

- 김정일 위원장 사망 초기 대남 특이 동향 없음.
 - 조문분위기 조성 및 장례준비 주력
 - 김정일 위원장 사망 당일 한국군 서해 5도 군사훈련 관련 ‘새로

은 무장충돌을 노린 불장난'(중통·노동신문·평방)으로 비난했으나, 김정일 사망보도 이전 방송

(2) 애도기간 후 김정일 위원장 조문관련 남측조치 비난

- 한국정부의 조문 조치에 대해 국방위원회 성명(12.30) 및 조평통 성명(12.31)을 통해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 비난
 - 정부의 조문조치 및 비상대응체제 비난
 - “리○○역적패당은 민족의 대국상을 계기로 반공화국대결 흥심을 더욱 드러내면서 우리의 존엄을 심히 모독하고 남조선 각계층의 조문을 악랄하게 탄압하는 만고대죄를 저질렀다.”¹⁷⁴(12.31)
 - “우리의 중대보도가 나가기 바쁘게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해외대표부들까지 비상근무태세로 이전시키면서 마치 바라던 《긴급사태》가 도래한것처럼, 우리의 《체제변화》를 유도할 《호기》라도 온것처럼 분주탕을 피웠다.”¹⁷⁵(12.30)
 -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비난
 - “인간쓰레기들을 내몰아 애도기간에 여러 차례나 뼈라들을 풍선에 매달아 살포하면서 눈물의 바다를 이룬 우리 인민의 비통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허비여 놓는 등 인간으로서는 차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렬한 도발도 서슴지 않았다.”¹⁷⁶(12.31)

17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31일.

175- “민족의 대국상안에 저지른 이명박 역적패당의 만고대죄를 끝까지 결산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30일.

176-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2년 12월 31일.

- 이명박 대통령 신년특별국정연설 비난
 - 2012년 초에도 조평통 서기국 상보(1.4) 등을 통해 김정일 위원장 사망 시 한국정부 조치 관련 비난 지속
 - “민족의 대국상에 온 겨레가 피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고 세계가 우리 인민들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을 때 동족에게 충부리를 내대고 칼부림을 하면서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불망나니 짓을 감행한 천하야만의 무리들이 그 무슨 《진정성》에 대해 운운하고 《평화와 안정》, 《협력과 대화》에 대해 떠드는 것이야 말로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것이 아닐 수 없다.”¹⁷⁷(1.5)
 - 이명박 대통령 신년특별국정연설(1.2)에 대해 조평통 서기국 보도(1.5), 우리민족끼리 등 각종 매체를 통해 비난
 - “리○○역도가 《신년국정특별연설》이라는 데서 그 무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정세에서 큰 변화가 예고》된다는, 《기회의 창》이니 뭐니 하면서 북이 《진정성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시대》를 함께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떠벌였다.”¹⁷⁸(1.5)
- 통일부 연두업무보고 비난 및 김정일 위원장 관련 대남 비난 종합 정리
 - 통일부의 연두업무보고(1.5) 및 업무보고 시 대통령 발언 비난
 - “지난 5일 리○○역도가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관된 대북정책은 많은 성과를 거뒀다’느니, ‘량쪽에 도움이 된다’

177.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89호-李대통령 ‘신년국정특별연설’ 비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5일.

178. 위의 글.

느니 하고 떠벌어댔다.”¹⁷⁹(1.11)

- “그 무슨 《실질적통일미래준비》라는것도 지난 시기 리○○ 역도가 들고나온 《통일세》니, 《통일재원마련》이니, 《3대 공동체》니 하는 반통일각본들을 그대로 옮긴것으로서 사실상 《흡수통일》정책의 복사판에 불과하다.”¹⁸⁰(1.8)
- “그 무슨 《평화적 안정》이니, 《남북관계의 정상적발전》이니, 《통일미래준비》니 뭐니 하며 너스레를 떨며 《능동적인 통일정책》이라는것을 들고나온것이야말로 철면피의 극치, 파렴치의 최절정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¹⁸¹(1.9)
- 조평통 서기국 백서를 발표, 기존 대남 비난을 종합하고 정리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리○○역적패당이 저지른 죄악가운데서 북남관계를 최극단으로 몰아간 지난해의 범죄기록을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 이 백서를 발표한다.”¹⁸²(1.12)

(3) 대통령 · 통일부 등 2012년 대남비난 지속

- 2012년 1월 대통령 및 통일부에 대한 비난 지속
 - 우리민족끼리(1.19)를 통해 대통령의 전방 부대 방문 시 ‘북한의 호전적 자세’ 등 발언 비난
 - “지난 18일 리○○역도가 최전연지역을 싸다니며 괴뢰군사병들에게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세력이 있는 분렬된 나라》이라느니, 《도발하면 몇배로 당한다고 생각》하게 해

179- “죄악을 덧쌓는 돈키호테식 망발,”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11일.

180- “《흡수통일》을 노린 《3대목표》,” 『우리민족끼리』, 2012년 1월 8일.

181- “죄악을 감싸려는 《능동적인 통일정책》 타령,” 『우리민족끼리』, 2012년 1월 9일.

182-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백서-북남관계를 완전파국어로 몰아넣은 역적패당의 반민족적 범죄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12일.

야 한다느니 하며 극악한 동족대결의식을 고취하였다. 적반하장격의 도발적망발에 경약을 금할수 없다.”¹⁸³(1.19)

-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실명을 거론, 비난

• “리명박에게 찰거머리 같이 딱 달라붙어 ‘북과 대화 없이 임기가 끝나도 일없다’느니, ‘우리는 원칙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을 거이니 걱정말라’느니 뭐니 하고 입김을 불어넣으며 암암리에 조종해온 자도 다름 아닌 김태효이다.”¹⁸⁴(1.23)

● 대북정책 및 통일부 사업 관련 비난 지속

- 통일교육원의 통일정책 최고위 과정 개설 비난

• “지금 남조선 각계층은 기만적인 《집권공약》을 헌신짝처럼 쥔던지고 민생은 아랑곳없이 반역악정강행과 부정부패행위에 만 눈이 어두워 돌아친 리○○역적패당에 대한 치솟는 분노를 금치 못해하고있다. 이런데로부터 저들의 반통일죄악을 합리해 보려고 고안해낸것이 이른바 《최고위과정》인것이다.”¹⁸⁵(1.19)

- 하나원장 직급 격상, 남북자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공개정보센터 등 통일부 추진 사업 비난

• “이번에 통일부패당이 벌려놓은 그 무슨 《하나원장》이란 자의 《고위공무원격상》놀음은 바로 그 연장선우에 있다. 제반 사실은 통일부패당이 반민족적인 반공화국모략과 대결책동에 얼마나 필사적으로 나서고있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¹⁸⁶(2.1)

183- “북침전쟁을 예고하는 도발적인 호전적폭언,” 『우리민족끼리』, 2012년 1월 19일.

184- “대결광신자의 필사적 발악,”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23일.

185- “무엇을 노린 《최고위과정》개설인가,” 『우리민족끼리』, 2012년 1월 19일.

186- “《격상》 놀음에 비긴 추악한 속통,” 『우리민족끼리』, 2012년 2월 1일.

- “괴리통일부의 《북공개정보센터》 개설놀음은 도리어 동족 대결광신집단으로서의 역적패당의 가공한 처지와 추악한 몰골만을 더욱 부각시킬 뿐이다.”¹⁸⁷(2.2)
- 통일부장관의 민화협 조찬 강연(2.1)비난
 - “류우익은 지난 1일 그 무슨 강연이라는데서 ‘북의 내부체제가 어려워니 인차 대화에 나서기가 힘들것이라’는 그야말로 도발적인 악담을 췌쳐댔다.”¹⁸⁸(2.6)
- 키 리졸브훈련 및 서해사격훈련 관련 비난
 - 키 리졸브 훈련, 독수리 훈련, 쌍룡 훈련 등 한미 합동 군사훈련 비난
 - “올해의 《키 리졸브》합동군사연습은 특히 그것이 대국상을 당한 우리 인민이 아직도 상복을 벗지 못하고있는 때에 강행되는 것으로 하여 더욱 참을수 없고 바로 여기에 그 날강도적 성격이 드러나있다.”¹⁸⁹(1.28)
 - “미국이 리○○역적패당과 야합하여 끝끝내 우리 공화국을 노린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그 누구의 《도발적 행동의 자제》를 떠들면서 벌려놓는 이번 군사연습은 저들의 침략전쟁연습을 정당화하려는 날강도적 행위이다.”¹⁹⁰(2.4)
 - 서해 5도 해상사격 훈련에 대해 ‘조평통 서기국 보도,’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 공개통고장’ 등을 통해 비난
 - “이 수역의 정세를 최대로 격화시켜 조선반도의 전반정세를

187- “공개정보센터 개설놀음,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리민족끼리』, 2012년 2월 2일.

188-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우리민족끼리』, 2012년 2월 6일.

189- “무모한 불량난 소동(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1월 28일.

190- “방어의 탈을 쓴 전쟁연습,” 『조선중앙통신』, 2012년 2월 4일.

전쟁국면으로 몰아가려는 계획적인 군사적도발이다.”¹⁹¹(2.19)

- “또다시 우리측 수역을 목표로 포실탄사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야말로 극악무도한 전쟁광신자로서의 진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다.”¹⁹²(2.20)

- 北,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비난

- 서울 핵안전보장회의 개최 비난 지속

- “서울 《핵안전수뇌자회의》는 미국과 괴뢰패당이 반공화국 핵소동의 판을 더 크게 벌려놓으려는 또 하나의 유치한 광대극이다.”¹⁹³(2.22)

(4) 김정일 사망 관련 한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비난과 보복의지 과시

- “남조선에 추모분향소를 설치했던 의로운 사람들을 《보안법》에 걸어 감옥으로 끌어가서 천인공노할 만행을 서슴치 않았다”고 비난함.¹⁹⁴(3.2)
 - “우리와 만나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문제를 논의한 애국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 처형하고 있다.”
- 우리 정부의 김정일 사망 관련 조치, 언론 보도 등에 대해 “천추에 용납 못할 극악한 반민족적범죄행위이며 북남관계개선의 마지막

191. “조선인민군 전선서부지구사령부 공개통고장,” 『조선중앙통신』, 2012년 2월 19일.

192.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90호-괴뢰호전광들이 무모한 선불질을 강행한다면 무서운 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2월 20일.

193. “北 『亞-태평화委』 등, 2.2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 비난 합동성명,” 『조선중앙통신』, 2012년 2월 22일.

194.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92호,”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2일.

기회마저 영영 망쳐버린 반통일 죄악”이라고 비난함.¹⁹⁵(3.21)

- 김정일 사망 때 우리측 일부 인사들의 조문을 위한 방북을 정부가 허용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함.¹⁹⁶(3.27)

(5) ‘최고존엄(김정일·김정은)’을 중상 모독한 “특대형 도발행위,” “특대형 범죄행위”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고취 및 보복의지 과시

- 거의 모든 문건마다 특히, 이른바 “‘최고존엄’에 대한 중상과 모독”을 문제 삼으며 분노와 적개심을 높이고 보복의지를 과시함.
 - 김정일 사망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해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비난
 - 3월 이후 발표된 거의 모든 문건에서는 군부대 계시물(김정일·김정은 비난 구호를 찍은 사진을 내무반에 부착)과 관련하여 이를 “특대형 도발행위”라고 하며 우리 정부와 보수 성향의 언론사들을 강하게 비난하고 보복의지를 과시
 - 4월 들어서는 거의 모든 문건에서 ‘태양절경축행사,’ 핵·미사일 개발 등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우려와 비판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보복을 경고
 - “최고존엄에 대한 문제는 경고로 끝나지 않는다. 온 나라가 무자비한 보복의 격동태세에 들어갔다.”¹⁹⁷(3.5)

195- “반드시 결산해야할 반통일죄악,” 『로동신문』, 2012년 3월 21일.

196- “반통일죄악의 고소장으로 될 통일백서,” 『우리민족끼리』, 2012년 3월 27일.

197- “결코 위협사격이 아니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5일.

- “우리의 생명인 최고존엄을 무엄하게 중상모독한 불구대천의 리○○역적패당에 대한 멸적의 기개와 보복의지에 넘쳐있다.”¹⁹⁸(3.9)
- “비록 서울 한복판이라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건드리는 도발원점으로 되고있는 이상 그 모든 것을 통채로 날려보내기 위한 특별행동조치가 취해질것이다.”¹⁹⁹(4.18)
-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백서’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대북정책을 부정 일변도로 평가하고, 남북대화는 물론 남북관계를 “영영 수습할 수 없는 완전파국으로 몰아넣었다”고 비난하고, 그 결정적 사건은 ‘최고존엄’을 중상 모독하는 “특대형도발행위”라고 지적함.²⁰⁰(4.2)
- 또한 ‘최고존엄’에 대한 중상모독은 “동족대결의 극치이며 최대최악의 도발”인바, “무자비한 성전으로 대처”할 것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함.²⁰¹(3.9)
 - “우리 군대와 인민은 최고존엄을 헐뜯는데 대하여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았다. 때문에 남조선의 력대 괴뢰도당들도 우리의 최고존엄만은 감히 건드리지 못하였다. 유독 리○○역적패당만이 하룻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고 분별없이 망탕짓을 하였다.”
 - “우리의 최고존엄에 대한 리○○역도의 무모하고 광란적인 중상모독사건은 체제대결책동의 최극단이다.”²⁰²(4.8)

198-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9일.

199-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18일.

200- “‘조평통’ 서기국 백서,”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일.

201- “우리의 최고원칙에는 그 어떤 에누리도 없다(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9일.

202- “조국전선 중앙위 서기국 비망록-역적패당이 체제대결책동으로 얻을 것은 파멸과 죽음밖에 없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8일.

- 우리정부 당국자의 ‘김정은 후계세습,’ ‘북한변화’ 등의 발언과 관련하여, 이는 “북남관계정세를 최극단으로 몰아가는 또 하나의 중대 도발”이라고 비난함.²⁰³(4.28)

(6) 남한의 총선(4.11)과 연말 대선 정국에 즈음하여 남한사회 혼란 및 갈등 조장, 격화

- 이명박 정부가 “진보적인 잡지 《민족21》발행인과 대표 등이 우리에게 포섭되어 《간첩활동》을 하였다고 하면서 살벌한 폭압소동을 벌리고 있다”고 비난함.²⁰⁴(3.6)
 - “력대적으로 남조선괴뢰들은 선거를 앞두고 통치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북풍》 조작으로 진보세력의 진출을 말살하고 반 《정부》 민심을 돌려놓기 위해 갖은 책동을 다한다.”
 - “리○○역적패당이 《북풍》 조작책동에 매달릴수록 그것은 더욱 거세찬 반리○○, 반《새누리당》 폭풍을 몰아와 천하악당들의 가장 비참한 종말에 처하게 할 것이다.”
- 4.11 총선 때의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 수사와 관련하여 북한당국은, “그 무슨 시비를 가린다면 《중북》을 떠드는 것은 남녘의 통일애국세력을 우리와 연결시켜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한데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것”으로, 이는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정치적도발이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자기 족속들의 재집권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추악한 정치테로행

203- “취재끼들의 어망쳐망한 광기(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8일.

20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 보도 제993호,”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6일.

위”라고 비난함.²⁰⁵(5.25)

- “내부의 권력싸움 때마다 괴뢰패당이 언제나 몰아온 것이 《북풍》 바람이었으며 그 변종이 《중북》 타령”인바, “진보적단체들과 인사들에게 《중북》, 《좌파세력》의 딱지를 붙이다 못해 야당후보들까지 《북과 직접 연결》된 《좌파그룹성원》으로 몰아대고 있다.”

● “남조선보수패당”이 “괴뢰국회와 군부 할것없이 남조선사회전반에 《중북척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바, “이렇듯 발광적인 《색갈론》 소동은 한마디로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추악한 정치테로 행위”이며, “《색갈론》 소동은 남조선보수패당이 《선거》때마다 일으키는 습관성질환이다.”²⁰⁶(6.6)

● “보수패당은 진보개혁세력을 《중북세력》으로 몰아대고” 있으나 “진보와 개혁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남조선에서는 장장 수십년 동안이나 외세의 지배와 친미독재 《정권》의 파썸화책동에 의해 정의와 진보가 무참히 짓밟혀왔다”라고 강변함.²⁰⁷(5.29)

- “《새누리당》의 조상들인 남조선의 역대 독재자들은 모두 친미, 친일이 공수에 찬 특등역적, 추악한 사대매국노들이었다.”

- “《새누리당》은 분렬과 대결을 악랄하게 추구하는 희세의 반통일집단”

205- “고질적인 지랄병(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25일.

206- “《색갈론》은 출로가 아니다(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6일.

207- “죄악의 역사와 함께 청산해야 할 반역당,” 『로동신문』, 2012년 5월 29일.

- “《중북세력척결》소동”은 “남조선의 통일애국세력과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추악하고 비렬한 정치테로이며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중대도발”이라고 비난, 규탄하고 “남조선당국과 《새누리당》이 “명백히 답변할 것을 요구하여” 공개질문장을 발표함.²⁰⁸(6.11)
 - “북남공동선언에 따라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로 나가자는 사람들이 왜 《중북세력》으로 되는가,”
 - 북한당국과 접촉하고 통일논의를 한 사람들이 다 “《중북》이라면” 과거 “비밀특사”로 평양에 왔던 사람들은 “《중북빨갱이》가 아닌가,”
 - “남조선에서 심각한 문제는 《중북》이 아니라 종미가 아닌가,”
 - “《중북세력척결》 소동은 동족을 적대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 “《중북세력척결》 소동은 극악한 인권유린이 아닌가,”
 - “《중북세력척결》 소동을 통해 노리는 속심은 무엇인가” 등을 질문
- 미국은 이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친미주구들을 내세우려는 음흉한 기도”를 하고 있는바, “이것은 이번 《대통령선거》가 단순히 보수와 진보와의 대결이 아니라 민족자주와 북남화해를 실현하는가 아니면 사대매국과 동족대결의 비극이 되풀이되는가 하는 사활적인 계기로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강변함.²⁰⁹(5.29)
-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보수정치인들, 보수단체들 등이 ‘탈북자 북송

208. “北 ‘조평통’ 서기국 공개질문장-중북세력척결 광란으로 차레질 것은 조소와 수치 밖에 없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11일.

209. “친미주구들을 내세우려는 음흉한 기도,” 『로동신문』, 2012년 5월 29일.

반대' 운동을 하는 것은 “있지도 않은 《북인권》문제를 여론화하여 우리 공화국의 영상을 흐리게 하며 총파산에 직면한 반북대결정책을 더욱 악랄히 강행하기 위해서이다. 당면하게는 곧 있게 될 《총선》에서 보수패당을 규합하여 심판분위기를 역전시켜보려는데 있다”고 비난함.²¹⁰(3.6)

- “남조선의 극우보수세력이 4월말부터 5월초까지 《북 자유주간》 행사라는 것”을 개최하여 “반공화국 《인권》 모략소동”을 벌였으며, 이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분노를 더욱더 폭발시키고 있다”라고 경고함.²¹¹(5.4)
- 새누리당 의원들의 북한인권법 발의와 관련해 이는 “우리에 대한 악랄한 정치적 도발로서 북남관계 파국을 심화시키고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제도를 해치기 위한 용납못할 망동”이라고 비난함.²¹²(6.11)
- 북한인권법은 “동족대결악법”으로 “《새누리당》이 《북인권법》 조작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는 것은 저들의 반인민적, 반인권적 악행으로 높아가는 민심의 불만을 탄데로 돌리고 《종북》 논란을 일으켜 연북통일세력을 질식시키며 동족대결책동을 합법화하여 《대선》공작에 써먹어보자는데 있다”고 비난하고, “《북인권법》 조작책동은 북남공동선언리행의 앞길을 가고막고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에 몰아넣으며 전쟁불집을 터뜨리는 위험천만한 망동이다”라고 주장함.²¹³(6.18)

210- “극도에 이른 모략광증(논평),” 『우리민족끼리』, 2012년 3월 6일.

211- “남조선 극우보수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4일.

212- “논평, 인권간판을 단 불순한 정치적 도발,” 『평양방송』, 2012년 6월 11일.

213- “조선민주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북인권법 조작으로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보수패당이 지게 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18일.

- 류우익 통일부 장관이 취임 이후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유연성’, ‘대화’ 등을 강조한 데 대해, 이는 국내 여론을 호도하여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고 한반도 정세를 최악으로 몰아간 반민족적 최악의 책임을 모면하고 보수층을 결집하여 재집권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함.²¹⁴(3.12)
- “최근 남조선에서 어용언론들에 대한 시청거부, 방송제작 거부 투쟁이 매일과 같이 벌어지고 현 사장들을 비롯한 악질주구들을 청산하기 위한 언론로조원들의 대중적 투쟁이 거세차게 일어나고 있다.”²¹⁵(3.13)
 - “우리의 물리적 타격수단들과 정의의 붓대포 조준경 안에는 역적패당의 아성인 청와대뿐 아니라 그에 공모결탁, 추종하는 매문가들이 등지를 틀고있는 서울의 중구와 종로구, 영등포구를 비롯한 모략보도본거지들도 들어있다.”
 - “북과 남의 전체 기자, 언론인들이여! 민족의 오물인 리○○역적과 군부호전광들, 악질언론사장들의 대역죄를 날날이 까밝히고 폭로하는 시대와 인민의 예리한 비수가 되라.”
-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 언론분과위원회’는 언론사 파업과 관련하여 ‘언론탄압실태 고발장’을 발표함.²¹⁶(4.3)
- “역도가 6.15의 정신에 따라 좋게 발전하여온 북남관계를 송두리째

²¹⁴ - “그가 누구이든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민족끼리』, 2012년 3월 12일.

²¹⁵ - “정의의 붓대포로 이명박역적패당과 매문가들을 무자비하게 징벌하자(조선기자동맹 중앙위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13일.

²¹⁶ - “조선기자동맹 중앙위, 언론탄압실태 고발장 발표,”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3일.

말아먹으며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매달린 것”은 “정세를 긴장시켜 북침의 기회를 마련하고 보수세력을 결탁하여 재집권 야망을 이루어보자는 것이다.”²¹⁷(3.15)

-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고 선차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로 역적무리들을 송두리째 쓸어엿애는 것이다.”

- 북한이탈주민 비례대표 공천은 “《탈북자》문제라는 것을 들고 나와” 대결정책을 합리화하고 “분노한 민심의 이목”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함.²¹⁸(3.21)

- 북한이탈주민을 비례대표로 공천한 새누리당은 “앞으로 동족대결에 더욱 혈안이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새누리당》은 이전보다 더 악랄한 반공화국대결당으로 될 것임을 《선거공약》으로 명백히 내건 셈”

- “북남관계를 파괴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엄중히 유린한 리○○《정권》에 대한 분노”가 격화되고 있으며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성명을 발표하여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보수패당을 무자비하게 쓸어버리자고 각계층 인민들에게 호소”²¹⁹(3.21)

- 보수 성향의 현 집권 여당을 일컬어 “보수패당, 반역패당, 반역무리, 리○○역적패당”등이라 하고, 보수 성향의 현 정권이 “극단적인 대결정책으로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여지없이 파괴하

217. “극악한 대결광신자의 헛나발,” 『우리민족끼리』, 2012년 3월 15일.

218. “흉악한 속심이 어린 탈북자 공천놀음,” 『우리민족끼리』, 2012년 3월 21일.

219. “반드시 결산해야할 반통일죄악,” 『로동신문』, 2012년 3월 21일.

였다”고 주장

- “반통일대결광신자들을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내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겨레가 얼마나 더 큰 불행과 화를 입을지 알수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북남대결책동에 미쳐날뛰면서 민족 앞에 죄악에 죄악을 덧쌓는 리○○역적패당을 징벌함으로써 온갖 재안의 화근을 들어내고 조국통일의 커다란 장애를 단호히 제거해야 할 것이다.”
- 이명박 정부가 “《핵안전수뇌자회의》를 앞두고 《북의 도발》설로 《안보불안》감을 조성하여 다가오는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한다”고 비난함.²²⁰(3.21)
 - 회의를 앞두고 북의 도발이 예상된다고 하며 민심을 혼드는 동시에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을 주장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지향하는 진보세력들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차단하려고 책동한다고 주장
- “《천안》호 사건 발생 2년에 되어오는 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도발소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으나 “《천안》호 사건을 우리와 연결시키는 것은 반공화국모략소동”이라고 비난함.²²¹(3.21)
 - “남조선 각계가 《천안》호 사건을 역적패당의 날조극으로 단죄하고 있으며 주변나라들도 천안호 사건의 북관련설을 부정”
 - “괴뢰호전광들은 2010년 11월 연평도 사건까지 일으키고 일촉즉발의 위기사태를 조성”
 - “《천안》호 사건은 (이명박 정권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220- “동족을 모해하기 위한 불순한 모략소동,” 『로동신문』, 2012년 3월 21일.

221- “거덜이 난 유지한 자작극,” 『로동신문』, 2012년 3월 21일.

를 격화시키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조작한 특대형모략극”

- 새누리당의 탈북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하여 “동족대결밖에 모르는 보수세력으로부터 지지표”를 받기 위해 청와대, 국정원, 새누리당이 만들어 낸 각본에 불과하다고 비난함.²²²(3.21)
- ‘조국통일연구원 조사보고서: 유신 독재의 망령을 부르는 자들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에서는 남한의 보수 진영에서 “《유신》 독재를 부활시키려는 책동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난함.²²³(3.23)
 -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컬어 “특등 매국노, 파쏘독재자, 극악한 반통일대결광, 예속경제의 고질병을 만든 주범” 이라고 비난
- “최근 괴뢰통일부 장관 류우익이 경상도일대의 대학가들을 찾아다니며 반공화국대결광기를 부려대고 있다”라고 하며 영·호남지역민들의 해묵은 감정을 자극하고 갈등을 조장함.²²⁴(3.27)
- 류우익 통일부장관의 《탈북자 문제》 제기를 “반통일적 행태”라고 비난하고 《탈북자 문제》를 “극악한 반공화국모략책동의 산물”로 규정함.²²⁵(3.27)
 - “남조선의 진보운동단체들과 야당들은 《탈북자》 소동을 《재집권실현을 위한 리○○ ‘정권’의 ‘북풍’ 물이》, 《이번 ‘4.11총선’ 정세를 역전시켜보려는 ‘꼼수’》라며 규탄 배격”

222- “흉악한 속심이 어린 탈북자 공천놀음,” 『우리민족끼리』, 2012년 3월 21일.

223- “조국통일연구원 조사보고서-유신 독재의 망령을 부르는 자들은 파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23일.

224- “탈북자가 통일부를 책임진다,” 『우리민족끼리』, 2012년 3월 27일.

225- 위의 글.

- “《리○○근혜》결탁, 《새누리당재집권》시도는 독도가 위험하다는 특급위험신호”라고 하면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 새누리당과 리○○근혜 결탁을 단호히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함.²²⁶(4.5)
 - “박정희 친일정통뿌리에 자기의 근간을 두고 있는 박근혜의 《새누리당》이 득세하면 리○○의 《기다려달라》는 친일약조도 실현”되기 때문이라는 것
- ‘민족경제협력연합회’는 ‘고발장’을 발표하고, 이는 “동족대결에 미쳐 북남민간협력사업을 악랄하게 파괴, 말살한 리○○패당의 전대미문의 반민족적 죄행을 만천하에 폭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²²⁷(4.5)
- ‘조선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에서는 ‘민간인불법사찰’을 이명박 정권과 여당이 저지른 “특대형 반인권범죄행위”라고 비난하고 “《유신》독재자의 딸 박근혜와 《유신》 잔당의 무리인 《새누리당》은 리○○역도와 함께 이번 사건의 장본인으로서 마땅히 심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함.²²⁸(4.3)
-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도 ‘상보’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리○○역적패당이 집권기간 적십자정신을 유린하고 북남사이의 인도주의 사업을 파탄시킨 극악무도한 죄악을 만천하에 고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힘.²²⁹(4.6)
 - 주요 내용은 “북남적십자대화의 전면 거부, 인도주의협력사업의

226- “특급위험신호! 독도가 위험!” 『우리민족끼리』, 2012년 4월 5일.

227- “민족경제협력연합회 고발장- 이명박역적패당은 북남민간협력사업을 파괴, 말살한 장본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5일.

228- “조선법률가협회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3일.

22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상보,”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6일.

파탄, 반공화국인권모략책동” 등

- 상보에서는 “더우기 괴뢰역적패당은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랍치와 반공화국모략소동으로 새로운 흠어진 가족, 친척들을 만들어내는 짓을 감행하였다”고 주장
- 북한의 ‘조국통일연구원’은 이른바 ‘남조선민심백서’를 발표하고, 이는 “남조선민심의 증오와 규탄의 목소리를 사실 그대로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남조선신문, 방송, 인터넷에 넘쳐나는 리○○패당을 비난하는 글과 만화, 동영상, 유모아들가운데서 일부를 추려”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힘.²³⁰(4.7)
- 인용 출처는 경향신문, 아시아경제, 오마이뉴스, 헤럴드 경제, 미디어오늘, 데일리안, 참말로, 자주민보, YTN, 뉴시스, 스포츠서울, 남조선의 한 이름있는 조각가, 한겨레, 통일뉴스, 민중의 소리, 노컷뉴스 등
- 백서에서는 “남조선각계층의 분노는 특히 지난해말 민족의 대국상 때 리○○패당이 저지른 천추에 용납 못할 대역죄와 우리의 최고존엄을 함부로 모독한 특대형도발사건으로 하여 절정에 달하였다”고 주장

(7) 통일부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일상적·상투적 비난

- 보수 성향의 현 정권이 출범 직후부터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파국상태로 몰아갔으며 “동족에 대한 적대감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반통일대결과 전쟁책동에 광분함으로써 북남관계를 파탄”시켰으며 남

²³⁰ “北 ‘조국통일연구원’ 남조선민심백서 발표-이명박 역적패당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야 말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7일.

북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고 전쟁위험을 극도로 고조” 시켰다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리념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북남관계의 기초이며 민족공동의 통일리정표”이나 현 정권은 “우리민족끼리리념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비핵·개방·3000》을 《대북정책》으로 내걸고 북남선언들의 리행을 거부”
- “반공화국 심리전과 《인권》모략소동으로 북남대결을 체계적으로 조장시켜온 역적패당은 《천안》호 사건을 꾸며내고 그것을 구실로 《5.24조치》라는 것을 선포함으로써 북남관계를 완전 폐쇄”
- ‘연평도사건’이 발생하고 “극도의 전쟁위험이 조성된 것”은 “리○○일당의 반통일 대결책동의 필연적 후과”
- “《탈북자》문제는 적대세력의 반공화국제재압살책동과 우리 주민들에 대한 유인랍치책동의 산물”²³¹(3.15)
 - “인권과 종교의 탈을 쓴 거간군들을 동원하여 막대한 돈을 뿌려가며 우리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유인랍치하여 남조선에 끌고가 우리 민족 안에 또다른 류형의 흠어진 가족, 친척문제라는 것을 산생시켰다.”
- “《탈북자복송반대》 란동은 우리 공화국의 높은 존엄과 대외적 권위를 혈뜯기 위한 또하나의 악랄한 반공화국모략전이며 저들의 반인륜적 범죄진상을 가리우기 위한 어리석은 기만술책이다.”²³²(3.2)

²³¹- “김빠진 모략소동 통할 수 없다,” 『우리민족끼리』, 2012년 3월 15일.

²³²- “죄지는 자들의 난동,”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2일.

- 통일부 발간물인 『통일백서(2012)』에 대해 “반통일적죄행들을 차적으로 묘사하고 북남관계파탄의 책임을 우리 공화국에 떠넘긴 것으로 일관”되어 있다고 비난함.²³³(3.27)
 - 특히 김정일 사망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취한 조치와 우리측의 대화 제의 등에 대해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자, 대화파괴자들의 파렴치한 궤변”이라고 비난
 - 현 남북관계를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책동으로 북남관계를 더는 헤어날수없는 전쟁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라고 비난
 - 통일부에 대해 “한다는 짓이란 <탈북자> 따위의 인간쓰레기들을 동원하여 반공화국 모략만을 일삼고 남조선인민들 속에 동족에 대한 불신과 대결의식을 고취하는 못된 짓뿐이었다”라고 비난
- “류우익을 수장으로 한 통일부패당”은 “<진정성>을 운운해”가며 “반공화국인권소동과 뼈라살포 등 동족을 겨냥하고 <체제대결>을 노린 북남대결의 판을 더욱 크게 벌려온 자들”²³⁴(3.15)
 - “특히 류우익은 민족의 대국상 앞에서까지 수하졸개들과 인간쓰레기들 그리고 극우보수단체들, <데일리NK>를 비롯한 어용매체들까지 내몰아 무엄하게도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천만국민의 순결한 충정을 날조모독하는 모략선전을 일삼아온 주범”
- “우리 주민들을 유인 랫치하여 남조선에 끌어다가 저들의 반공화국 모략책동의 리용물로 써먹다가 헌신짝처럼 차던지고 있는 범죄집단인 괴뢰통일부가 감히 <탈북자>소동을 벌리는 것이야말로 극

233- “반통일죄악의 고소장으로 될 통일백서,” 『우리민족끼리』, 2012년 3월 27일.

234- “책임을 회피해보려는 궤변,” 『우리민족끼리』, 2012년 3월 15일.

악한 망동”²³⁵(3.12)

- 류우익 장관이 중국 내 탈북자 복송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공화국의 존엄을 깎아내리고 저들의 유인랍치행위의 진상을 가리우며 대결책동을 정당화해 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비난함.²³⁶(3.12)
- 이명박 정부에 대해 “《천안》호 사건 발생 2년에 되어오는 것을 계기로 반공화국도발소동에 더욱 광분”하고 있다고 비난함.²³⁷(3.21)
- 현 정권이 《핵안전수뇌자회의》(3.26~27)를 반공화국 모략 소동에 적극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함.²³⁸(3.21)
 - “회의를 계기로 《안보》라는 미명하에 군사적 긴장을 더욱 조장하여 《북의 위협》이라는 것을 부각시킴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과 우리 공화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려고 꾀하고 있다.”
 - “국제적인 반공화국 공조를 실현하려고 발악”
-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명박정부와 미국이 벌리려는 핵전쟁을 합리화하고 “일단 유사시 조선전쟁에 추종국가들을 끌어내기 위한 핵전쟁모의판이 될 것”이라고 비난함.²³⁹(3.14)
- 이명박 대통령이 김일성 생일 100돌 경축행사 비용 및 북한의 식량사정 관련 발언을 한 것은 태양절을 악랄하게 중상 모독한 특대형도발행위라고 비난함.²⁴⁰(4.22)

235- “인질 납치법의 궤변,” 『우리민족끼리』, 2012년 3월 12일.

236- “대화의 탈을 벗어던진 대결광(기고),” 『우리민족끼리』, 2012년 3월 12일.

237- “거덜이 난 유치한 자작극,” 『로동신문』, 2012년 3월 21일.

238- “동족을 모해하기 위한 불순한 모략소동,” 『로동신문』, 2012년 3월 21일.

239- “조선반핵평화위원회 백서-남조선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핵화약고, 핵전쟁발원지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14일.

240- “北 외무성 대변인 성명,”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2일.

- 이명박 대통령은 “6.15 통일열기로 차넘치던 북남관계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은 재앙이었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격화만을 산생시킨 화근”
- ‘통일항아리 기금’이란 이명박정부가 “《동서도이첼란드의 통일방식》을 참고하여 《통일재원》을 미리 마련한다고 하면서 고안한 것으로서 각계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이미 거덜이 난 《통일세》 모으기의 복사판”이라고 비난함.²⁴¹(5.4)

(8) 한반도 핵위기 고조 및 전쟁 발발 가능성 경고

- “남조선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핵화약고, 핵전쟁발원지이다.”²⁴²(3.14)
 - “남조선의 리○○역적패당이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특대형 범죄를 저지르고 사실상의 선전포고를 한 마당에서 《핵안전수뇌자회의》가 벌어진다는 것은 천만부당하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 “남조선은 미국의 핵전초기지이고 세계최대의 핵화약고”
 - 백서에서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 대도시들에 비축되어 있다는 핵 무기 실태를 세세히 밝히고 남한은 “세계최대의 핵화약고”이며 “미국의 이동식핵무기고,” “핵전초기지”로서 연례적으로 각종 북침 핵전쟁 연습을 하고 있다고 주장
 - 미국의 공식 입장 내지 주장과는 다르게 남한은 핵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인바, 미국은 오히려 남한정권의 핵무기 연료

²⁴¹- “수전노의 얼빠진 망상,”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4일.

²⁴²- “조선반핵평화위원회 백서-남조선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핵화약고, 핵전쟁발원지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14일.

추출을 묵인하고 있으며 핵물질 뿐만 아니라 핵무기 제조 기술도 적극 지원하고 있고, 남한이 핵무기 운반수단을 보유하는 것도 도와주고 있다고 주장

- 한반도는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한 이래 다음 번 핵 타격지로 선정해 놓고 그 계획을 변경시킨 적이 없는 가장 위험한 지역인바, 미국의 다음 번 핵전쟁계획에서 남한은 그 전초기지로 되고 있다고 주장
- 북침을 위한 미국의 핵전쟁 도발 책동은 1976년 이래 한미 합동 군사연습을 통해 더욱 노골화되었으며, 오바마 행정부 역시 북한을 핵 선제공격 대상의 범주에 넣었다고 주장
- 미국의 핵전쟁도발 위협은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욱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
-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는 이명박정부와 미국이 벌리려는 핵전쟁을 합리화하고 “일단 유사시 조선전쟁에 추종국가들을 끌어넣기 위한 핵전쟁모의관이 될 것”이라고 비난
- 남한 정부 당국자들이 미국과의 대북정책 공조를 논의하는 것은 “그들의 심각한 위기의식과 극도에 달한 동족대결광증의 발로”이며, 미국과의 “《대북정책공조》란 공화국의 자주권을 해치고 국제적인 반공화국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위험한 대결공조”라고 비난함.²⁴³(5.7)
- “《북의 핵, 미사일위협》에 대비한 《강력한 대응》이니 뭐니 하는것도 우리의 자주적 권리행사를 구실로 외세와 함께 반공화국대결의 도수를 더욱 높이고 나아가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

²⁴³- “선군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7일.

을 달기 위한 모험적 망동”

-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은 미국과 남조선으로부터 오고있다”라고 강변함.²⁴⁴(5.8)
 - 남한정부의 “《선제타격》 작전계획수립은 우리에게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며 전면전쟁을 노린 위험천만한 망동”인바, “《선제타격》 작전계획까지 수립한 것은 선제공격에 의한 북침전쟁도발이 리○○패당의 전략으로 정식화되었다는 것을 입증”
 - “역적패당의 대결소동은 외세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의 산물”인바, “현 북남관계의 긴장상태를 더한층 고조시켜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고 괴뢰들을 총알받이로 내몰아 북침야망을 실현하자는 것이 미국의 음흉한 계책”²⁴⁵(5.16)
 - “미호전세력은 있지도 않는 조선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운운하면서 남조선괴뢰들을 최신무장장비로 무장시키고 있다.”²⁴⁶(5.28)
- “극도의 통치위기에 빠진 리○○패당은 외세와 작당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하는데서 살길을 찾으려 하고” 있는바, “미국의 군사전략이 아시아중시로 개편되고 일본과 남조선의 군사적결탁이 로골적인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시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리○○패당의 대규모적인 무력증강과 련이은 불장난소동들은 심상치 않은 사태를 예고하고 있다.”²⁴⁷(6.18)

244- “악자멸을 재촉하는 선제타격 흉계,” 『로동신문』, 2012년 5월 8일.

245- “반공화국 대결소동의 속심,”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16일.

246- “더욱 드러난 전쟁광신자들의 정체,”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28일.

247- “긴장격화의 장본인은 누구인가,”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18일.

- 제2차 한미 외교·국방장관회담과 관련하여, “최근 괴뢰패당이 미, 일과 야합하여 그 누구의 《도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며 북침 전쟁책동과 무력증강에 더욱 광분”하고 있는바, “호전광들의 이러한 북침전쟁소동으로 하여 긴장한 조선반도정세가 전면전쟁국면으로 걷잡을수없이 치닫고 있으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엄중히 위협당하고 있다”라고 비난함.²⁴⁸(6.22)
 - 이 회답에서 “리○○패당”이 “《3자안보협력범위확대》를 떠든 것은 일본과의 군사적 결탁강화에 대한 로골적인 선언”인바, 이는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고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²⁴⁹(6.22)
-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인 미국의 적대시정책이 계속되고 있는한 우리는 자위적인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나가게 될 것이다.”²⁵⁰(6.25)

나. 의미 분석 및 특이사항

(1) 논조 변화

- 김정은 체제 정착 및 권력 장악에 주력, 내부 단속과 충성 분위기 조성 등 김정일 사망 후 체제안정에 주력
 - 2012년 초까지 현지도와 공개행보의 대부분이 군과 관련, 대내적 권력기반 안정화에 주력하는 경향
- 체제안정관련 대남비난 경향,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점차 대남비난

248-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22일.

249-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적 결탁,” 『로동신문』, 2012년 6월 22일.

250- “北 외무성 대변인 담화,”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25일.

강도가 강화되는 추이

- 과거에 비해 대남비난 수위가 고조되고 대통령의 실명 및 구체적인 대북정책을 거론하는 경향
 -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난 자제
 - 김정일 사망 후 대통령에 대한 인신공격 및 원색적 비난 경향
-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래 행해 오던 일상적, 상투적인 매도와 비난, 위협 등으로 일관되어 있으나 강도(強度) 및 수위가 보다 높아지는 추세임.
 -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이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근원들을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해버리게 될것이다.”(4.23)
- 보복의 대상, 방법 등이 보다 더 구체화되고 보복 의지가 보다 더 강화되는 추세임.
 -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하여 김관진 국방장관, 정승조 합참의장, 류우익 통일부장관, 김태효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보수성향의 단체·기관, 보수 언론매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표현에 있어서도 예전에 비해 한층 더 원색적·공격적임.
 - 통일교육원은 “쥐새끼들의 소굴”²⁵¹(4.23)
 - “특별행동의 대상은 주범인 리○○역적패당이며 공정한 여론의

²⁵¹-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3일.

- 대들보를 쓸고있는 보수 언론매체들을 포함한 쥐새끼무리들이 다.”²⁵²(4.23)
- “우리의 존엄과 체제를 심히 모독한 리○○쥐새끼를 가장 비참하게, 가장 수치스럽게 죽탕쳐버리고야 말 것이다.”²⁵³(4.23)
 - “다 죽어 자빠지게 된 쥐○○, …… 쥐○○역도”²⁵⁴(4.28)
 - 거의 모든 문건마다 특히 이른바, “‘최고존엄’에 대한 중상과 모독”을 문제 삼아 분노와 적개심, 보복의지를 과시하며, “무자비한 성전,” “정의의 성전”으로 대처할 것임을 반복적으로 강조함.
 - 우리 군 부대에서 이른바 “민족의 최고 존엄”이라는 김정일·김정은과 이들을 비난한 구호를 찍은 사진을 부착하고,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장관(김관진)과 합동참모본부의장(정승조)이 언급한 데 대해, 이는 “민족의 최고존엄에 감히 도전하여 력사이래 가장 극악한 대결사태를 초래한 것”이며 “최고존엄 사수를 위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붙는 복수심을 천백배로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최후결판의 시각은 바야흐로 다가왔다”라고 하며 보복이 개시될 것임을 경고²⁵⁵(3.9)
 - “오늘 리○○역적패당과의 총결산은 오직 물리적 대결밖에 남지 않았다.”²⁵⁶(3.6)

252_ 위의 글.

253_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95호,”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3일.

254_ “쥐새끼들의 어망쳐망한 광기(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8일.

255_ “형체도 없이 불마당질해버릴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9일.

256_ “우리 군대와 인민은 역적 무리를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사설),” 『로동신문』, 2012년 3월 6일.

- “바야흐로 최후결판의 시각은 다가오고 있다.”²⁵⁷(3.15)
- 위와 같은 보복의지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에서 절정에 이른다.²⁵⁸(4.23)
 - 문건에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가 위임에 따라 다음의 내용들을 통고
 - 첫째, “역적패당의 분별없는 도전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이 곧 개시된다는 것을 알린다.”
 - 둘째, “우리의 특별행동은 노호한 민심과 분노의 폭발이며 우리의 최고존엄을 사수하기 위한 천만군민의 성전이다.”
 - 셋째, “특별행동의 대상은 주범인 리○○역적패당이며 공정한 여론의 대들보를 쏘고있는 보수 언론매체들을 포함한 쥐새끼무리들이다.”
 - 넷째, “우리 혁명무력의 특별행동은 일단 개시되면 3~4분,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순간에 지금까지 있어본적이 없는 특이한 수단과 우리 식이 방법으로 모든 쥐새끼무리들과 도발근원들을 불이 번쩍나게 초토화해버리게 될것이다.”
 - 다섯째, “우리 혁명무력은 빈말을 모른다.”
- 또한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공개통첩장 발표’를 통해 이른바 “최후통첩”을 보낸다.²⁵⁹(6.4)
 - “조선소년단 창립 66돌 경축행사”와 관련하여 이명박 정부가

257- “절호의 기회는 자멸의 기회,” 『로동신문』, 2012년 3월 15일.

258-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3일.

259-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공개통첩장’ 발표-역적패당은 스스로 최후의 선택을 하여야 한다,” 『평양방송』, 2012년 6월 4일.

“언론매체들을 동원하여 일제히 우리 어린이들의 경축행사를 비난하는 여론공세를 펴고 있으며 그것을 계기로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는 새로운 악행에 매달리고” 있는바, 이는 “더이상 그대로 둘 수 없는 특대형 범죄”이며, 이에 대해 “우리 군대의 육해공군 장병들”은 “인민이 따르고 세계가 우러르는” ‘최고존엄’을 모독하는 자들을 “총대로 단호히 결산할 것을 한사람같이 청원해오고 있다.”

- “전선의 군단, 사단, 연대들과 중심의 전략로켓트군 장병들은 새로운 악행을 연출하고 있는 역적패당의 본거지들”인 조선일보사, 중앙일보사, 동아일보사 등의 위치와 “KBS, CBS, MBC, SBS 방송국 자리표도 확정해 놓은 상태라고 하면서 징벌을 가할 타격 명령을 내려 달라고 외치고 있다.”
- “우리의 최고존엄을 헐뜯고 우리 사상과 제도, 인민을 해치고 있는 특대형 도발자들의 소굴을 그대로 둘수 없다는 것이 우리 군대의 철의 의지”인바, “우리 군대의 타격에 모든 것을 그대로 내맡기겠는가 아니면 뒤늦게라도 사죄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길로 나아가겠는가, 스스로 최후의 선택이 있어야 할 것이다.”
- “우리는 모든 것에 다 준비되어있다. 시간은 무한정 차레지는 것이 아니다.”

(2) 특이사항

- 4.11 총선 및 연말 대선 정국에 즈음하여 현 보수 성향의 정권 및 집권 여당(새누리당)에 대한 비난과 국민 여론 분열을 조장, 격화시킴.
 - 해묵은 지역감정과 이념적 갈등 및 대립을 조장, 격화
 - ‘북풍,’ ‘민심의 심판,’ ‘민심의 확고한 심판의지,’ ‘리○○정권 심

판, '리○○쥬새끼' 등의 표현, 6.15선언과 10.4선언 언급 등의 행태는 남한 사회의 현 정권에 대한 비판세력, 진보적 성향의 유권자 등에게 영합하려는 의도를 시사

- 보수 성향의 현 집권 여당을 일컬어 “보수패당, 반역패당, 반역무리, 리○○역적패당” 등이라 하고, 보수 성향의 현 정권이 “극단적인 대결정책으로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여지없이 파괴하였다”고 주장²⁶⁰(3.21)
- “12월에 있게 된 남조선에서의 《대통령선거》는 단순히 민주와 파썸, 진보와 보수사이의 대결이 아니다. 그것은 6.15세력 대 반 6.15세력 사이의 첨예한 대결”이며, “남조선의 현 집권세력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악랄한 반대자들이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이 아니라 오로지 대결과 전쟁만을 추구하는 반 통일역적들”인바, “남조선에서 다가오는 《대통령선거》는 반 6.15세력의 집권을 끝장내기 위한 중요한 기회”라고 역설²⁶¹(6.28)
- 특히 연말 대선 정국을 겨냥하여 “로무현의 불법정치자금은닉사건”을 들어 보수와 진보의 대결을 조장,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내비침.²⁶²(5.19)
- “최근 리○○패당이 전 《대통령》 로무현의 이른바 불법정치자금 은닉사건이라는 것을 내들고 로무현 세력을 부패집단으로 몰아 말살하기 위한 모략책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여기에 《조선일보》, 《중앙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들까지 총동원되어 로무현과 그 세력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대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260- “반드시 결산해야할 반통일죄악,” 『로동신문』, 2012년 3월 21일.

261- “反6.15세력은 참패를 면할 수 없다,” 『로동신문』, 2012년 6월 28일.

262-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98호,”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19일.

- “로무현의 불법정치자금은닉사건”은 “련북자주통일세력에 대한 또 하나의 비렬한 정치테러, 전대미문의 야만적 폭거”인바, “북남공동선언을 짓밟고 련북통일기운을 거세하며 민주개혁세력에 대한 역공세로 《대통령》 선거정세를 저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음흉한 술책”
- “특히 민주개혁세력들은 오는 12월 《대선》에서 민주통일세력에 의한 《정권》교체를 기어이 실현하기 위해 반리명박, 반《새누리당》 심판투쟁을 과감히 벌리고 있다.”
- 이명박정부와 ‘극우보수세력’에 대한 비난 및 경고에 있어서는 우리 측의 진보적 성향의 언론, 시민단체, 그리고 야당을 ‘동조세력’으로 내세움.
 - 북한의 ‘조국통일연구원’은 이른바 ‘남조선민심백서’를 발표하면서, 이는 “남조선신문, 방송, 인터넷에 넘쳐나는 리○○패당을 비난하는 글과 만화, 동영상, 유모아들가운데서 일부를 추려” 발표하는 것이라고 밝힘.²⁶³(4.7)
 - 북한은 이른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특별작전행동소조 통고’(4.23) 이후 “남조선의 야당들과 시민단체들은 ‘리명박의 대북 강경정책이 이런 위기상황을 몰고왔다,’ ‘대북강경정책을 폐기하라’고 들이대고 있다”라고 주장²⁶⁴(5.4)
- 이른바 ‘중북세력,’ ‘중북척결’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를 현 보수집권세력의 정치테러로 규정하는 등, 연말 대선 정국을 겨냥하여

263. “北 ‘조국통일연구원’ 남조선민심백서 발표-이명박 역적패당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 비참한 종말을 고하고야 말 것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7일.

264. “남조선 극우보수세력들의 반공화국 인권모략소동,”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4일.

보수와 진보의 대립을 한층 더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냄.

- “《중북》을 떠드는 것은 남녘의 통일애국세력을 우리와 연결시켜 탄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것으로, 이는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정치적도발이며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자기 족속들의 재집권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추악한 정치테로행위”²⁶⁵(5.25)
- “내부의 권력싸움 때마다 괴뢰패당이 언제나 몰아온 것이 《북풍》 바람이었으며 그 변종이 《중북》 타령”²⁶⁶(5.25)
- “남조선보수패당”이 “남조선사회전반에 《중북척결》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바, “이렇듯 발광적인 《색갈론》 소동은 한마디로 보수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추악한 정치테로 행위”²⁶⁷(6.6)
- “보수패당은 진보개혁세력을 《중북세력》으로 몰아대고” 있으나 “진보와 개혁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이며 사회발전의 합법칙적요구”²⁶⁸(5.29)
- 북한당국의 “《중북세력척결》소동”에 대한 연이은 비난은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조평통 서기국 공개질문장’에서 한층 구체화되었으며, 이 문건에서 북한은 “《중북세력척결》소동”을 “동족대결론이고 전쟁론”이며 “극악한 인권유린”이라고 단정적으로 규정함.²⁶⁹(6.11)

265- “고질적인 지랄병(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25일.

266- 위의 글.

267- “‘색갈론’은 출로가 아니다(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6일.

268- “죄악의 역사와 함께 청산해야 할 반역당,” 『로동신문』, 2012년 5월 29일.

269- “北 ‘조평통’ 서기국 공개질문장-중북세력척결 광란으로 차례질 것은 조소와 수치밖에 없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11일.

- 북한당국은 특히, “우리와 접촉하고 통일론의를 한 사람들이 다 《종북》이라면 지난 시기 비밀특사를 평양에 보내여 우리와 내적접촉을 하였으며 우리의 혁명성지들을 돌아보고 진상품까지 바친 역대 통치배들은 《종북》이 아닌가”라고 질문하고 관련 인물들로, 전 중앙정보부장 이후락, 전 안전기획부장 장세동과 서동권, 그리고 2000년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사례 등을 지목하는 한편, 박근혜, 정몽준, 김문수 등 “현 청와대와 행정부, 《새누리당》 안에도 우리와 내적으로 연계를 가진 인물들이 수두룩”하다고 주장
- “박근혜만 보아도 2002년 5월 평양을 방문”하여 “《친북발언》을 적지 않게 하였으며,” “정몽준, 김문수 등이 우리에게 와서 한 말들을 모두 공개하면 온 남조선사람들이 까무라치게 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남측의 전직, 현직 당국자들과 《국회》의원들이 평양에 와서 한 모든 말과 행적, 발언들을 전부 공개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등 위협적으로 경고
- 북한당국은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01호’를 통해 “《종북세력척결》 소동”은 “남조선내부문제로만” 될 수 없느냐,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패당은 《종북》을 론하기 전에 동족관, 우리와 북남관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함.²⁷⁰(6.15)
- 총선(4.11) 정국에 즈음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 및 국회 입성과 관련하여 반복적으로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바, 탈북자의 입법부 진출로 인한 체제동요 내지 주민의식 변화를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함.

270-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01호,” 2012년 6월 15일.

- 국회에 진출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우리 사회 “각계의 비난과 규탄을 받는 인간쓰레기”라고 비하하고 북한이탈주민을 비례대표 공천 및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것은 청와대와 국정원, 새누리당의 모사꾼들이 만들어낸 각본이라고 비난
- 현 정권과 새누리당이 북한이탈주민들을 이용하여 북풍 몰이, 북풍 조작을 하고 있다고 비난
- 1990년대 중반 이래 탈북자들이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어 정치적 대표성을 갖게 되었는바, 북한당국은 이로써 야기될 수 있는 체제동요 및 주민의식 변화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시사
- 또한 북한당국은 탈북자들을 “경제적문제해결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비법월경한 공화국공민들”이라고 함으로써 북한주민들의 탈북이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근원이 있음을 부정하지 않음을 시사함.²⁷¹(3.27)
- 그러나 탈북자의 국내 입국과 관련하여 북한당국은 “인권과 종교의 탈을 쓴 거간군들을 동원하여 막대한 돈을 뿌려가며 우리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유인압치하여 남조선에 끌고가 우리 민족 안에 또다른 류형의 흠어진 가족, 친척문제라는 것을 산생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우리측의 납북자·국군포로문제 해결 촉구에 대해 북한당국이 반공포로석방문제와 ‘납남자’(북한이탈주민)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상호주의적 해결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함.
-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3.26~27)에 즈음하여 북한 ‘조선반핵

²⁷¹- “탈북자가 통일부를 책임진다,” 『우리민족끼리』, 2012년 3월 27일.

평화위원회’가 백서를 발표하고 한반도 핵위기 고조 및 전쟁발발 가능성을 경고하였는바, 이는 북핵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우려 및 비난을 약화시키고자 한 의도를 시사함.²⁷²(3.14)

- “남조선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핵화약고, 핵전쟁발원지이다.”
- 백서 발간의 목적은 “남조선을 세계최악이 핵전과, 핵전쟁위험 지역으로 만들어 놓은 미제와 남조선괴뢰역적패당의 죄행을 폭로”하기 위함이라고 밝힘.
- 특히 류우익 통일부 장관에 대해 집중적으로 비난, 공격하고 있는 바, 이는 취임 이후 ‘대북 유연성,’ ‘대화’ 등을 강조한 류우익 장관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음을 시사함.
 - 류우익 장관 역시 전임자인 현인택과 “똑같은 반통일분자, 대결 광신자”라고 비난²⁷³(3.12)
 - 통일항아리는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에 대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며 “류우익역도가 이런 흉악한 기도가 비긴 《통일항아리》를 실제 빛기까지 한 것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며 우리와 끝까지 대결하겠다는 로골적인 선언”²⁷⁴(5.22)
- 이른바 ‘최고존엄’에 대한 중상과 모독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보복 의지와 관련한 문건은 북한의 각계각층에서 ‘집중포화’식으로 연이

272- “조선반핵평화위원회 백서-남조선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핵화약고, 핵전쟁발원지이다,” 『조선중앙통신』, 2012년 3월 14일.

273- “그가 누구이든 용서받지 못한다,” 『우리민족끼리』, 2012년 3월 12일.

274- “통일항아리’는 체제대결 흥심의 조작품,”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22일.

어 발표됨.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외무성,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우 리민족끼리,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선반핵평화위원회, 조선 기자동맹 중앙위원회,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조국통일연구원,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조선법률가 협회 등
- 그러나 북한의 공식적인 행위주체들은 당으로부터 받은 동일한 행동 목표(목적)를 가지고 유사한 방식으로 유사한 내용의 활동을 하 는바, 이를 테면 이들은 남북관계에서 특정 현안이 제기, 부각되면 거의 같은 시점에서 활동을 시작하며 성명서, 담화 또는 선전편지 등을 활용하여 당의 정책을 지지, 선전하거나 당의 입장을 대변하 고 대남비난을 한다는 것도 주지해야할 필요가 있음.
-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일상적·상투적인 비난에 있어, 특히 이명박 대 통령의 측근 및 친족 비리에 방점을 찍어 우리 국민의 감정을 자극 하는 한편, ‘반이명박정부세력’에 영합하려는 의도를 내비침.
 - “특히 《최시중사건》과 같은 측근들의 부정부패사건으로 최근 더욱더 격노한 민중의 이목을 어떻게 하나 판데로 돌리고 궁지에 서 벗어나보려고 최후 발악하고 있다.”²⁷⁵(4.28)
 - “더우기 온갖 악행과 부정부패로 제 집안에서 저주와 규탄, 배척 을 받고 측근족속들로부터도 배척을 받아 산송장신세가 된 역 도”²⁷⁶(5.17)

275. “취새끼들의 어마치만한 광기(조선중앙통신사 론평),” 『조선중앙통신』, 2012년 4월 28일.

276. “‘조평통’ 대변인, 중통 기자 질문에 대답,”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17일.

-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정책으로 심각한 통치위기에 직면한 리○○역도는 친인척 및 측근들이 부정부패사건으로 막다른 궁지에 빠져”있는바, “리○○패당의 민간인불법사찰사건이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속에 련이어 터져나온 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최시중, 전 지식경제부 차관 박영준, 역도의 형 리상득의 부정부패행위 등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권》을 자처하던 리○○패당은 부정부패의 대명사로, 저주와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²⁷⁷(5.19)
- “력대 괴뢰정권치고 부정부패가 없은적이 없지만 리명박 《정권》처럼 친인척들과 최측근 인물들이 관련된 부정부패사건이 터진 팔자루처럼 무더기로 쏟아져 나온적이 일찍이 없다.”²⁷⁸(6.9)

277-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998호,” 『조선중앙통신』, 2012년 5월 19일.

278- “北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00호,” 『조선중앙통신』, 2012년 6월 9일.



Ⅲ. 향후 정책 전망과 고려사항

1. 향후 정책 전망

가. 김정은 리더십

- 최고사령관, 당 제1비서, 국방위 제1위원장, 당중앙군사위 위원장, 공화국 원수로서 모든 제도적 지위를 계승하여, 당·정·군의 모든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은 향후 ‘아래로부터의 동원’을 통한 인민대중에게 다가가는 정치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인민대중과의 거리를 좁히는 동향과 리더십 확립의 방법은 김정일 보다는 할아버지 김일성의 리더십과 매우 유사함. 따라서 김정은의 ‘김일성 따라하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해방 후 여러 지도자들의 각축했던 공간에서 김일성의 리더십의 정통성은 항일무장투쟁이었음. 또한 이를 기반으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을 혁명전통화, 신격화, 우상화 하는 등 ‘인격적 리더십’을 우선적으로 시도하였음.
 - 김일성의 통치 스타일은 ‘아래로부터의 동원’임. 해방 이후 국내파 공산주의자, 소련과 연안에서 활동했던 공산주의자 및 민족주의 지도자 중 그 누구도 김일성의 대중적 지지도에 받는 지도자는 없었음.
 - 종파사건, 경제건설을 둘러싼 논쟁 등 내부의 도전에 직면한 김일성 자신도 위에서의 논쟁을 접고 노동자, 농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을 선택함. 천리마 운동의 발단이 된 강선제강소 방문은 노동자의 열성에 호소하여 반대파의 노선을 제압하는 방식임.

나. 대내정치

- 권력이 안정기에 접어들기 이전까지는 김일성, 김정일의 권위에 기대어 통치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계속 구사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음.
 - 김정일 유훈관철에 대한 강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김정일 태양상, 영생탑 건립 사업을 전국 각지로 확대해 나가면서 수령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담론을 확산시켜나갈 것임.
- ‘김정일 애국주의’ 강조를 통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명명한 통치 담론을 정교화, 체계화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 ‘김정일 애국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사상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이며, 다양한 형태의 선전 및 교양 사업으로 체계화 될 것임.
 - 또한 이를 통해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하위 구성담론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통해 수령유일지배체제의 사상적 기반을 공고화해나갈 것임.
- 정책적 측면에서는 유훈관철을 내세우면서 변화보다는 지속에 무게중심을 둘 것임.
 - 그러나 김정은이 국정전반을 충분히 파악한 후에 새로운 정책이 제시하거나 정책적 강조점을 변화시킴으로써 김정일 시대와 차별성을 기해나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다. 경제정책

- 김정은 체제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주민들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생활 향상에 주력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자 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위해 식량문제의 해결과 전력 생산 증대 및 공급 확대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가뭄과 함께 추가적인 자연재해 타격이 있을 경우, 올해 식량작황이 나빠질 것이기 때문에 북한당국의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임.
-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경제관리체계 개선과 대외협력 확대를 위한 조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됨.
 - 경제관리체계 개선은 공식경제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생산 증대에 초점을 맞추고, 급격한 변화 보다는 체제 내에서의 변화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됨.
 - 대외경제협력 확대는 외국자본의 유치와 선진기술의 도입에 맞추어 제도 개선 및 협력 다변화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됨.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해 제한된 북한의 대외경제관계가 당분간 개선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당분간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는 지속적으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일각에서는 북한의 로켓발사 이후 북중 관계가 다소 소원해졌다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중국은 북한 체제의 불안전성이 심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과 교류·협력은 계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처럼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북한당국으로서는 러시아 및 동남아시아국가 등과의 경제

관계 강화를 통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완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확대할 것으로 판단됨.

라. 핵 정책

- 북한이 개정 헌법의 서문에 핵보유국 지위를 명시한 것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이면서 매우 의미 있는 조치임.
 - 국가주권의 최고상징인 헌법의 전문에 김정일의 업적을 ‘조국을 핵보유국으로 만든 것’으로 확인한 것은 김정일 사후 같은 내용을 명시한 일련의 입장 표명 가운데 최고수준의 선언으로써 ‘김정일 업적 = 북한 핵보유국’이라는 입장이 북한의 기본토대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대내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일의 덕택으로 북한이 핵을 보유한 강국대열에 진입했다는 것을 선전함으로써, 3대 세습과 김정은 체제에 대한 정당성 확보 및 지지와 결속 유도하고, 유신통치와 핵·미사일 강국 실현 노선을 견지할 것으로 전망됨.
- 남한에서 벌어지는 굵직한 사건에 개입해서 남한 정부를 비방하고 핵보유를 정당화하려는 노력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상반기에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와 한미 연합훈련에 초점을 맞췄다면 하반기에는 대선을 겨냥한 다양한 대남 선전선동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됨.
-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방도 지속될 것이며, 대선주자들을 겨냥하며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차기정부에서도 계속된다면 핵위협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위협적 메시지도 보낼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의 대선 과정을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다양한 대미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 지도부가 강경한 대북정책을 견지하는 롬니 공화당 후보 보다는 현 오바마 대통령의 당선을 선호할 것이므로 선거 전에 오바마의 재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발을 하지는 않을 것임.
 - 다만, 미 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가 진용을 갖추는 내년 상반기 사이에 미국 신 행정부의 대북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유리한 협상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추가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음.

마. 대외정책

- 전통적으로 북한의 대외정책은 자주, 친선, 평화의 대외정책이념에 따라
 - 대 북방외교(또는 공산권 진영외교) 강화를 토대로 자주의 기반을 구축하고,
 - 대 남방외교(또는 제3세계외교)관계를 확대하여 친선의 기반을 다지고,
 - 대 서방외교(또는 자본제국주의 대결외교)를 통해 평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것이 기본방침이라 할 수 있었음.
- 그러나 2012년 상반기에는 그 우선순위에 있어 다소 변화가 있었음.
 - 남방외교(제3세계외교)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 이후 북방외교 강화에 나서는 양상이며,

- 서방외교에 있어서는 다소 대결적 구도를 지속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음.
- 이와 같은 북한의 대외정책 우선순위 변화는 향후 북핵문제를 둘러싼 6자회담이나, 또는 남북회담 및 다자회담이 개최될 경우에 대비하여,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지지기반을 확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근본적으로는 천안함 폭침 이후의 5.24 조치와 두 차례 핵실험 및 광명성 3호 발사 이후 전개되고 있는 국제적 압박조치로 인해, 북한은 대중 무역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처하면서 정치적 자주성 확보도 어려운 상태에 있음.
 - 다시 말해 북한은 중국 및 구소련과의 관계에서 진영외교를 통한 대 서방 자주성 강화와 시계추 외교를 통한 중소 사이의 자주성 강화를 모두 약화케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임.
 - 이에 북한은 대 제3세계 외교관계 확대를 통해 대 중국 자주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대 서방 자주성도 확보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됨.
 - 이런 맥락에서 김정은의 발언 ‘평화도 중요하지만, 자주가 더 중요하다’도 나온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북한은 김정일 생전에 진행된 북방외교 복원의 흐름을 이어받아, 중국과의 관계 진전 및 러시아와의 관계강화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시계추 외교를 전개하며 최대한의 실리와 지지를 이끌어 내려할 것임.

- 또한 한일 군사정보협정체결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북한은 남북삼각관계가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될 경우, 적극 북방삼각관계 강화의 정당성을 선전하며 강하게 차후 행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음.
- 대미 관계와 대일 관계에 있어 강하게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북한은 2012년 11월 미국의 대선결과와 12월 한국의 대선결과를 주목하며 연말까지 지금의 논조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이후 2013년 상반기 동아시아 지도자 재편과정과 정책적 조율과정을 지켜보면서, 북한의 대외정책 기본 방향을 공고히 구축하고, 제시할 것으로 보임.

바. 대남정책

- 김정은 체제 정착 및 북한체제 안정화에 주력, 대남 동향도 같은 맥락에서 진행될 개연성
- 김정은의 파격적 행보에도 불구하고, 대남 관련 유화적 조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향후 대남 비난 추이 지속전망
 - 12월 대통령 선거까지 현 정부와 협상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남 비난도 격화될 가능성
- 최근 북한의 대남동향의 경우 한국 정치에 개입하는 양상을 보이는 바, 12월 대선에 개입하려는 의도의 대남 동향을 보일 가능성
- 2010년 6월 지방선거 시 이명박 정권의 중간평가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대남동향

- 천안함 폭침을 한국의 모략극으로 주장, 선거에서 집권여당에게 불리한 환경 조성 의도의 대남동향
- 2011년 10.26 재보선 시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에 비난 집중
 - 야권후보 및 안철수 바람에 대한 우호적 보도
- 12월 대선 관련 북한 측에 우호적 인사 및 정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전망되며, 보수진영 후보에 대한 원색적, 인신공격형 동향 전망

2. 정책적 고려사항

- 김정은 체제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변화들은 여전히 북한 체제가 과거의 관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 김정은 시대 새로운 사상으로서 ‘김정일 애국주의’의 등장과 함께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강조, 선군혁명위업의 달성을 위한 핵 개발의 강화 그리고 대내 및 대외 정책 그리고 대남정책에서 북한은 여전히 과거의 행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그러나 김정은은 당분간 내부 권력 장악 공고화를 위한 행보를 취하는 동시에, 정책면에서는 선대인 김정일과는 일정하게 차별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무엇보다 김정은 체제가 시작되면서 김정은의 리더십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며, 북한 엘리트 경쟁 구조의 변화, 경제 정책과 대외정책에서 새로운 행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북한의 변화 추이를 면밀히 관찰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

- 따라서 2012년 상반기 북한동향분석에서는 김정은 체제가 선군혁명 명칭의 정체성을 여전히 강력하게 하고 있으며, 일부에서 경제 개혁 동향 언급이 있지만 공식 매체의 논조는 계획경제 규율 및 동원경제형 서술을 유지하고 있음.
- 북한은 한국 정부와 관련 부처에 대해 극단의 적대적 언사를 지속적으로 구사하면서 4월의 총선과 12월의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내정에 대해 간섭적인 언동을 강화하고 있음.
 - 아울러 김정은의 동선과 언동은 한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도 낮추지 않을 것임을 보여줌.
- 김정은은 ‘인민생활 개선’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언급을 했지만, 이는 새로운 지도자의 등장에 따른 이미지 개선 차원의 접근일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북한의 변화, 즉 북한이 개혁과 개방으로 나가려는 시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김정은 체제의 향후 변화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최소 2~3년 동안 북한의 정책동향에 대한 꾸준한 분석이 필요함.
 - 개혁적 조치를 담고 있는 ‘6.28방침’을 내오기는 했지만, 가시적이고 구체적 조치가 취해진 것은 없음.
- 북한이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반을 둔 선군정치 유산임.
 - 북한은 사회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개혁과 개방보다는 수령결사옹위에 필요한 핵 개발 등 선군정치의 유산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
- 북한이 기존의 방식대로 핵 개발 지속과 대외적인 군사긴장상태를

계속 유지한다면, 2012년 후반 미국과 남한의 대통령 선거 이후 관계개선보다는 보다는 강력한 대북정책에 직면하게 될 것임.

- 전체적으로 볼 때, 초기 6개월 동안 김정은 정권은 정책에서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연속성을 강조하였으며,
 - 일부 변화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김정은 또는 고위급 인사의 언급들에 관련하여 공식 매체에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거나 실제로 구체적 조치를 취했다거나 하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음.
 - 이와 같은 보수적 자세는 정권 초기의 조심성에서 유래했을 수도 있거나, 내부에서 새로운 노선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가 어려운 것을 반영했을 수 있음.

참고문헌

『연합뉴스』.

『로동신문』.

『우리민족끼리』.

『조선신보』.

『조선중앙통신』.

『중앙방송』.

『평양방송』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사회주의헌법』, 2012년 4월 13일 개정.

연구총서

| | | | |
|--------------|---|---------------|---------|
| 2010-01 |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 박형중 외 | 9,500원 |
| 2010-02 |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 최진욱, 김진하 | 8,000원 |
| 2010-03 |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 7,000원 |
| 2010-04 |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 7,500원 |
| 2010-05 |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통일외교전략 | 배정호 외 | 12,500원 |
| 2010-06 | 북한주민 인권의식 실태연구 | 이금순, 전현준 | 8,500원 |
| 2010-07 |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 8,000원 |
| 2010-08 |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 박종철 외 | 11,500원 |
| 2010-09 |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 허문영 외 | 6,000원 |
| 2010-10 |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 홍우택 | 5,000원 |
| 2010-11 |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 정영태 외 | 11,000원 |
| 2010-12 |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 조정아 외 | 17,000원 |
| 2010-13 |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 최수영 | 7,500원 |
| 2010-14 |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 김규륜 외 | 10,000원 |
| 2010-15(I) |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 | 김규륜 외 | 13,000원 |
| 2010-15(II) |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 II | 김규륜 외 | 13,000원 |
| 2011-01 |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 전성훈 | 14,500원 |
| 2011-02 | 북한군의 기강 해이에 관한 연구 | 이교덕 외 | 11,000원 |
| 2011-03 | 통일 진입과정에서의 북한 재건 방향 | 최진욱, 김진하 | 5,500원 |
| 2011-04 | 북한의 부문별 조직실태 및 조직문화 변화 종합연구 | 정영태 | 16,000원 |
| 2011-05 | 북한형사재판제도 연구: 특징과 실태 | 이규창, 정광진 | 8,000원 |
| 2011-06 | 북한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인식 | 김수암 외 | 12,000원 |
| 2011-07 |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 협력적 위협감축(CTR)의 적용방안 | 박종철 외 | 10,000원 |
| 2011-08 | 대북한 핵협상 전략구상방향 | 홍우택 외 | 6,000원 |
| 2011-09 | 중국의 부상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 허문영, 마민호 | 10,000원 |
| 2011-10 |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 배정호 외 | 11,000원 |
| 2011-11 |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외교 전략 | 박영호 외 | 13,500원 |
| 2011-12(I) |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1부 | 황병덕 외 | 15,500원 |
| 2011-12(II) |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2부 | 황병덕 외 | 13,500원 |
| 2011-12(III) | 중국의 G2 부상과 한반도 평화통일 추진전략 제3부 | 황병덕 외 | 18,000원 |
| 2012-01 |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 전성훈 | 14,000원 |
| 2012-02 |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 김수암 외 | 11,000원 |
| 2012-03 |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 이규창 외 | 11,000원 |
| 2012-04 |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 |

| | | | |
|---------|---|---------------|---------|
| |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 손기웅 외 | 14,000원 |
| 2012-05 |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 이교덕 외 | 13,000원 |
| 2012-06 |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 박형중 외 | 11,000원 |
| 2012-07 |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 | |
| | |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 10,000원 |
| 2012-08 |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 홍우택 | 8,000원 |
| 2012-09 |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 전병곤 | |
| 2012-10 |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 박중철 외 | 12,500원 |
| 2012-11 |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 배정호 외 | |
| 2012-12 |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 7,500원 |
| 2012-13 |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 손기웅 외 | 8,000원 |

학술회의총서

| | | | |
|---------|--|--|---------|
| 2010-01 |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 | 8,000원 |
| 2010-02 |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 | 6,000원 |
| 2010-03 |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 | 5,500원 |
| 2010-04 |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 | 7,000원 |
| 2011-01 | 한반도 통일비전과 국제협력 | | 4,000원 |
| 2011-02 | 북한인권 실상과 효율적 개입방안 | | 8,500원 |
| 2012-01 |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 | 6,000원 |
| 2012-02 |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 | 19,000원 |
| 2012-03 |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 | 19,000원 |

협동연구총서

| | | | |
|------------|---------------------------------------|-------|---------|
| 2010-14-01 |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 황병덕 외 | 12,000원 |
| 2010-14-02 |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 황병덕 외 | 14,000원 |
| 2010-14-03 |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 황병덕 외 | 13,000원 |
| 2010-15-01 |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총괄보고서) | 여인곤 외 | 9,000원 |
| 2010-15-02 |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 박영호 외 | 9,500원 |
| 2010-15-03 |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 허문영 외 | 7,000원 |
| 2010-15-04 |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 남궁영 외 | 7,500원 |
| 2010-15-05 |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 전재성 외 | 9,500원 |
| 2010-15-06 |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 이수훈 외 | 7,500원 |
| 2010-16-01 | 북한의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연구(총괄보고서) | 이교덕 외 | 7,000원 |

| | | | |
|------------|--|-------|---------|
| 010-16-02 |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 전현준 외 | 7,500원 |
| 2010-16-03 |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 조정아 외 | 14,000원 |
| 2010-16-04 |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방안 | 민병원 외 | 7,500원 |
| 2011-14-01 |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총괄보고서) | 황병덕 외 | 14,500원 |
| 2011-14-02 |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상) | 황병덕 외 | 13,000원 |
| 2011-14-03 |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중) | 황병덕 외 | 12,000원 |
| 2011-14-04 | 북한정보관리체계 개선방안(하) | 황병덕 외 | 13,500원 |
| 2011-15-01 |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연구: 국제사회의 경험 분석(총괄보고서) | 임강택 외 | 11,000원 |
| 2011-15-02 | 부패의 개념과 실태 및 반부패 개혁 | 박형중 외 | 10,000원 |
| 2011-15-03 | 체제전환국의 시장-민주제도 건설 지원 | 박영호 외 | 13,000원 |
| 2011-15-04 | 국제사회의 개발지원전략과 협력체계 연구 | 장형수 외 | 9,500원 |
| 2011-15-05 | 수원국의 역량발전을 위한 개발협력전략과 사례연구 | 이종무 외 | 9,500원 |
| 2011-15-06 |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사례와 시사점 | 이상준 외 | 9,000원 |

논총

| | |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19권 2호 (2010)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2 (2010)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0권 1호 (2011)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1 (2011)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0권 2호 (2011)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0, No. 2 (2011) | 10,000원 |
|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 10,000원 |
|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 | | |
|--|-------|---------|
| 북한인권백서 2010 | 박영호 외 | 10,0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 박영호 외 | 20,000원 |
| 북한인권백서 2011 | 김국신 외 | 17,5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1</i> | 김국신 외 | 17,500원 |
| 북한인권백서 2012 | 김수암 외 | 19,500원 |
|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 손기응 외 | 23,500원 |

기타

| | | |
|------|-------------------------------|---------|
| 2010 | 김정일 현지도 동향 1994-2009 | 15,000원 |
| 2010 |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 10,500원 |

| | | | |
|------|---|------------------------------|---------|
| 2010 |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 | 13,500원 |
| 2010 | NPT 체제와 핵안보 | | 13,000원 |
| 2010 |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 | 15,000원 |
| 2010 | 통일 환경 평가(통일대계 연구 2010-01) | 박종철 외 | 18,000원 |
| 2010 | 통일비전 개발(통일대계 연구 2010-02) | 조민 외 | 12,000원 |
| 2010 | 독일의 평화통일과 통일독일 20년 발전상(통일대계 연구 2010-03) | 황병덕 외 | 16,000원 |
| 2010 | 사회주의 체제전환 이후 발전상과 한반도통일-중국, 베트남 및 중동부 유럽 국가들의 사회주의 체제전환 중심(통일대계 연구 2010-04) | 황병덕 외 | 15,000원 |
| 2010 | 전환기의 북한과 통일담론(통일대계 연구 2010-05) | 배정호 편저 | 11,000원 |
| 2010 | 한반도 통일과 주변 4국(통일대계 연구 2010-06) | 최진욱 편저 | 11,000원 |
| 2010 | Korean Unification and the Neighboring Powers(통일대계 연구 2010-07) | 최진욱 편저 | 13,000원 |
| 2011 | 통일대비를 위한 북한변화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1-1) | 박형중 외 | 17,000원 |
| 2011 | 북한변화를 위한 한-중 협력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1-2) | 임강택 외 | 6,500원 |
| 2011 |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통일대계연구 2011-02) | 조민 외 | 6,000원 |
| 2011 | 통일대비를 위한 국내과제(통일대계연구 2011-03) | 박종철 외 | 13,000원 |
| 2011 | 통일외교 과제와 전략(통일대계연구 2011-04) | 최진욱 외 | 13,000원 |
| 2011 | US-China Relations and Korean Unification(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2011-05) | 최진욱 편저 | 12,000원 |
| 2011 | 통일 비용-편익 연구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1) | 김규륜 외 | 19,000원 |
| 2011 | 체제전환 비용-편익 사례연구(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2) | 조한범 외 | 10,500원 |
| 2011 | 통일 비용-편익 추계를 위한 북한 공식경제부문의 실태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11-03) | 임강택 외 | 9,500원 |
| 2011 | 2011년 통일예측시계구축 | 박영호, 김형기 | 8,000원 |
| 2011 |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과 역할 | 배정호 외 | 6,500원 |
| 2011 | Korean Unification and the Positions and Roles of the Four Neighboring Powers | 배정호 편 | 8,000원 |
| 2011 |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북아 전략환경의 변화와 한반도 | 배정호 편 | 12,000원 |
| 2011 | 2011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 Park Young-Ho, Kim Hyeong Ki | 4,000원 |
| 2011 | 알기쉬운 통일교육 12주제 | 허문영 외 | 35,000원 |
| 2012 |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 이규창 외 | 19,500원 |
| 2012 |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 20,500원 |
| 2012 |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 허문영 외 | 13,000원 |
| 2012 |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 박형중 외 | 15,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 | | |
|------|-----------------------------|--------|
| 2010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 7,000원 |
| 2011 |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1~2012 | 6,000원 |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 | | |
|---------|------------------------------------|-------------------------|
| 2010-01 |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 임강택 외 |
| 2010-02 |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 최수영 |
| 2010-03 |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
| 2010-04 |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
| 2010-05 |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 황병덕 |
| 2010-06 | 야로슬라블 한-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 여인곤 |
| 2010-07 |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 김진하 |
| 2011-01 | 2011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 최진욱 외 |
| 2011-02 | 미-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한국의 전략적 고려사항 | 배정호 외 |
| 2011-03 | 2011년 미-중 정상회담 평가: 동북아 및 한반도에의 함의 | 황병덕 외 |
| 2011-04 |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북한 노동법제 동향 | 이규창 |
| 2011-05 | 최근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 임순희 |
| 2011-06 | 최고인민회의 제12기 제4차 회의 결과 분석 | 임강택, 최진욱 |
| 2011-07 | 중동 민주화 혁명과 한반도 전략적 함의 | 배정호, 박영호, 박재적, 이기현 |
| 2011-08 | 북한의 여성권·아동권 관련 법 제정 동향 | 임순희, 김수암, 이규창 |
| 2011-09 | 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 최진욱 외 |
| 2012-01 | 2012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 최진욱 외 |
| 2012-02 | 북한의 아동교육권 실태와 관련 법령 제정 동향 | 임순희, 조정아, 이규창 |
| 2012-03 |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 배정호 외 |
| 2012-04 | 제4차 당대표자회와 제12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의 분석 | 박형중 외 |
| 2012-05 | 최근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동향 | 이금순, 한동호 |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품

| | | |
|--------------|--|----------|
| 2010-01 |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 이규창 |
| 2010-02 | 2010년 통일에측시계 | 박영호 외 |
| 2010-03 | 북한 경제개발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 임강택 외 |
| 2010-04(III) |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 손기웅 외 |
| 2010-04(IV) |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 손기웅 외 |
| 2011-01 | 재스민혁명의 분석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 | 박종철 외 |
| 2011-02 | 창지투(長吉圖) 선도구와 북한나선특별시, 러시아 극동지역 간 경제협력 과제 | 림금숙 |
| 2011-03 | 6자회담과 남북관계: 전망과 대책 | 박종철 외 |
| 2011-04 | 보호책임(R2P)의 이론 및 실행, 그리고 한반도에의 함의: 리비아 및 코트디부아르 사태를 중심으로 | 조정현 |
| 2011-05 | 남북러 가스관 사업의 효과, 쟁점, 과제 | 이윤식 |
| 2011-06 | DMZ 총람: 개요, 정치·군사적 현황 | 손기웅 외 |
| 2011-07 | DMZ 평화적 이용의 국가적 의미 | 손기웅 외 |
| 2012-01 |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외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 김규륜, 김형기 |
| 2012-02 |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 박형중 외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품

-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2호 김국신,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1호 김수암, 전현준, 이규창
 2011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6권 2호 김수암, 김국신, 이규창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용 외

Studies Series

비매품

-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 Wook, Lee Kyo Duk, Cho Jeong Ah, Lee Jin Yeong, Cha Moon 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2011-01 A New Approach to the National Community Unification Formula
 Park Jong Chul, Hong Woo Taek, Lee Kyu Chang, Kim Philo,
 Chun Chae Sung, Cho Seong Ryoul, Hong Ihk Pyo, Hwang Sun Hye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Am et al.

기타

비매품

- 2010 2010 Unification Clock: When Will We see a Unified Korea Park Young Ho
 2010 In Search of New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im Kyu-Pyoon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 1307(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
(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 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KINU 정책연구시리즈 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http://www.kinu.or.kr>

